

건축사

2000 **05** vol. 373

- 칼럼 _____ 누가 변화를 두려워 하는가
- 작품리뷰 _____ 담양 한빛고등학교
- 해외건축 _____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1)
- 법령 _____ 개정 건축사법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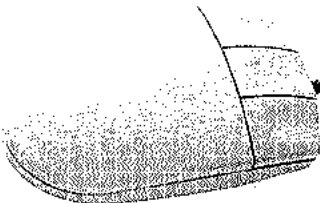


http://www.kira.or.kr

대한겨울사육아호모페이지

대한거주사협회홈페이지

협회소식 · 건축정보 · 대화광장 · 관련사이트 · 건축자재정보

[illegible]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527-0790 FAX: 527-0799 www.autodesk.co.kr



오토데스크 건축 • 엔지니어링 • 건설설계 솔루션! 상상하면 바로 우뚝섭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현재의 도면 작업뿐만 아니라 설계 전체
과정에 맞추어진 지능형 AEC 객체로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
단계까지의 모든 작업을 대신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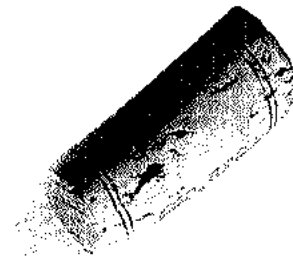


AutoCAD® Land Development Desktop

토목 계획 및 설계를 위해 도면 작성과
지형 모형 생성, 분석, 맵핑, 계획, 편집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기우디처럼 세상에 길이 남을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싶습니까?
그 상상의 건축물을 세상에 우뚝 세울
디자인 솔루션이 필요하십니까?



건축 · 엔지니어링 · 건설설계의 세계 표준!

오토데스크 건축 · 엔지니어링 · 건설설계 솔루션과 만나십시오.

지금껏 경험했던 수많은 한계를 오토데스크 솔루션이
단번에 훌쩍 뛰어 넘습니다.

당신은 꿈의 궁전을 설계 하십시오.

오토데스크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AutoCAD 사용자를 위한 ADT 업그레이드 빅 이벤트

ADT 업그레이드 특별할인가격

AutoCAD R13 사용고객	1,210,000원
AutoCAD R14 사용고객	1,050,000원
AutoCAD 2000 사용고객	840,000원
ADT R1 사용고객	660,000원
AutoCAD R13 교육용 사용고객	730,000원
AutoCAD R14 교육용 사용고객	660,000원
AutoCAD 2000 교육용 사용고객	480,000원
ADT R1 교육용 사용고객	390,000원

- 상기가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www.peopleware.c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할인가격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구입문의

(주)코스팩정보 584-6480
(주)에너텍시스템 404-9125
(주)캐드콤시스템 053-652-1898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한국씨아이.엠(주) 515-3167
(주)석영정보기술 051-517-1568



3D Studio VIZ®

설계자로 하여금 초기 개념화에서
설계 검증 및 프리젠테이션까지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설계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합니다.



Autodesk® CAD Over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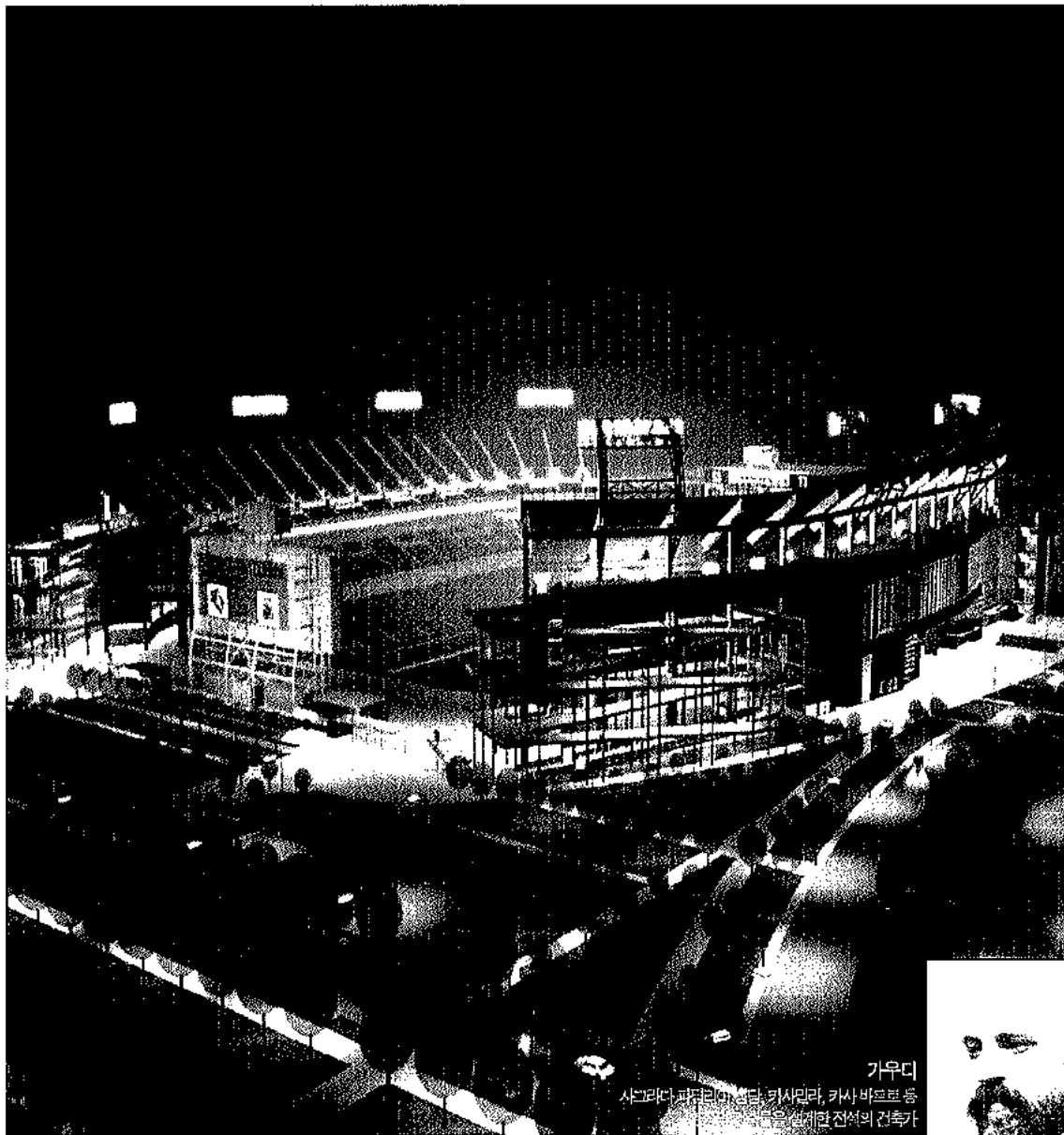
래스터 이미지를 벡터 데이터처럼
처리하고 원하는 만큼 참조 이미지
를 삽입할 수 있는 AutoCAD
애드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Volo View

AutoCAD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드로잉 파일을 뷰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가우디가 살아났다!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카사 밀라, 카사 바르초 등
독특한 유기체적 건축의 건축가

건축설계의 살아있는 전설 Architectural Desktop!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한번에 끝내줍니다.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시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건축 객체를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놓는 작업이 한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 설계자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모형 탐색기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uto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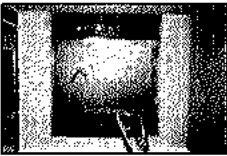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527-0790 FAX:527-0799 www.autodesk.co.kr

■ 협력업체 ●(주)인테코시스템 www.inetek.co.kr ●(주)석영정보기술 www.sycad.co.kr ●(주)에너지시스템 www.enertech.co.kr
●(주)캐드컴시스템 www.cadcomsys.co.kr ●(주)코스팩정보 www.cospac.co.kr ●한국케이.아이.엠(주) www.kcim.co.kr



건축 용역의 프로페셔널 그룹.... 에이디프로

이제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050-2638를 이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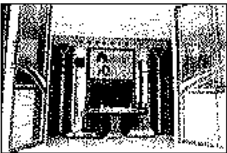
강남지사 02-3462-2638



서초지사 02-582-2638



인천지사 032-471-2638



부산지사 051-743-2637



광주지사 062-527-5000



경기지사 032-698-2638



충무지사 0337-881-2638



대전지사 042-254-2638



울산지사 052-257-2637



충남지사 0417-578-1083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용역전문회사입니다.

- 설계수주는 했는데 설계인원이 모자라십니까?
-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려야할 도면이 많습니까?
- 아르바이트로 외주를 처리하자니 신뢰가 안가고 납품도면의 질이 걱정됩니까?
- 외주처리 이후의 설계변경시 도면 수정이 걱정됩니까?
- 건축, 구조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설비도면, 구조계산, 내역서, 투시도 등의 모든 업무를 한군데서 툰키로 처리하고자 합니까?

ADpro가 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귀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소형, 조경량, 고화질의

프로젝터 **MP1600**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약속합니다.



지붕을 5초안에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ArchiCAD에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ArchiCAD로 시도해 보셨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rchiCAD는 건축 디자인과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되어온 프로그램입니다.

클릭, 클릭... 지붕이 바뀝니다.



ArchiCAD® — 건축의 세계 언어

제안1

5.0에서 6.5 upgrade
특별할인

제안2

AutoCAD R12에서
ArchiCAD 6.5 Xgrade
40% 할인

ArchiCAD와 MP 1600이 만나
특별판매를 실시합니다.

6월 30일까지

ArchiCAD ~~6,000,000~~ ▶ 6,000,000

MP 1600 ~~8,000,000~~ ▶ 6,500,000

●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부가세 포함)



■ 크기 : 22.84cm × 20.9cm × 6.25cm
■ 중량 : 1.9kg

Doalltech
Solution Provider

www.doalltech.co.kr

(주)두올테크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9층-3 유송빌딩 403호
TEL : 02)663-8955-6 FAX : 02)663-8957

GRAPHIS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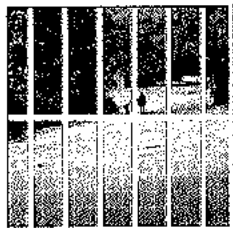
强 安

“유리에 방탄조끼를 입힌다?”

“기존 유리를 벽보다 강한 유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니타 디펜스 -도난 침입방지 필름

방범 창틀 대신 사용하는 건물 및 주택 유리창의 유리면 내부에 부착하는
 방범 · 침입방지 기능을 가진 투명한 필름입니다.

창문을 통한 도둑 · 강도 등 어떠한 외부침입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 “하니타 디펜스”



디펜스 시공 전



디펜스 시공 후

필름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제규격인증 획득!



국제유리물결협회



독일표준규격



미국 표준규격



영국 표준규격



국제표준화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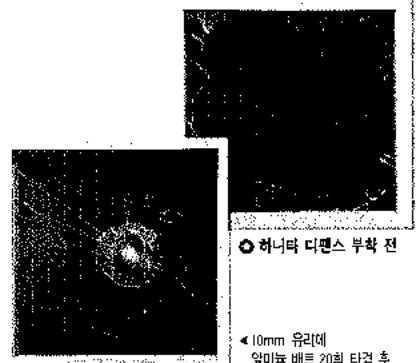
국제건축용 Film
 생산자 연합회



이스라엘 표준규격



미국재료 시험협회



○ 하니타 디펜스 부착 전

◀ 10mm 유리에
 알미늄 배트 20회 타격 후

○ 하니타 디펜스 부착 후

※ 유리창을 통한 도둑 · 강도의 무단침입 원천봉쇄 및 조형미 유지
 도난 및 테러방지, 감옥 아닌 감옥인 방범철창 · 셔터 불필요,
 미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 이웃의 화재, 가스폭발 및 태풍으로부터 보호
 파지 · 폭발 · 내부의 화재나 위급상황시 밖으로의 탈출이 용이합니다.

※ 유해 자외선 99% 까지 차단
 기미 · 주근깨 · 피부병 발생저지, 고급의류 및 커튼, 쇼파 등
 탈색 변색 방지합니다.

※ 셔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품 홍보효과 극대화
 야간에도 전시 ·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유리파손으로 인한 인명보호
 열차단 효과로 단열 및 보온효과 30~70% 절감 및
 실내 · 외 유리파손시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Color Defense 선택시 외부시선 차단으로 사생활 보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미려한 외관을 조성합니다.

대공간 강구조나 투명건축을 계획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철골을 긴장한 SEMALLOY® 고장력 인장봉이 있습니다!!!!

■ 주요 생산품 및 제품명

- 강구조건축, 교량의 긴장 및 내진용 고장력 인장봉 세트
(H.TENSION TIE BAR SET FOR STEEL STRUCTURE)
: SEMALLOY® 460, 835
- 유리구조용 스테인레스 인장봉, 케이블 세트
(STAINLESS PARTS TENSION BAR, TENSION CABLE SET FOR GLASS STRUCTURE) : SEMALLOY® STS
- 프리스트레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스트텐션용 고장력강봉 세트
(H.TENSION BAR SETS FOR P.P.C POST TENSION)
: SEMALLOY® P.C BAR

■ 생산제품규격

Grade	Diameter	Length	Remark
SEMALLOY® 460 SEMALLOY® 835	25 ϕ ~ 120 ϕ	12m	H.T BAR
SEMALLOY® STS	12 ϕ ~ 60 ϕ	8m	STS BAR
SEMALLOY® P.C	25 ϕ ~ 75 ϕ	8m	P.P.C BAR

• Coupler 사용으로 길이의 연장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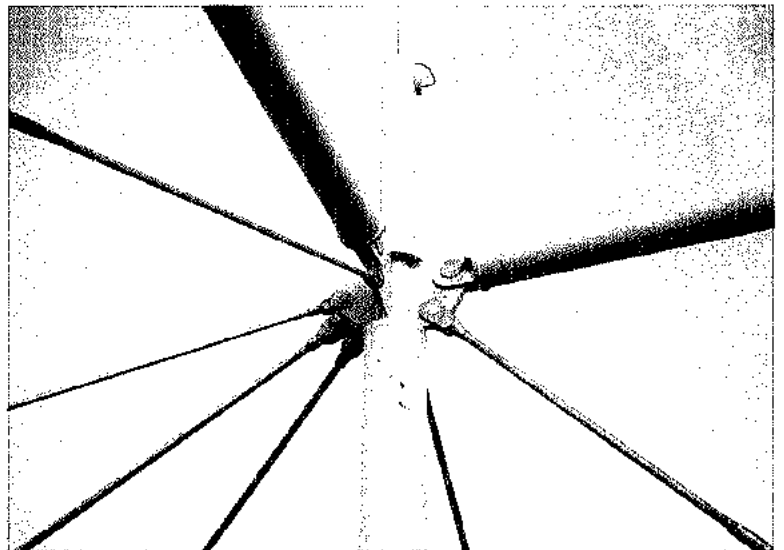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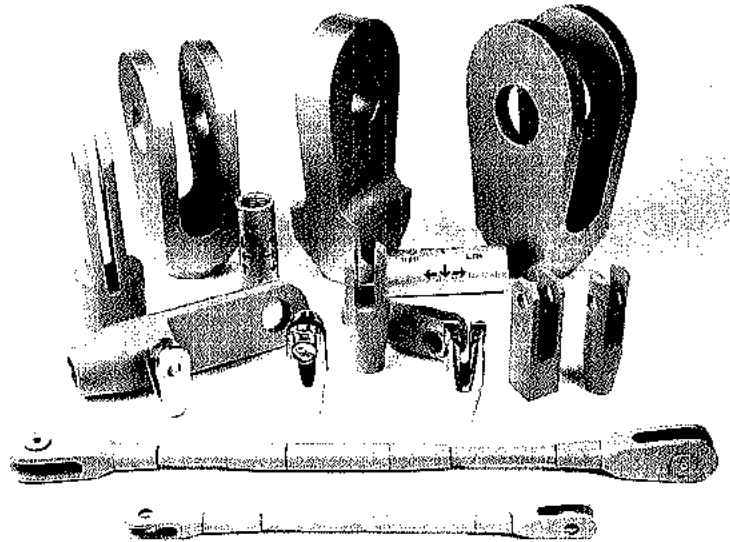
■ 제품의 기계적 특성

Grade	Properties	Min Yield Stress (N/mm ²)	Ultimate Tensile Stress (N/mm ²)	Min elongation (%)
SEMALLOY® 460		460	610	20
SEMALLOY® 835		835	980	20
SEMALLOY® STS		205	515	30
SEMALLOY® H.T STS		690	860	12
SEMALLOY® P.C BAR		930	1080	5

• P.C Bar는 사양 별도협의 요망.

■ 공 사실 적

현 장 명	원 청 시 공 자	사 용 규 격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한진, 삼성, 대우	M24~M100
대림대학 체육관	(주) 삼호	M56~M64
메리이트 호텔	삼성중공업(주)	M56~M64
반포천 복개 고가도로	센트럴 건설(주)	M36~M140
서울대 생활체육관	POSCO개발	M36~M64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대산업개발(주)	ϕ 56
고속전철 천안역사	한라건설(주)	ϕ 24~ ϕ 32



SEMALLOY®
세일단조

경 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10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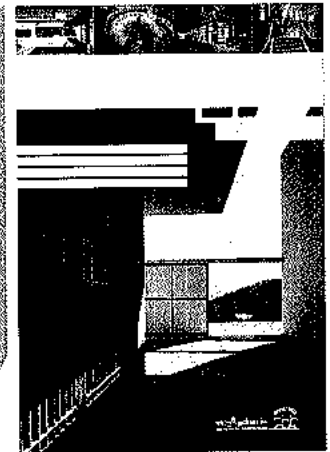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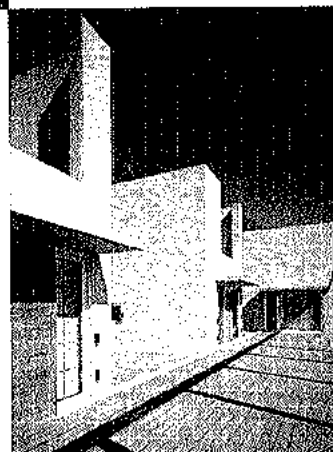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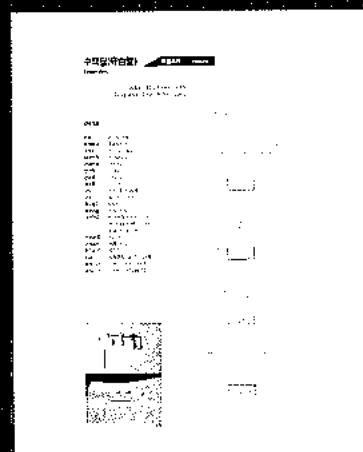
TEL : (0523)387-7070 FAX : (0523)387-7074 E-mail : seil7070@chollian.net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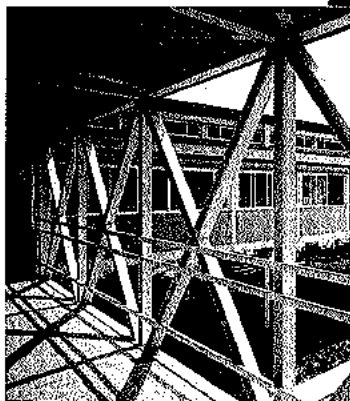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외(본협회 촬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점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사를 소개할 만한 신빙잡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팀
(우편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차례 2000 05 373호



담양 한빛고등학교(조건영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인: 서천식
편찬분과위원장: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근, 최동규
편집: 최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o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 / 천흥전산인쇄
광고: (주)이투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 Chang Yang-Soon, Kim Joung-Hwae, Kim Heung-Soo, Yoo Won-Jae,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칼럼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조성룡	14
작품리뷰 / 담양 한빛고등학교		조건영	16
	비평 : 자키려는 자리	김병윤	24
건축만평		유원재	27
회원작품	필당(匹堂)	정현화	28
	봉조헌(鳳朝軒)	송광섭	32
	남원의료원	정종영	36
	서울대학교 환경연구관	김승희 · 강원필	40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실험동	부대진	44
	엑스투르드	김인철	48
	인클라인 Ⅲ	주영정	52
작품노트	각북 · 전원 · 주택	박종석	56
기고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공사비 계획(Cost Planning)과정	홍영배	60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의 사후 품질보증 방안	윤혁경	66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1)	한동수	70
건축마당	협회소식		75
	추모		76
	건축계소식		77
	법령		85
	해외잡지동향		93
	계획작품		99
	회원현황		103
	통계(2000년도 3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4

Column

Who's Afraid of the Change?	Joh Sung-Yong	14
Review / Danyang Hanvit High School	Zo Kun-Young	16
critique Continuous Vision	Kim Byung-Yoon	24
Cartoon	Yoo Won-Jae	27

Works

Pildang	Chung Hyun-Hwa	28
Bong-Jo-Heon	Song Kwang-Seop	32
Namwon Hospital	Jung Jong-Young	36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Seung-Hoy & Kang Won-Phil	40
Laboratory Building of Public Health College, Korea Univ.	Bou Dae-Jin	44
Extrude	Kim In-Cheurl	48
Incline III	Joo Young-Jung	52

Design Note

One Bed Room House	Park Jong-Suk	56
--------------------	---------------	----

Feature

The Cost Planning Process of Pre-design Phase	Hong Yeong-Bae	60
Suggestions for Post-Occupancy Quality Guarantee	Yoon Hyuk-Kyung	66
System of Public Housings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Han Dong-Soo	70
Architecture of China(1)		

Architects' Plaza

KIRA News	75
Condolence	76
Archi-Net	77
Laws & Ordinances	85
Overseas Journal	93
Process Work	99
Members	103
Statistics	10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6~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8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3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0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8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9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시건축사회/(0344)963-8302 · 광명시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시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시건축사회/(032)664-1654 · 성남시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시건축사회/(032)684-4121 · 인천시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시건축사회/(0343)449-2698 · 의정부시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시건축사회/(0338)635-0545 · 평택시건축사회/(0333)8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시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 강릉시건축사회/(0391)652-0126 · 삼척시건축사회/(0394)531-8708 · 속초시건축사회/(0392)633-6163 · 영월시건축사회/(0373)374-2869 · 원주시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시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 옥천시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시건축사회/(0443)643-3588 · 충주시건축사회/(0441)851-152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시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시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시건축사회/(0483)835-2217 · 서산시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시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시건축사회/(046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시건축사회/(0654)452 3815 · 남원시건축사회/(0671)631-2273 · 익산시건축사회/(0653)652-379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시건축사회/(0631)272-3348 · 순천시건축사회/(0661)743-2457 · 여주시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시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600~2
- 경산시건축사회/(053)612-6721 · 경주시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시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시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시건축사회/(0581)563-1412 · 상주시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시건축사회/(0571)653-0244 · 영주시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시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시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시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5-4530~1
- 거제시건축사회/(0558)635-5870 · 거창시건축사회/(0598)943-6030 · 김해시건축사회/(0525)334-6644 · 밀양시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시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93)833-5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시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시건축사회/(0595)86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시건축사회/(064)733-5501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Who's Afraid of the Change?

조성룡 / 조성룡도시건축사사무소
by Joh Sung - Yong

새 천년 첫 해의 달력을 벽장이나 넘긴다. y2k가 지구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지구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지난해 말의 우려는 이제 무관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난 20세기의 변화무쌍한 시대를 마감하기 아쉬워 지구가 온통 미친 듯이 그림자를 보낸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세기의 원년은 저만치 흘러가고 있다. 악몽 같았던 경제환란 기간 동안 우리는 잠시 숙연하며 잘못된 과정과 판단을 뉘우쳤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엔 그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늘 그랬듯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면 관성은 원래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듯하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 변하지 않으며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했단가? 과연 그럴까? 혹시 그리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변한다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애써 피하고 싶은 탓이 아닐까?

이러한 이유라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과 안위를 놓치고 싶지 않거나 외부의 변화에 둔한 소치이다. 분명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 휩쓸리고 있지만 그 사실로부터 고개를 돌려 어찌면 헤아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자산을 거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 변화를 살펴보자.

'20세기의 대중가요'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이영미 선생은 일제 점령하의 질곡 속에서 태어난 한국대중가요의 뿌리는 암울했던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일본 엔가(連歌)와 군가(軍歌)에서 발전하였고 막연한 탈출구로서 서구세계에 대한 동경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해방과 전쟁의 과정, 다시 미군 점령기 이후의 왜곡된 미국 문화,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군사독재와 문민정부로의 탈바꿈 속에서 어떤 가요는 지하로 잠입하거나 뜬금 없는 반 리얼리티로 피해갔으나 90년대 들어 서서히 지상으로 떠오르고 이제는 그 생경함도 사라져 버렸다. 요즘 밥먹듯이 써대는 정보라는 단어도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절에는 조심스러운 낱말이었고 붉은색 글씨를 쓰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어디 그뿐이랴. 그 때 우리가 광화문 네거리쯤에서 카메라를 마음 놓고 들이댈 수 있었던가.

지난 10여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는 수 없이 많다. 건축사와 사업주 사이의 비리를 걱정한다고 하여 소규모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꽤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일, 사무소의 영세함이 곧 기

슬수준의 저하이며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판단으로 셋 이상의 건축사가 한 곳에 모여 영업해야 한다는 종합사무소 제도 등등의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이러한 것이 없어진 것이 1995년의 일이다. 이렇게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사고와 재해의 연속 속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인간사회는 그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이란 제도를 발명해 내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계약은 약속이 잘못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온갖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법으로 삼았다. 관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물의 설계경기가 제도화 된것은 80년대 이후로 기억된다. 계약쌍방이 저지를 지 모르는 비합리적, 비합리적, 반 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경기(이 말 자체도 90년대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그전처럼 '현상설계'라고 부른다)가 도입 되었다. 그 이후 수많은 설계경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틀에 맞추어 설계경기를 치르다 보니 그 내용이 줄속으로 흘러갈 뿐 아니라 실제 내용보다는 겉치레와 형식적인 행사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경우도 흔했다. 설계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정성과 좋은 작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시스템에 있다. 사업계획과 대지 조건에 알맞은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기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공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설계경기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기획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시행측의 무모함과 횡포에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응모자의 자세와 심사를 맡은 사람들의 무책임이다. 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계경기에 참가하고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휩쓸려 본질보다는 표현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모름지기 설계경기는 건축사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견주어 보는 이벤트라면, 지금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상업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설계도판을 도배해 놓는 작업 행태에 대하여 부끄러워 해야 한다(대형사무소들은 이 작업에만 수 천 만원을 쓴다는 소문과 그렇게 제작해야 심사위원의 눈에 든다는 서글픈 짐작들은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

건축학과의 학제가 5년제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나 이유가 어떻든 제도가 현재의 건축가 교육의 저해 요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제도 탓만도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이함과 무신경이 오늘날 우리의 건축교육 풍토를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마다 5년제 전문과정 개설에 부심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학 중에서 10퍼센트 미만이면 충분한 건축가 양성을 위하여 전체가 변화할 필요는 없다. 학제가 바뀔때 따라 건축사면허의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이고 국제시장개방과 맞물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건축사들이야 나 몰라라 하겠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지금처럼 건축사무소 명의로 등록되는 설계경기에서 자격시비가 일어날 것이고 관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외국인과 구별없이 무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이 변화에서 중요한 사안은 기존대학 학제를 마친 졸업생과 과도기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일 것이다. 학제변화에 따라 남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1993년 '건미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결성되며 발표한 '건축백서'에서 건축 3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회원의 구성에서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는 면허의 소지여부에서 차이가 날 뿐 기능이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협회의 관장기관이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점도 혼선을 빚는 요인이라할 수 있다. 협회가 시작된 60년대 무렵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에 와서 그 두 단체의 분리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 전문 직능으로서 사회적인 위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와 함께 책임과 권리를 마땅히 분별해야 한다.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도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되며 적어도 국제협상과 교류, 교육을 위해서라도 통일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의 입장은 점점 곤란해지고 힘을 잃어 갈 것이다. 3단체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낼 일은 산적해 있는데 자칫 때를 놓쳐 새로운 변화와 동떨어져 퇴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쇄성으로부터 뛰쳐나와야 하는 건축사의 용기이다.

담양 한빛고등학교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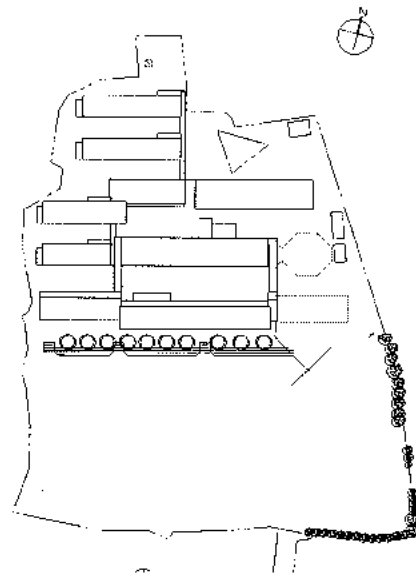
review

Damyang Hanvit High School

조건영 / (주)건축사사무소 기산
Designed by Zo Kun-Young

건축개요

위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번지
대지면적	15,976㎡
건축면적	3,031.12㎡
연면적	4,966.11㎡
건폐율	18.99%
용적률	31.08%
용도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주차대수	24대
구조	철골조
규모	지상2층
외부마감	외벽단열공법(드라이비트 뿔철마감)
건축주	사단법인 거이학원
설계담당	이정우
사진	채수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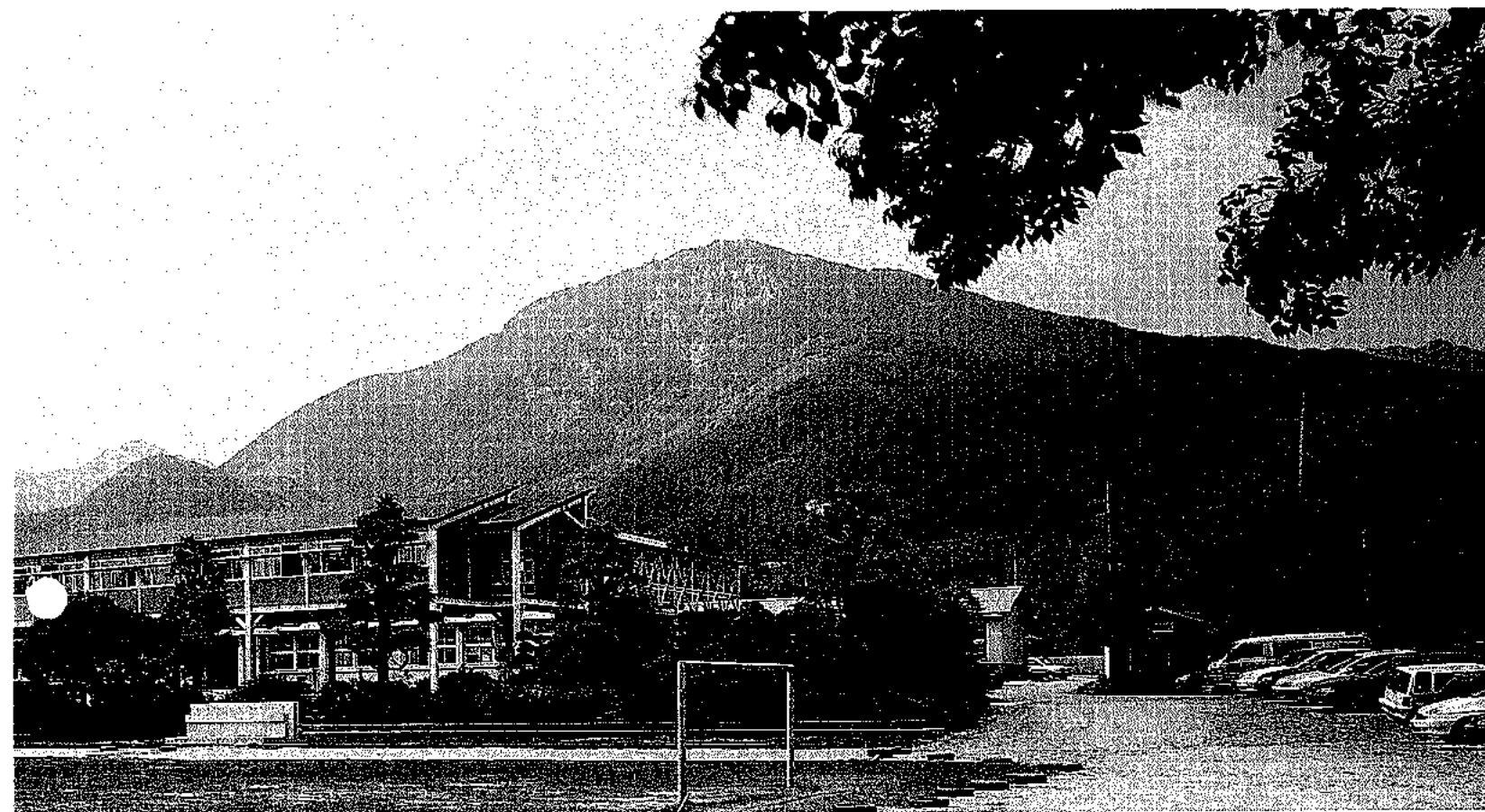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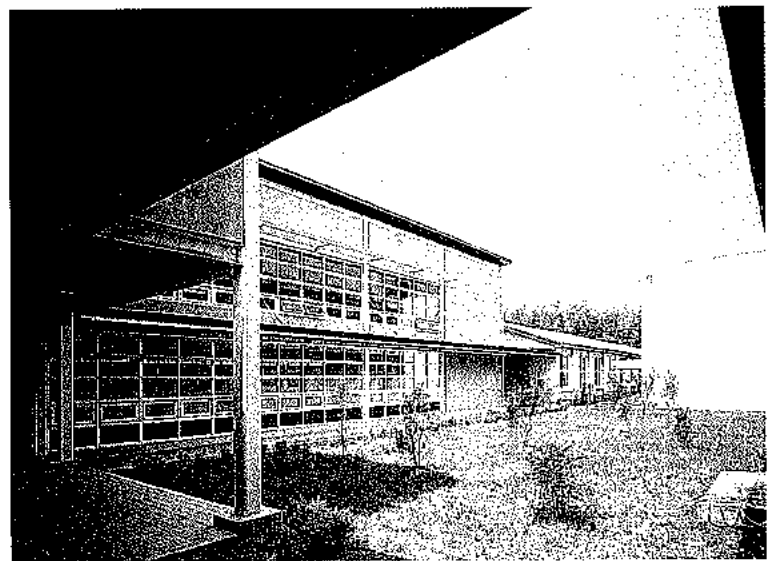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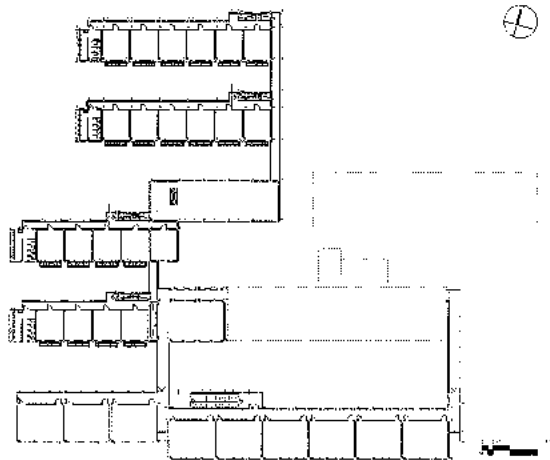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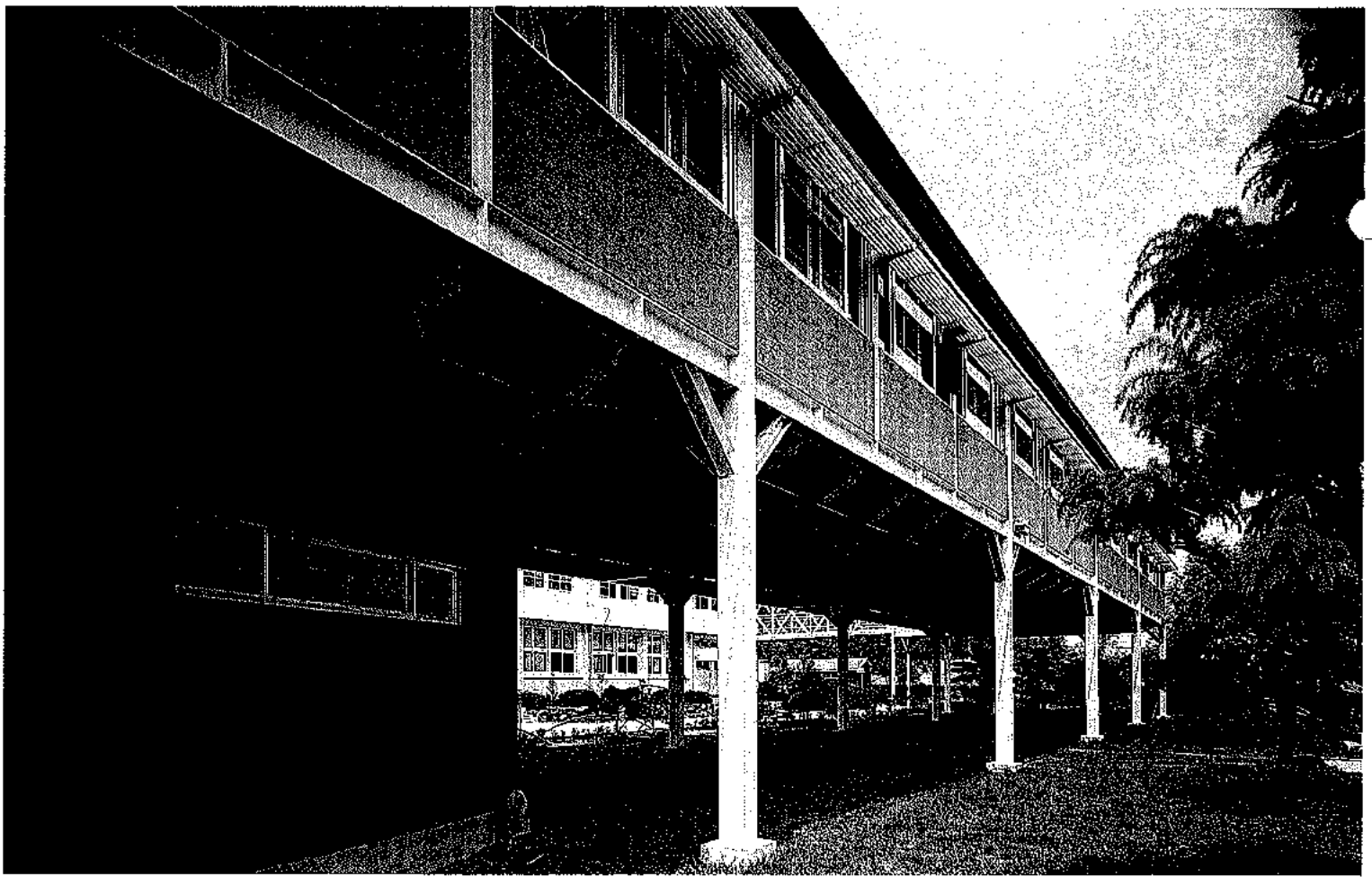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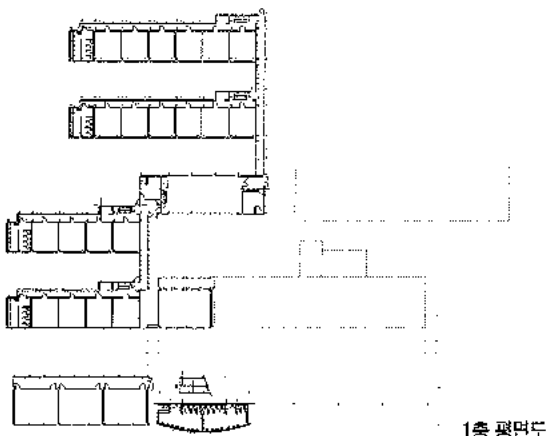
마당이라는 것은 주택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건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간의 분할과 기능의 분할은 더 이상의 언급을 요구치 않고, 여기에 더하여 감성의 분할과 분출, 집약, 굴리기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반하고 있다. 현재의 여러 주택들은 면적늘리기에만 치중하여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당에는 그 영역을 부여하는데 있어 인식함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의 한옥을 둘러보자. 특히 그나마 기존의 형태와 기능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가회동, 계동, 삼청동 등의 한옥들을 머리속에 가만히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가옥들은 'ㄴ'자를 기본으로 'ㄷ'자 형태와 이에 대문주위에 한 두 칸이 더해진 'ㄹ'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상공에서 보면 더욱 뚜렷하듯이 집과 집들은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제외하고 모두가 최대한으로 접하고 있어서 집의 가운데 즉, 마당에 서면 사방이 막혀있다(물론 지방이나 대지가 넓고, 주위에 가옥들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 집의 가운데 즉, 마당에 서면 보이는 것은 오로지 대문을 통한 바깥과 하늘과 그리고 마당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흙바닥뿐이다. 여기서 대문을 닫으면 하늘과 땅뿐이다. 이렇게 형성된 마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마주치는 곳이면, 또한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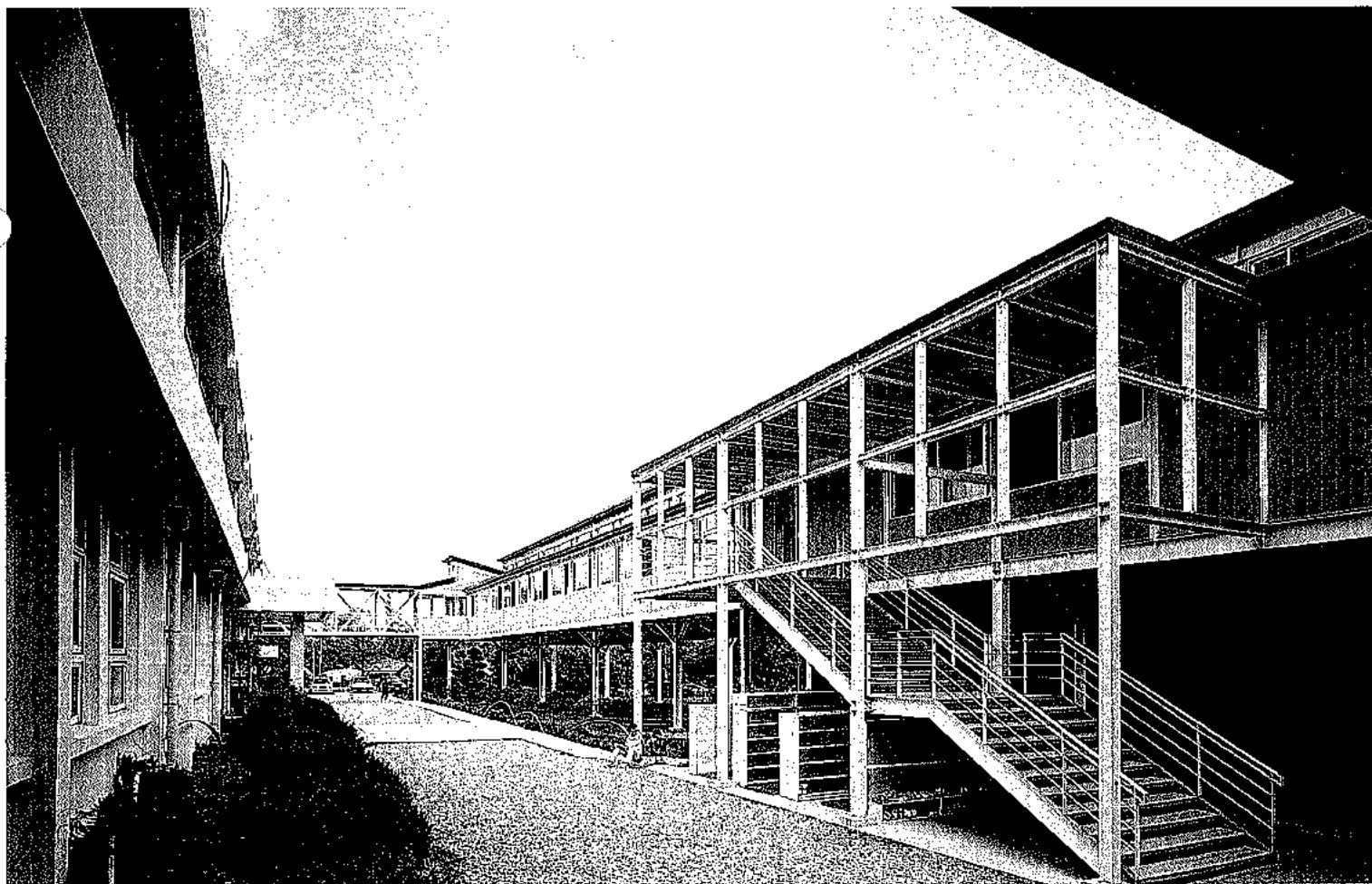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과 땅으로 뻗쳐가는 기운의 시발점이 된다. 이곳에서 사람(人)은 천기와 지기를 동시에 섭렵할 수 있고, 이러한 기운들을 우리의 체내에 보관, 양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나무가 하늘의 천기를 받으며, 땅의 지기를 받아서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리라. 한빛고등학교는 폐교된 기존의 삼삼초등학교 교사를 개보수하여 임시교사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 증축공사로 인하여 일반교사동, 특별교실동, 남녀기숙사동으로 제 모습의 일부분을 완성하였다. 차후 다목적 강당(2000년 6월 착공예정)과 교무실동, 그리고 일반교사동의 일부증축을 마침으로써 모든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게 된다. 눈과 눈을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따라 교문에 들어서면 이번 증축에 의한 회색의 일반 교사동 건물이 보이고, 그 교사동의 1층 필로티 사이로 옛 초등학교 건물이 아스라이 보인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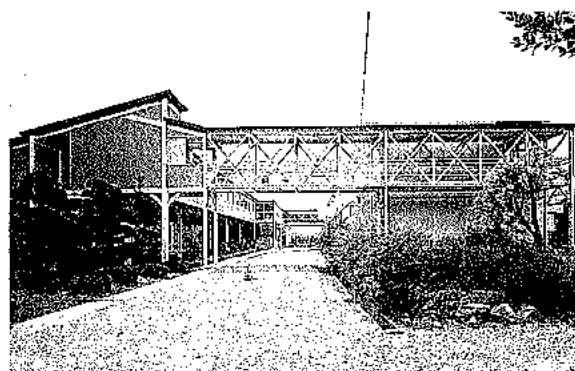




러한 필로티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를,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고 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 교사동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존 초등학교 교사동과 이번 증축교사동에 의하여 형성된 안마당이 나오고, 원편의 남자 기숙사동과 기존 초등학교 교사동 사이길로 들어가면 기숙사동의 주입구와 도서관동과 기존교사동에 의해 형성된 잔디조경된 뒷마당이 나온다. 이러한 앞, 뒷마당과 더불어 각 기숙사동도 각각의 앞 마당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은 학생들의 자차공간으로서 세탁물의 건조, 휴식, 잡담, 상념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우리의 의도에 의하면...)

한빛고등학교는 사단법인 거이학원의 숙원 사업으로 현재의 입시입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이른바 진인 교육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진실된 교육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는 몇 안되는 열린학교이다. 각 학급의 인원은 약 25명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열린교육의 장으로의 완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학생들의 특기를 최대한 발견,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업내용과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기성찰의 장(場)과 아늑한 생활의 장, 그리고 자유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화두는 마당, 즉 장(場)의 형성에 있다. 전체 배치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듯이 모든 매스들은 서로끼리의 자연스러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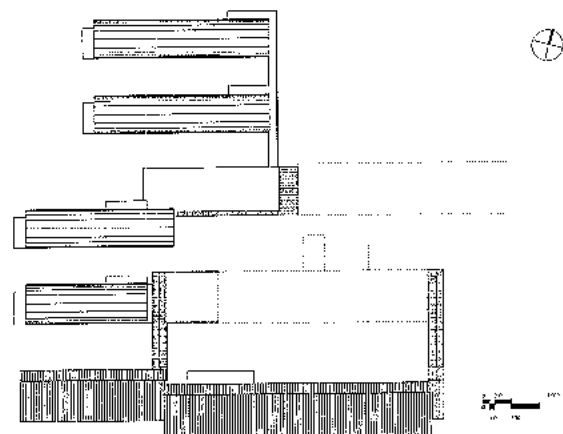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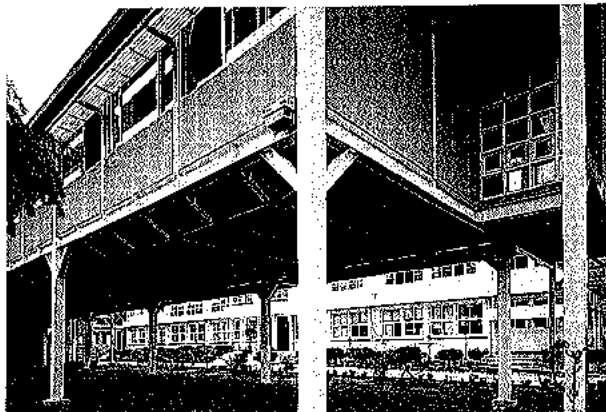
결을 통하여 기능적 경로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연결통로와 각 매스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마당들이 형성되었다. 비록 한옥의 마당에는 미치지 못해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된다. 공간감이라는 것은 매스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스와 매스에 의해서 그리고 매스와 하늘과 땅에 의해서도 매스속의 공간감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공간감이 형성된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공간속에서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에 있어 잊혀지지 않는 추억과 감성의 발견과 발전을 이루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정립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 (글: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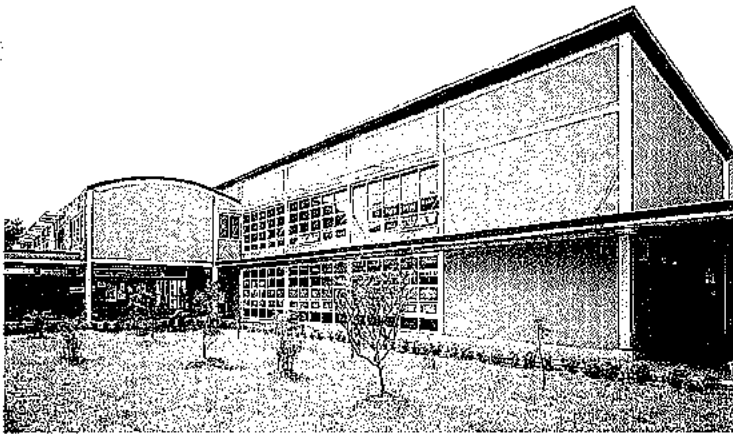
A ma-dang(a court-yard) has had numerous functions not only in houses but in all kinds of architecture. From time immemorial to today....

There is no need any more to mention about the partition of spaces and functions that the ma-dang does. In addition to these roles, the ma-dang also has a diverse function such as the division, eruption, congregation, and rotation of the senses. But nowadays housings are only focusing on expanding their areas and are stingy about giving the appropriate territory to this important multi-functional ma-dang, which they should normally have. But let's look at the han-ok that we can easily encounter. Let's think of, especially, the han-oks of Gahoi-dong, Gye-dong, Samchung-dong, where the original forms and functions are at least in a better condition than other places. Most of the houses started with the basic 'L' shape and progressed to the 'ㄷ' shaped houses and to the '口' shaped house, which is the addition of one or two cells on the 'ㄷ' shaped around the entrance-door. But when these housings are seen from a higher view, it is apparent that these housings are encountering each other to the extreme with just a minimal open space. As so, if one stands in the middle of the house, that is in the ma-dang, one becomes totally enclosed from all four sides(of course in areas where the site is large, and doesn't need to be as dense as here, the situation is a bit different).

When one stands in the ma-dang of these houses, only the sky, the sand and turf covering the ma-dang, and the view that can be seen through the entrance-door are viewable. And when this entrance-door is even closed, only the sky and earth exists. The ma-dang in this situation becomes the confluence of the energy descending from the sky and the energy ascending from the earth. Also it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energy spreading out to the sky and into the earth. This is the place where human understand the energy of the sky and earth, and reserve and nurture it within the corporeal. It is the same reason as the tree receives light and air from the sky and absorbs water and nutrients from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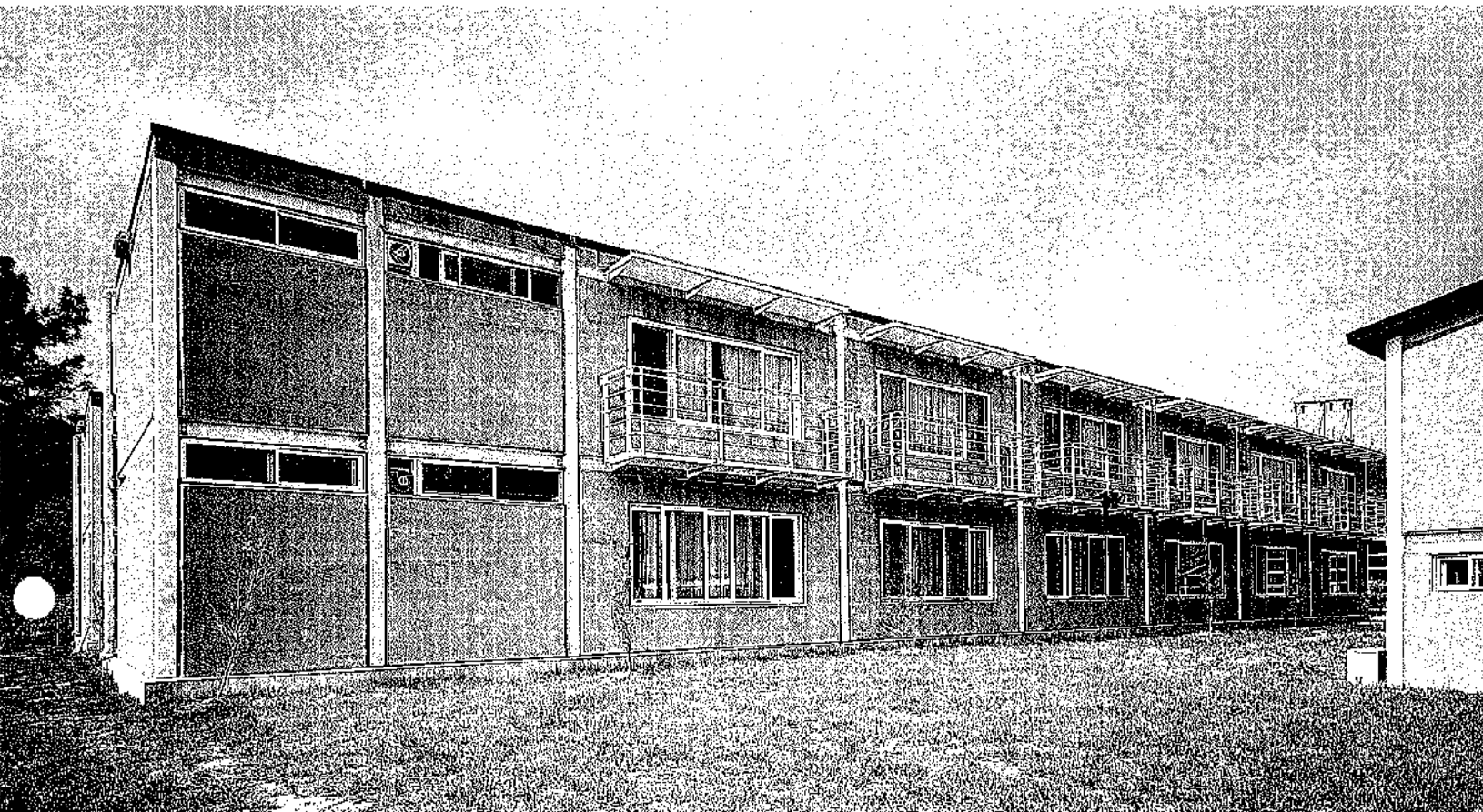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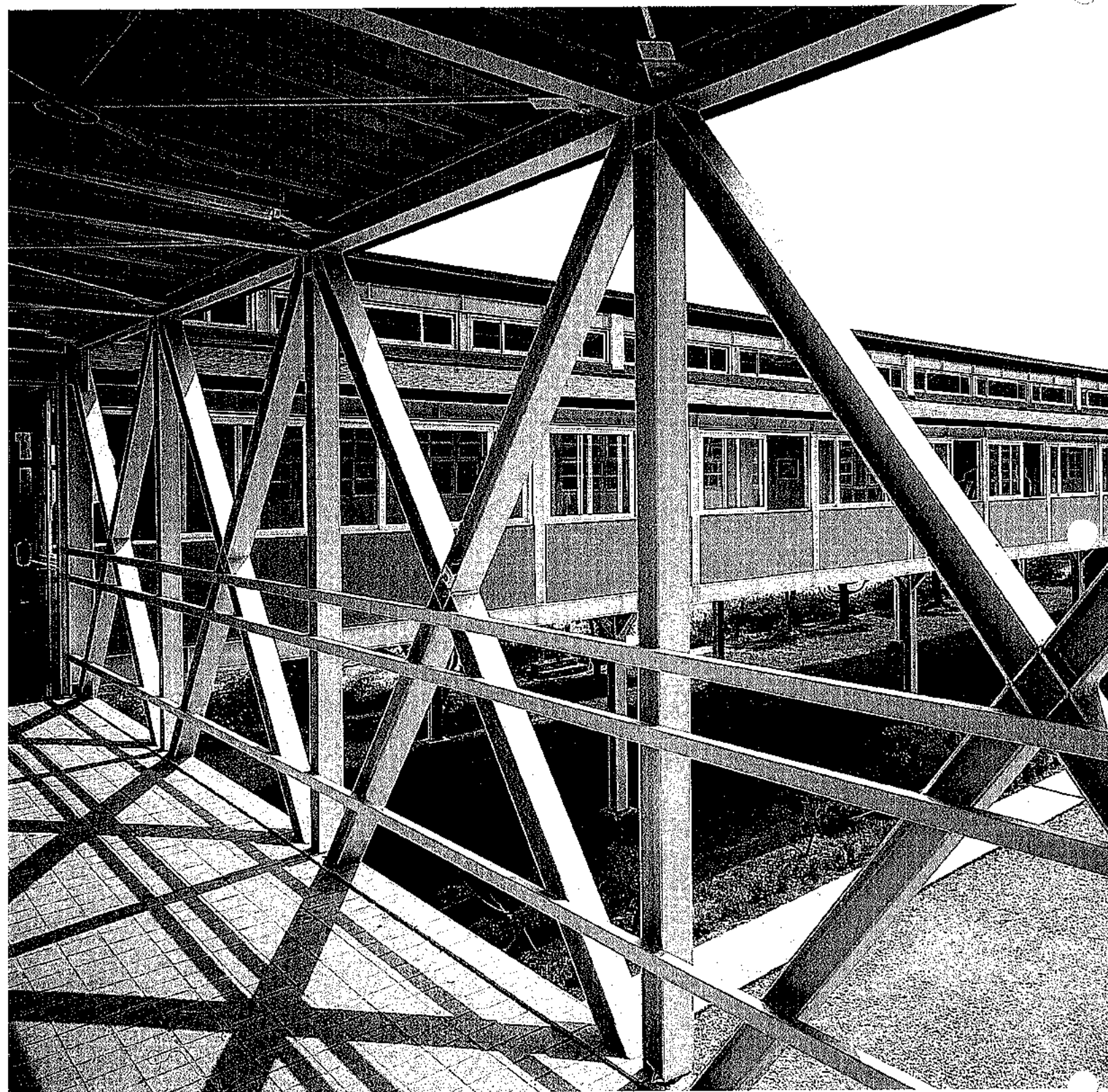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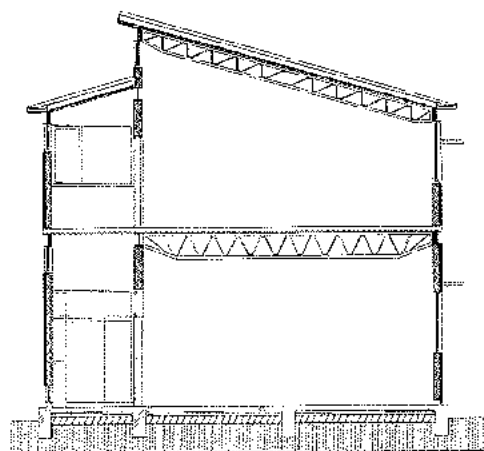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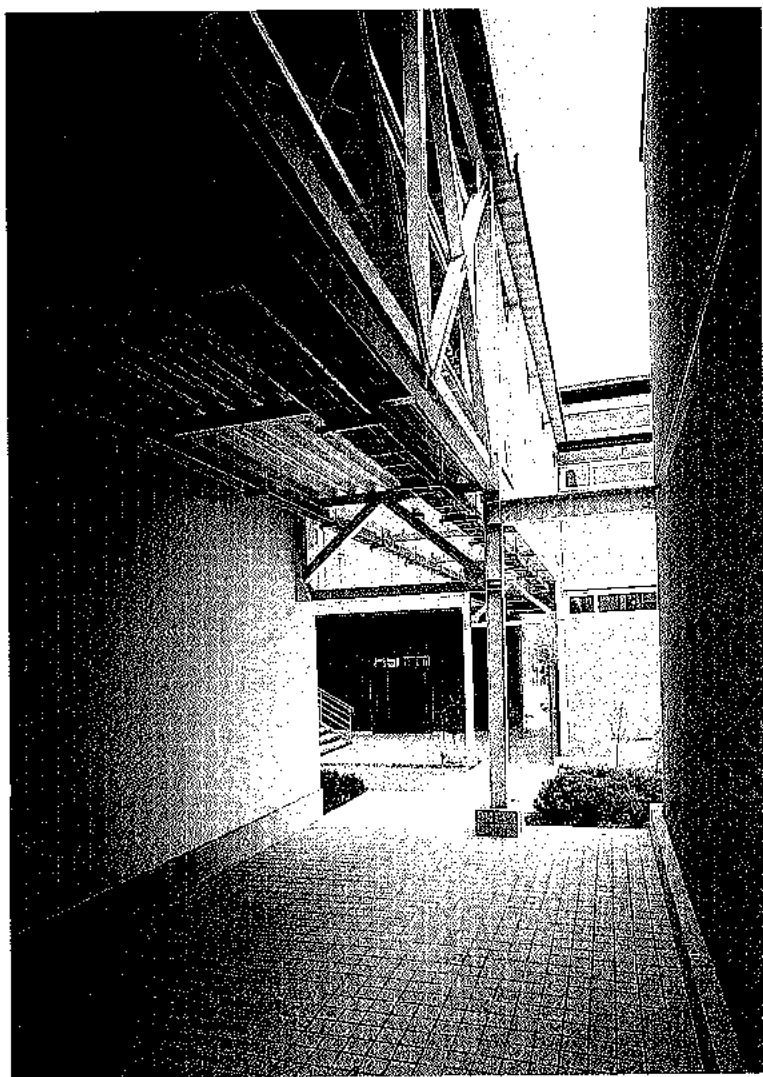
Harvit high school had been using the former Samsam elementary school's buildings as its temporary classrooms, and through this expansion construction, it has established a part of its master plan by constructing the general classrooms, special education classrooms and the boys and girls dormitory. As the next progress for the completion of the total master plan, a multi functional auditorium, which is due construction on June, 2000, the faculty building, and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classrooms will go on progress. By walking along the access road amidst the rice fields, one arrives at the school gate, and when entered the newly built white buildings can be seen. Through the 1st floor piloti one can find the dim image of the former authentic elementary school. This piloti allows the exterior view from the interior and the interior view from the exterior. As soon as one crosses the sport's field and enters the main campus, the former elementary school and the courtyard formed through the expansion of classroom

buildings emerges. And if one goes through the path formed between the boys dormitory and the former elementary school on the left, the main entrance of the dormitory and the grass covered back yard formed between the library and the classroom buildings comes about. Besides these two front and back court yards, each dormitory building has its own front court, and this space is used by the students arbitrarily with activities such as rest, conversation, drying laundries and contemplation(that is, according to our intentions...). Harvit high school is the main social project Geo-yi Academy Corporation has planned for a long time. This school which Geo-yi has established is one of the few schools that truly seeks to form an open school for all students with an object of realizing sincere education. Each class consists of 25 students and the conditions presented as the ideal of an open all around school are eagerly being realized. Also special activities and the contents of the class are being developed and modified in order to maximize the students aptitudes and abilities. As is so, we wished and have endeavored to offer these students more space for contemplation, a place of comfort, and the field of liber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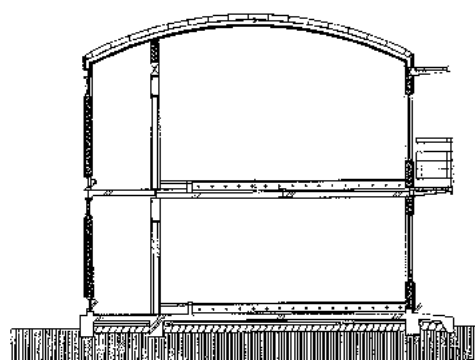
The main topic of this project was in the formation of a place, that is a ma-dang. As apparent in the overall layout of the master plan, each mass has a functional route obtained through the natural connection between each other. Accordingly these connecting routes and each mass have naturally formed large and small ma-dangs. Although it may not have the same prestigious quality of the han-ok ma-dang, it doesn't lack in its ability to carry out functional tasks. This project intends to tell that space does not only exist within a mass but also between masses and moreover among the mass, the sky and the earth. We hope that through this huge space, just blossoming children can render valuable memories through their adolescence and develop and seek their emotions and aptitudes. A place where they can form their own visions in life and organize relations among people.







교사동 단면도



기숙사동 단면도

Location 11 bunji, Haengsung-Ri, Daejon-myun, Damyang-gun,
Junnam Province

Client Geo-yi Academy Corporation Aggregate

Site Area 15,976m² **Building Area** 3,031.12m²

Building Coverage Ratio 18.99%

Total Floor Area 4,966.11m²

Gross Floor Ratio 3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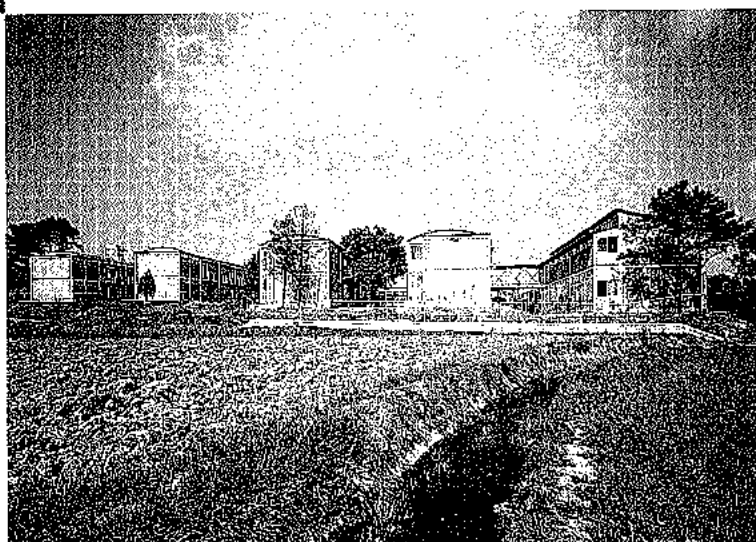
Function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 Dormitory

Parking Capacity 24 **Structure** Steel Structure

Construction Park Hong-jae

Exterior Finishing Exterior Insulation Construction(Drivit Spray
Finishing)

Photographer Chai Soo-Ok



지키려는 자리 Continuous Vision

김병윤 / 백제예술대학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by Kim Byung-Yoon

사의적(寫意的)장소의 시작 Beginning of a significative place

오월의 하늘은 너무나 많은 일을 알고 있어 그 푸르름이 가득한 기개에도 불구하고 한켠 수심이 보인다. 하늘은 그날 그 오월의 함성이 무거운지 이곳에다 그 푸르른 대나무들을 기르고 있다. 병풍같이 넓고 큰 삼인봉 지락을 뒤로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을 구가하던 평화롭고 온화한 이 지역의 역풍은 아무래도 대나무가 많아서인지 농촌이면서도 기상과 기백을 갖춘 모습으로 걸출한 일들을 받아 낸 흔적이 보인다. 담양호의 지리적인 깊숙한 침입이 전북의 땅에 합류한 듯이 보이는 전남과 전북의 도계에 해당하는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여 죽순회와 낙죽 담양채색 등이 유명하고, 동으로 이웃한 전북 순창은 고추장과 순창 자수 한봉으로,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구례 곡성은 깊은 산세로 산나물이 잘 알려져 있고, 서로 면한 장성은 버섯요리와 황룡강의 천어, 한지, 곳감 등이 유명하다. 남으로는 후백제의 견훤이 장악했던 옛날의 금성일원으로 무등산이 있는 광주, 이 땅의 분단과 더불어 많은 애환을 담은 화순, 보성, 벌곡으로 이어지며 자연이 주는 즐거운 식탁의 참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 소재원도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농촌의 잔잔한 일상에 가려진 이곳에는 한편 그 오월의 민주화 함성이 들려오는 듯한 강한 지역의 역풍이 불어오나 이제는 아픔만큼이나 응어리진 미소가 묻어 나기도 한다. 이



소재원 (사진: 박영재)

나라의 슬픈 일들이 여기만은 아니지만 대나무, 산채와 농사일만 알던 이곳에 왜이리 유난히도 주변으로부터 속상한 일이 많았던지... 역사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항상 민중이라는 소탈한 건축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작가의 건축방편은 이 시대의 한켠에 비친 거울처럼 차가움과 우수를 지녔고, 건축을 묵언으로 보다는 냉소적 표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표현주의의 배경에는 시대를 관찰하는 마술적인 미학이 있다. 한편 작가의 침울한 냉소 뒤에는 어둠보다는 일상의 소중함과 대중미학의 친근함을 담아내려 하는 진중함(Sincerity)이 있다. 무겁게 느끼는 질은 침울함에는 배신의 세월에 대한 절망처럼 다가오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굴레가 보이나 그 비판은 다시 새로운 그들의 어두움으로 들어가 민중의 세월을 보여 주려 한다. 기왕에 작가의 설계의도에 나타난 강한 전언으로 마당이라는 전통요소에 대해서 작가는 한국미당의 일상을 소중히 과거의 등짐처럼 지고 있어 마당의 이름으로 구현된 사고의 실체를 시작으로 들여다 보기로 하자.

소재원(漣園), 깊은 정취와 관조, 인공의 환경이 자연과 합성한 자연친화의 극치이기는 하나 반상의 신분에서 나타난 절제된 거세미학을 한국의 정서가 공유된 삶의 터로써 일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의 전통정원은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본인 자연숭배사상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실사하거나 극치의 자연현상을 담지한 모의적 상징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미 우리의 삼국시



한빛고등학교

대에도 중국의 신선설에 따른 안압지와 같은 정원을 조원하거나 포석정과 같이 향연을 위한 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정원을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모사적 정원의 형식을 벗어나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연지형과 암석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인공의 미학을 제하기 시작했으며, 건축과 더불어 조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별서정원(別墅庭園)으로 불리는 유배자의 안식처들은 은둔자의 최후의 즐거움을 자연과 벗하는 것으로 두고 최소한의 자연에 손을 가하여 관조하려하고 있다. 비록 소재원이 중국의 정원을 따르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국의 지형을 유지하는 한국의 정원임에 틀림없다.

작가의 의도에 담긴 寫意的(Significative) 공간의 개념이 이러한 전통정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작가가 언급하고 있는 한국의 국지적 여건속에서 이루어진 마당이라는 특성이 사실적 형상의 실체로서 보다는 의미와 비워진 공백의 다양한 용처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과 작가가 의도한 한국적 마당이란 건축의 공간으로서 상념하거나 채를 나누는 분절의 공간으로 상용화하는 일상의 연장으로 보았던 점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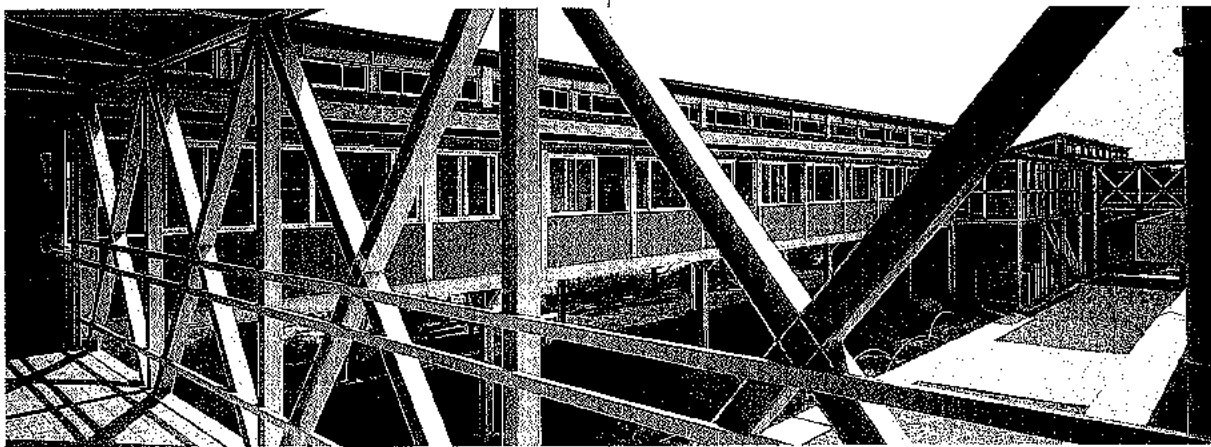
재생과 성장

Rehabilitation and Growing

재생이란 의미가 특별히 좋지 않은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교육형식의 개선

과 특성화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교가 재생이란 의미를 담아 탈신의 의미가 약해지거나 없을까 해서다. 한빛고등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를 개축하고 중축한 변신을 했고 형식도 초등에서 고등으로 바뀌는 대변신을 했다. 기독교 정신과 창의적인 교육,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의식하는 기숙사의 생활 등이 이미 남다르다. 마당의 의미는 무엇으로 찾을 것인지 의문과 미지의 태도 등이 다분하나 직설적인 마당의 공간적 배려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동과 동 사이의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간극과 사이의 설정이며, 여백으로 의미화 되어 있다. 그 의미는 전통의 마당과 사라진 그 의미의 복원이다. 사라진 마당, 상업성과 공동체의 의식이 회박한 그 사유의 비장소적 소유성이 가져가 버린 마당의 고유한 의미를 작가는 이 채와 채 사이의 공간을 지각함에서 그 실상을 복원하고자 고심한다.

이용하는 학생이거나 누구라도 그들이 자연과 건축을 동시 지각한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건축적 공간지각과 그들의 시간이 그 곳에서 즐겁다면, 그들이 그 곳에 있을 때는 건축을 지각하고 그들이 그 곳을 바라본다면, 그 곳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면, 그 곳은 작가의 소망대로 지치지도 무겁지도 무료하지도 않은 소생하는 성장의 장소가 된다. 종교적인 의식성이 강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곳은 사실적 표면보다는 사의적인 실재(Presence)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건축의 공간분할 등은 다양하나 중심체의 구상이 잘 보여지기 어려운 평이한 공간성을 지니므로 나열의 범주와 책정이 구획을 결정하고 열린 교실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빛고등학교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고질적 공동체의 관계 결속이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수평적으로도 또는 역방향으로도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이 학교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고심했는지는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직설적으로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직인 균형과 배분이 주도적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자랄 수 있는 성장점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대체로 학교의 집중력은 학교 본부가 있는 업무공간 쪽으로 지향하는데 이 학교의 경우는 지상 1층을 개방함으로써 보기 드문 파격적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교사동은 새로운 처방의 변신에도 불구하고 이 전의 역사를 교차하는 시선의 겹침으로 유지하며 가볍게 구성된 현재는 기존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화와 차별, 지나간 시간의 건축이 다시 덧씌워지는 계획의 치밀한 의도가 여러 측면에서 단서로 나타난다.

채와 채 간의 간격에 수립되는 마당으로 설정된 공동체적 장소, 구축성을 달리한 형식의 구분에 의한 표질의 차연(difference), 시각적 겹침에 의한 시차의 극복과 동시성, 동질성 획득 등이 주요하게 보여지는 요소이다. 축조방식면에서는 작가의 건축적 미래관과 기존의 역사성을 분해한 가볍지 않은 구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대건축의 매끄러운(Sleek)을 축소처럼 웅기시킨 하이테크의 건축기술은 생물처럼 이들의 표질감을 더욱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꿈틀대게 한다. 장 누벨(Jean Nouvel)의 아랍문화원의 조라개에서 더욱 가볍게 겹쳐 보이고 시선을 다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수법으로의

전개는 마치 과거를 정지되지 않은 전동차에 싣고 어디든 지 왕래하며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덧댄듯 겹쳐져 시간을 감싼 타임머신(Time Machine)은 현재와 과거를 자유로 왕래하며 어제의 공동체와 오늘의 공동체를 결합하고 그들의 미래를 구축해 간다.

공동체의 실현

Rising of Community

이 학교의 남다른 실체는 공동체 구성에서 그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이념이야 어느 학교는 없겠는가. 하지만 이 곳은 고등학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집합의 개념, 즉 공동체적 집합현상이 강하게 부각된다.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농촌에 정주한 한 단위의 마치 조류서식지처럼 느껴지는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한 때 강하게 나타났다. 연수시설이나 주거 등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이 등장했었고, 고등학교로 단계를 넘어서 구축된 예는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화의 척도는 미분화되는 과정, 즉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진되어진다고 본다.

이 학교의 가치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현실의 구축성의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낸 문화적 성장을 보여준 점이다. 작가의 현실부정으로부터 출발한 농밀한 현실의 애착이 이루어 낸 하나의 시대적 증표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건축, 이 시대의 저변(Low Tide)을 이끌 예의 하나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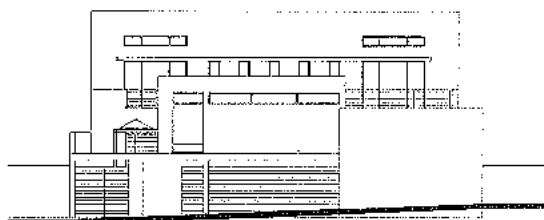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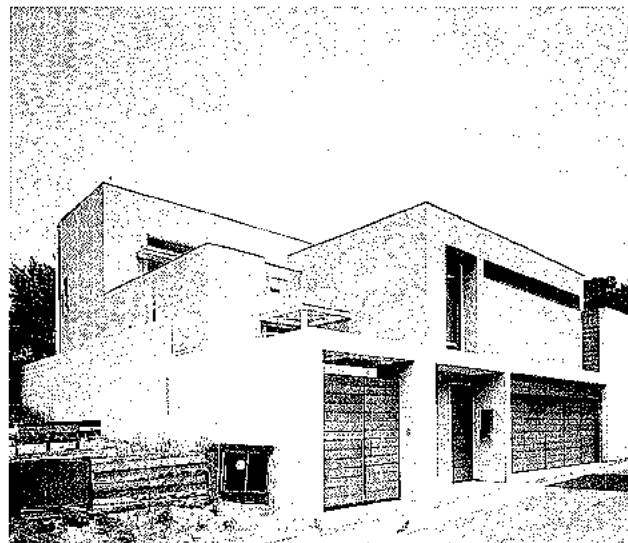
필당(匹堂)

Pil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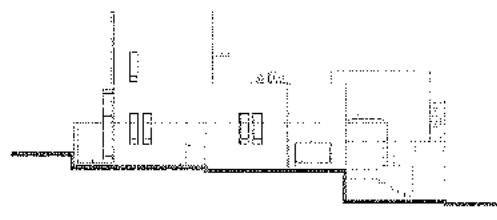
정현화 / (주)원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Hyun-Hwa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330.7m ²
건축면적	160.31m ²
연면적	299.26m ² (주차장40m ² 포함)
건폐율	48.49% 용적률 64.86%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부마감	외벽 - 실리콘 플라스터 창호 - 불소수지도장 알루미늄 + ① 16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지붕 - 철근콘크리트 평지붕(일부 풍지갈칼기)
설계담당	몰탈, 벽지, 락카스프레이
사진	박종성, 임영수, 유재권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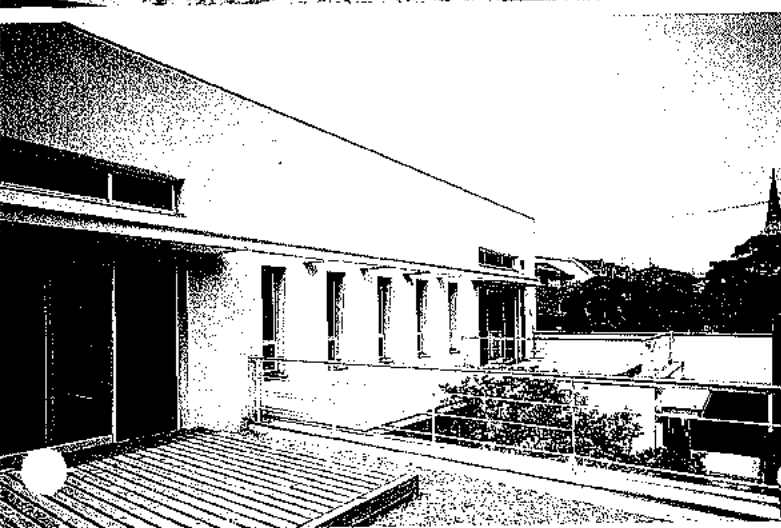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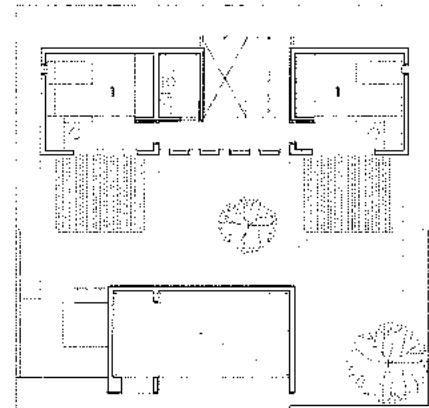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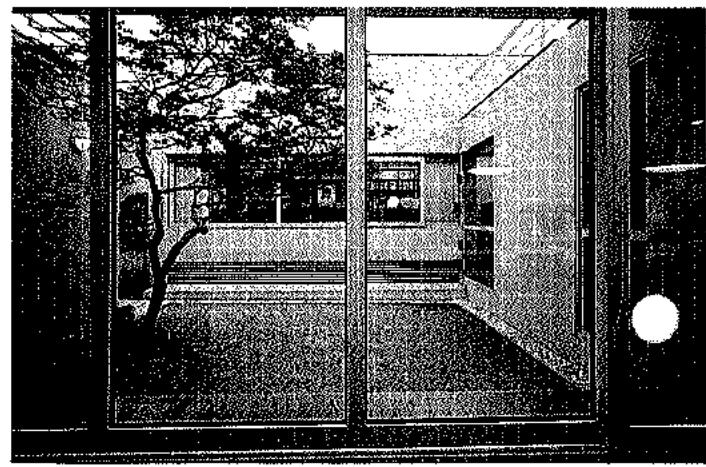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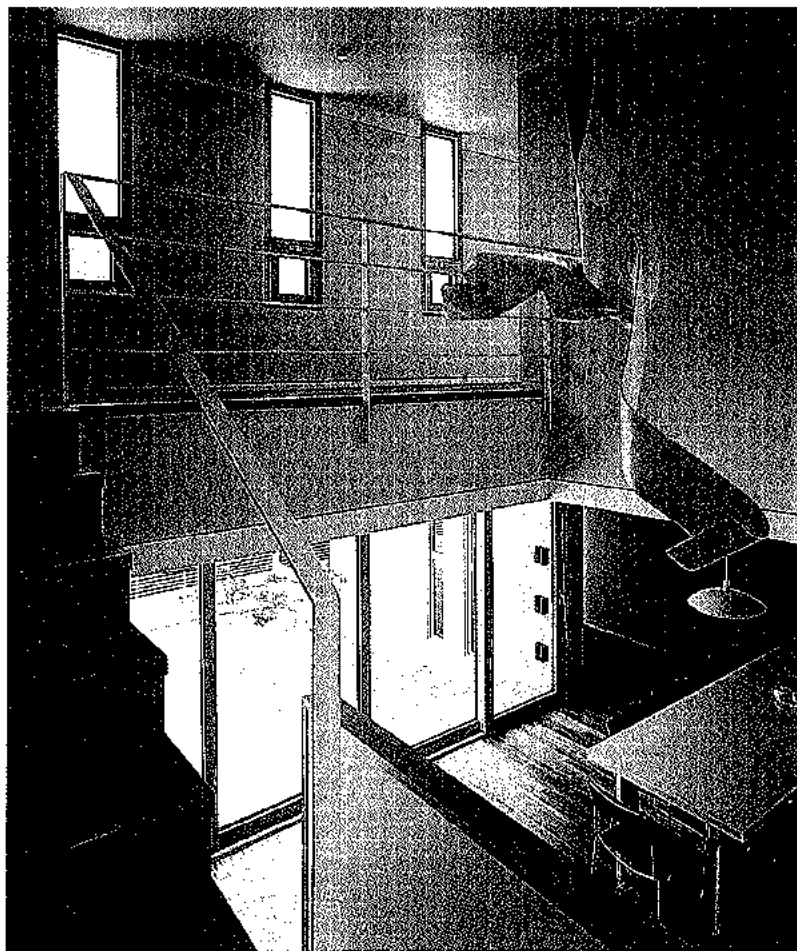
〈필당〉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주거전용지역의 한 자락에 자리하여 〈우리 가족의 그릇〉으로 완성되었다. 이 집의 캔버스는 강남의 도심과는 한 커의 도시적 물림을 하고 남쪽으로 테헤란로의 고층빌딩들이 실루엣을 이루는 원경을 갖고있는 양호한 주택지이다.

주거라는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이다. 가족 그 자체보다도 〈가족이라는 관계〉를 두고 고민하였다. 가장 가깝게 일목으로 부딪치는 관계의 적합한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설정할까. 가족의 독립적 영역들을 가능한한 멀리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긴 연결을 두고, 시각, 음향, 감각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로를 두었다. 긴 통로가 각 절점에서 장소를 생성하고, 그 중심에 가족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두었다. 이 집의 중심적인 상황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고리로서 시작된다. 식탁은 가족생활의 중심영역이고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중심적인 존재이며, 식탁이 있는 방은 대청과 같이 가족들의 무목적 공간으로 되어 다양한 가족적 액티비티를 만들어 낸다. 이 집의 중심에는 식탁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가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실이라는 방은 없다. 이런 것들이 가족관계를 다시 규정해보고자 한 이 집에서의 생각이었다.

아파트로 보편화된 멀티하우징의 시대에 우리에게서 사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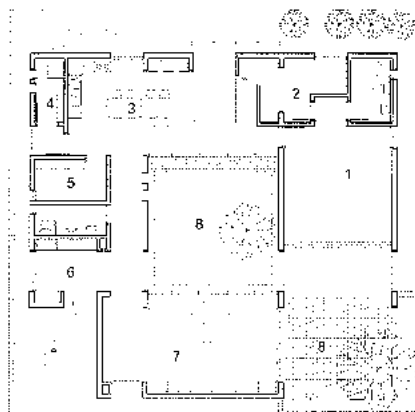
고 있는 것은 주택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일 것이다. 주거에서의 기억이라 함은 여유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넉넉함의 기억들 - 장소에 대한 기억, 크기에 대한 기억, 높이에 대한 기억, 격에 대한 기억 - 일 것이며, 고색 창연한 형태적인 기억이라기보다도 우리들이 태어나고 자리왔던 가까운 과거의 우리 주거에 내재하고 있었던 정신적 흔적 일 것이다. 좁은 도심지 주택이지만 이러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익숙해 있었던 장소성과 그 장소들에서 일어났던 가족적 상황, 사라져버린 주거의 스케일과, 현관, 변소, 사랑방 등에 있었던 격에 관한 기억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 격이라 함은 약간의 편안한 분위기, 크기, 높이, 색깔 등에서 변질되어 가버린 디테일적 기억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철저하게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집으로 완성하려 하였다. 일정한 비례를 갖는 메스의 결합, 한치도 아껴 쓰는 계획, 있을 곳에 정확하게 있는 기능, 절제된 디테일, 정확한 물림과 막힘, 단순화된 재료와 선과 색깔들로 주택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모더니즘적 사고에 충실한 주택이 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모습으로 다가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 우리네 것으로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백의 장소, 이웃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 흠을 밝히는 기억, 한국적 가족생활의 모습 등을 재발견하려 하였다. 그러한 발견이 바로 우리네 포스트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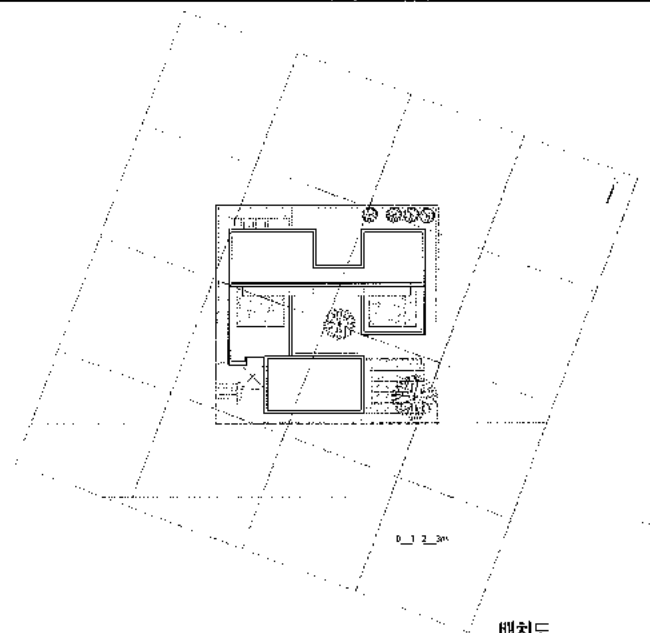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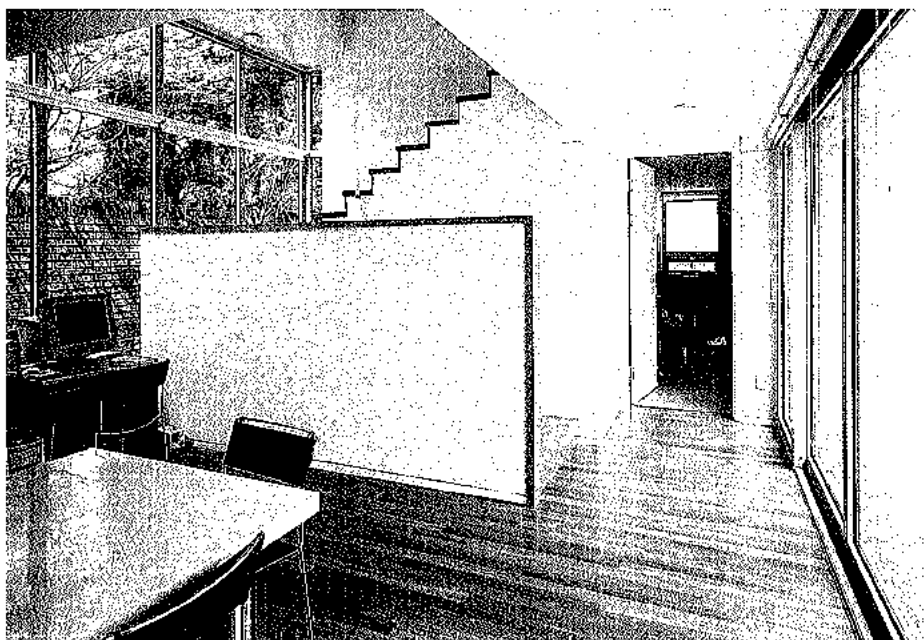
1. 방
2. 욕방
3. 식당
4. 다용도실
5. 창고
6. 현관
7. 사랑방
8. 마당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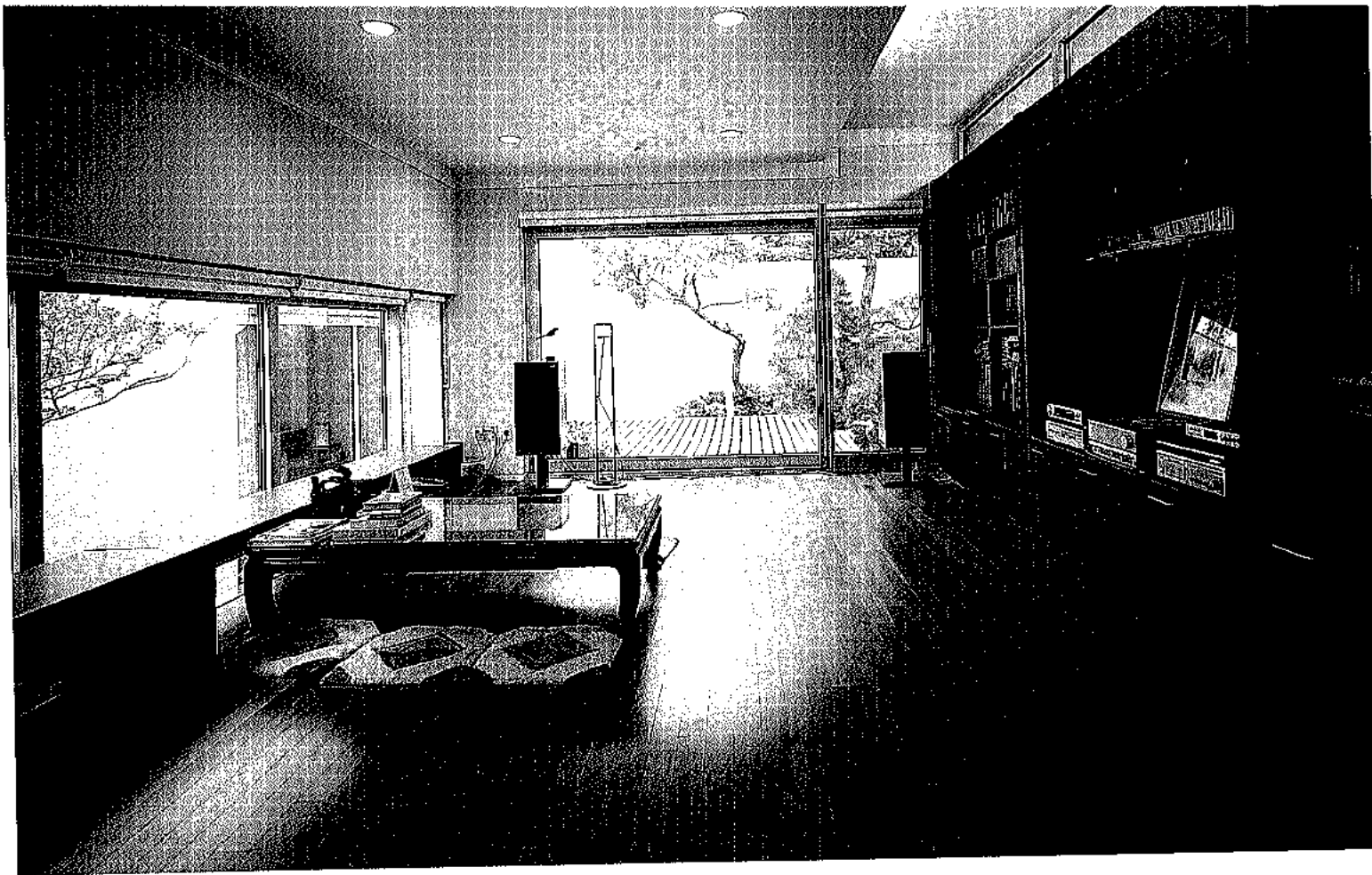
0 2m

1층 평면도



0 2m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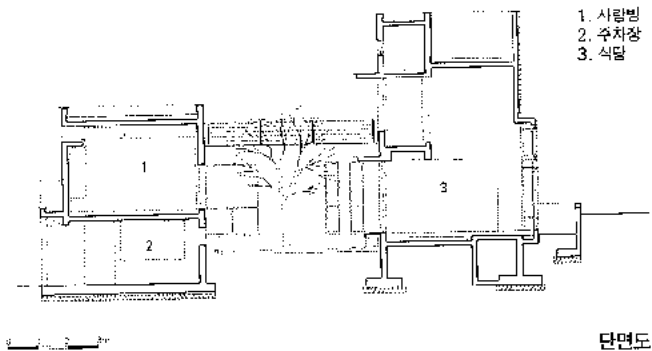
더니즘의 본질일 것이다.

도심에서 지면에서의 도시적 열림은 기대하기 어렵다. 담장을 건축적으로 집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적당한 외피로 집의 영역을 확정짓고, 내부에다 하나의 투명한 내피의 옥외공간을 두었다. 거기에 빛, 바람, 하늘 등 자연에 가까운 요소들을 확보하여, 외피에 둘러싸인 폐쇄성을 내부에서 개방성으로 보상하였다. 이 집의 외부에서의 파사드적 의미는 둘러싸인다는 의미밖에 없다. 내부에 들어서면 독특한 내피에 둘러싸인 장소가 있다. 도시적 열림은 2층의 테라스에서 확보하여, 고층빌딩이 만들어내는 도시적 파사드가 한 켠의 오픈 스페이스를 거쳐 원경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그것이 도시주택에서의 열림의 방법일 것이다.

마당에 의한 하늘의 뿔림을 가운데 두고 각 실들의 공간이 둘러싸고 있다. 이 수직적 열림에다 또 하나의 수평적 열림을 갖게 하여, 안방과 사랑방이 공유하는 또 다른 마당으로 공간이 흘러가게 하였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마당은 높이를 달리하여 적당하게 수평적으로 열리게 된다. 주차장에 걸터앉은 사랑방은 가운데 마당에서는 자연스럽게 높이가 생겨 누마루같은 느낌이 되고, 고저차가 생긴 두 개의 마당은 서로 독립되면서도 서로 숨구멍을 갖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 틈새사이로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파고 든다.

두개의 마당과 남쪽에 배치된 사랑방에 의해 실내외의 공간은 중첩된 공간적 레이어를 갖고 서로 간섭하며 내외부 공간의 관입을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이러한 중층적인 관입과 시간적 변화에 의해 공간적으로 주고 받음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어 간다.

정방형의 마당은 아무 장식도 없다. 마당은 단지 우리에게



- 1. 사랑방
- 2. 주차장
- 3. 식당

단면도

익숙했던 흙의 색깔의 여백으로 두고 싶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나무, 집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나무, 가득 차면서도 비어진 듯한 나무, 꽃이 빨강고 잎이 작은 낙엽수, 배롱나무였다. 여백의 마당에서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사시사철 변해가며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내부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직각의 선밖에 없는 백색공간으로, 건축가 유원재씨의 설치미술이 있다. 온도차에 의해 천천히 회전하는 모빌은 백색공간에 부드럽게 변화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두 가지의 오브제(배롱나무와 모빌)에 의하여 절제된 이 집은 표정을 갖게 되고, 리듬이 생겨나서 이 집 고유의 생명이 느껴지게 된다.

이제 우리가족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모아 가는 (가족의 그릇)이 생긴 것이다. (글: 정현화)

봉조헌(鳳朝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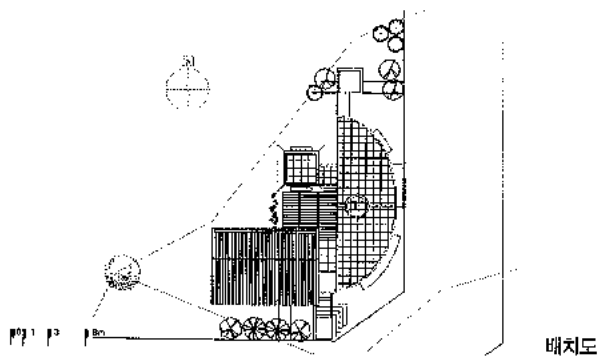
Bong-Jo-Heon

송광섭 / 한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wang-Seop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대지면적	309.60m ²
건축면적	127.38m ²
연면적	189.41m ²
건폐율	41.14%
용적률	61.1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록조
주요마감	외벽재료 - 노출콘크리트, 스킨볼록 치장생기, 해강시스템 창호
지붕	지붕 - 아스팔트성글
설비	심야전기보일러
설계기간	1999. 7. ~ 1999. 9.
공사기간	1999. 9. ~ 2000. 1.
인테리어	한 건축
조경설계	한 건축
설계담당	이정용
시공자	황수연
건축주	이항범
사진	박영채



풍경 1 - 한적한 시골마을 한켠의 모습은 늘상 있는 그대로, 안온하고 넉넉함이 배어져있는 여유로움에 있다. 나즈막한 작은 언덕들과 나무들, 자연발생적 허술함과 정겨움이 배어 있는 집과 텃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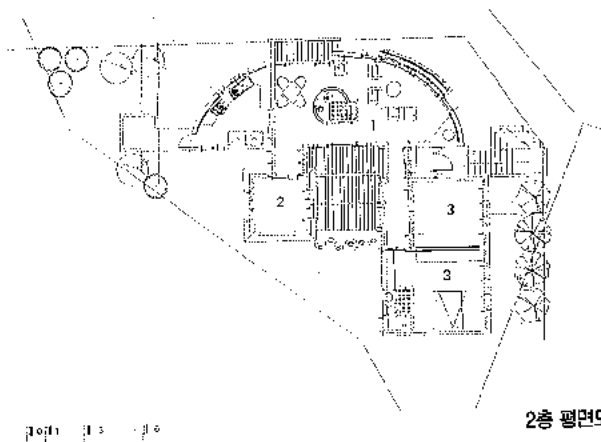
풍경 2 - 장독대옆 살구나무, 고추밭너머 가득 심어있는 무와 배추, 나무밑의 원두막과 노작가리, 그리고 여름날의 늘어진 오후, 바람과 하늘에 걸린 구름과 달, 그 마을을 지켜왔을 커다란 물푸레 당산나무와 마을사람들.

땅읽기 - 3m정도의 표고차 - 도로계획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게된 표고차와 찢어진 땅모서리, 그러한 곳에 35평의 자그마한 농가집을 짓는 일이다. 그러나, 그 장소는 마을 한켠을 채우는 일이며, 정자나무 밑의 풍광을 연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마을의 끝자락이면서도 시작도 될 수 있는 집의 시작은 정(亭)이나 루(樓)의 모습으로 비운듯이 채우는 일이었다.

작업전제 - 2개월 남짓의 짧은 설계기간, 4개월의 집짓기는 여름날부터 시작된 부지런한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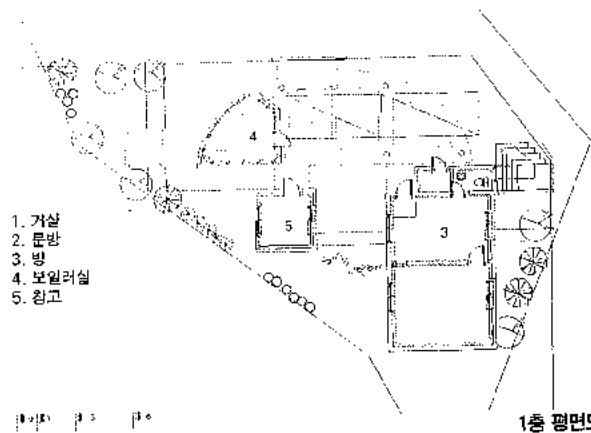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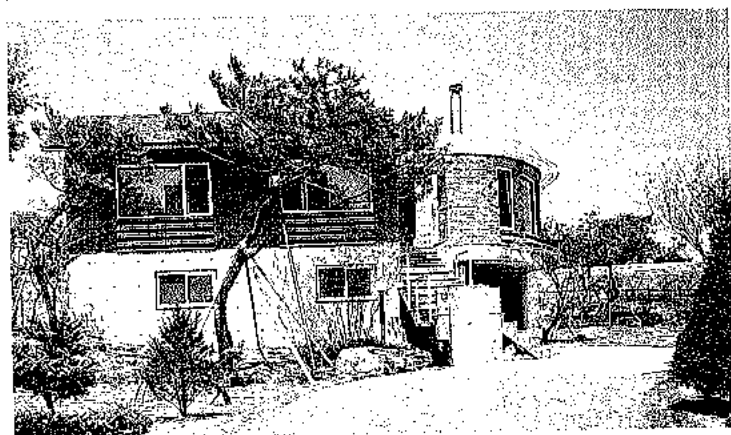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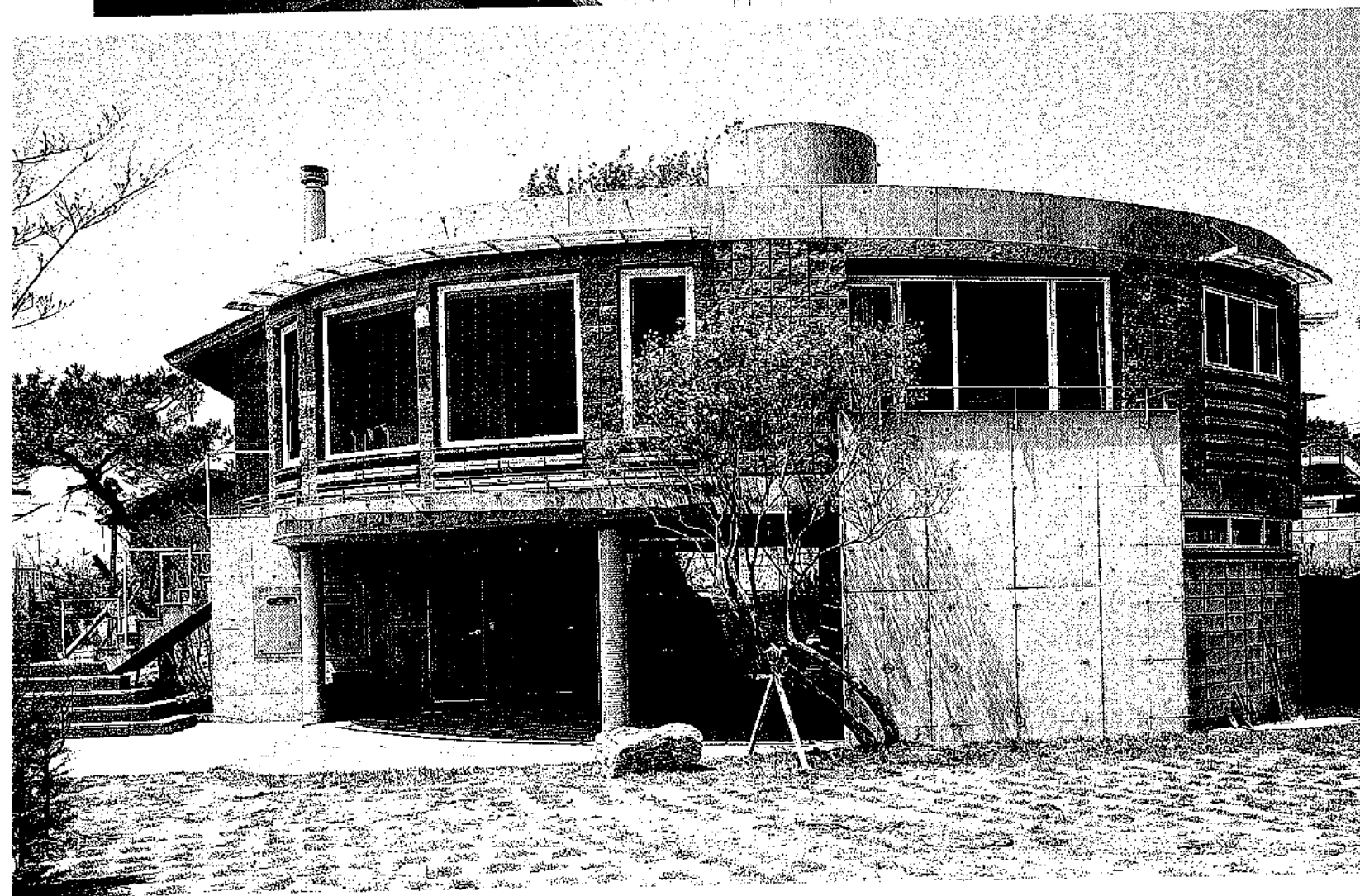
- 1) 시골집의 행태를 닮으려하는 일, 박공지붕, 낮은집.
- 2) 시골풍경에 친화할 수 있는 튀지않은 재료와 색의 선택.
- 3) 시골풍경의 새로운 반복과 친근감.
- 4) 사계절의 풍경과 바람,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빗소리.
- 5) 정자나무를 집의 중심인 내정으로 끌어들임과 근경과 원경의 처경수법도입
- 6) 내정중심으로 한 채의 분리 - 시골집과 같이 자연스러운 분화와 결합을 갖는다.
- 7) 내부공간에서 보이경이(步移景異)의 경관 이동변화를 갖게한다.
- 8) 회색콘크리트 노출벽, 스킨볼록 불록의 거친면과 재료의 속성, 물성의 표현은 자연을 닮은 재료의 선택이다.

이러한 전제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동네마을과 닮으려는 의도며, 집은 마을에 속해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없는 동화된 몸짓과 색깔이 요구되었다. 또 그것은 부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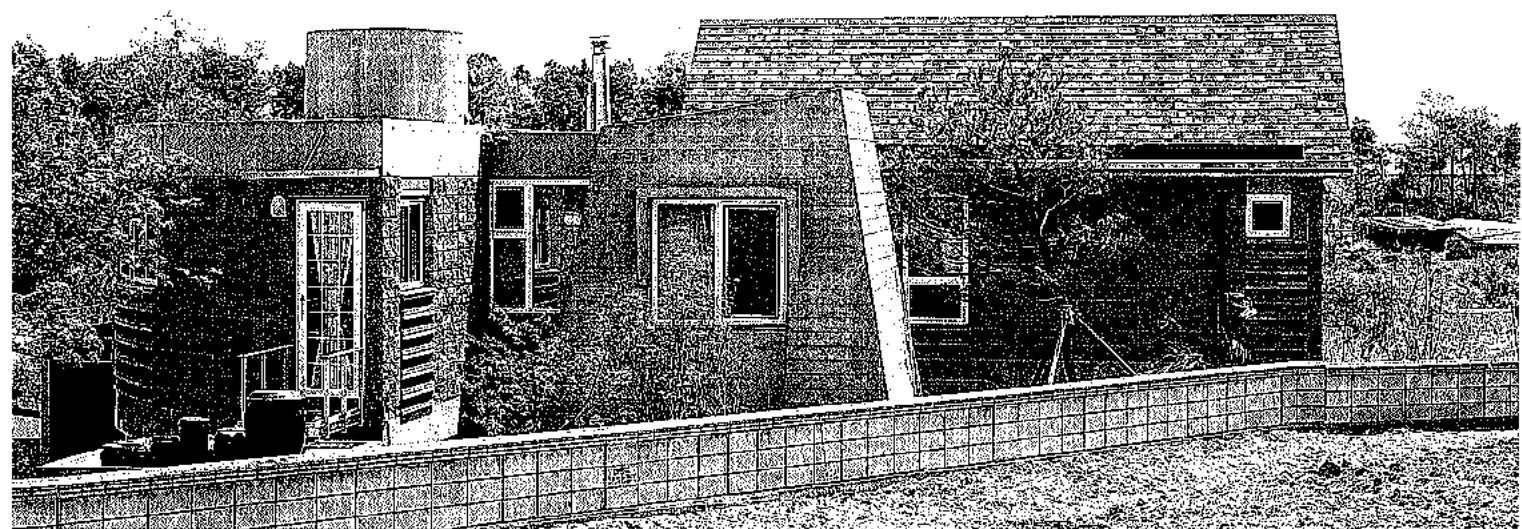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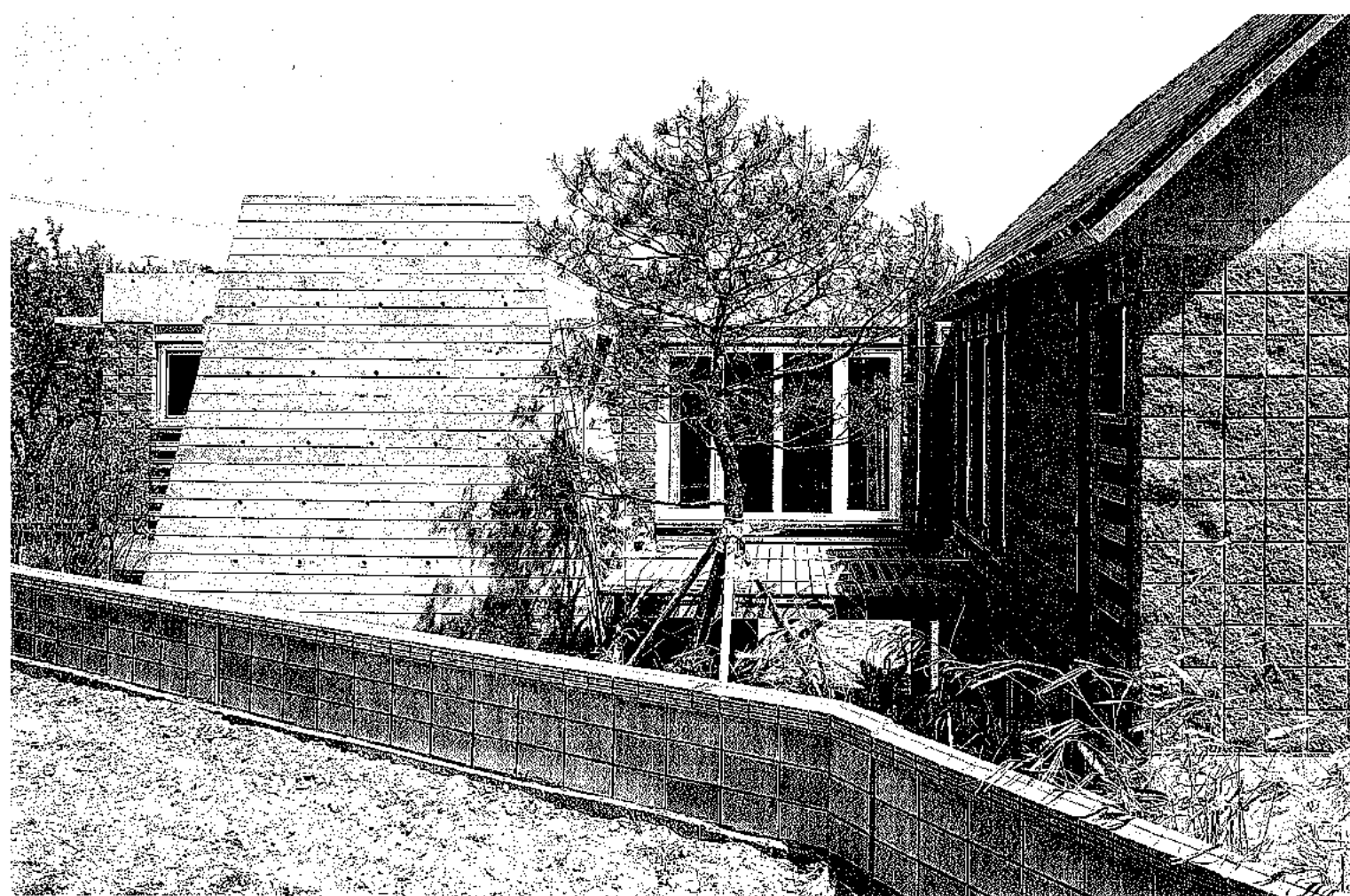
1001 13 10



1. 거실
2. 문방
3. 방
4. 보일러실
5. 창고

1층 평면도

1001 13 10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된 새로운 모습의 시작이기도 하다.

집짓기

- 1) 추석을 낀 공정과 장마후의 가끔씩 내린 비와의 공기싸움.
- 2) 무더운 날의 나른함과 비능률적 공사의 까다로움.
- 3) 채의 분리와 재료의 다름에 따른 반복되는 공정.
- 4) 주차장 천정의 곡면지고, 뒤틀린 노출콘크리트, 경사진 송판노출 콘크리트 타설.
- 5) 스포릿블럭의 코너결합의 이질감, 기성재료의 한계성.
- 6) 덜마른 목재의 뒤틀림, 플라스틱 창호재와 문틀결합에서 벌어지는 결로문제
- 7) 타원형 치장쌍기와 스포릿블럭의 흡수율에 대한 내·외부의 방수 벽 치기와 방수액 도포.
- 8) 반월형 창호의 비비람을 막는 스틸채양과 화분대의 현장제작의 어려움.
- 9) 인근주변의 배수로문제와 오수통기관의 설계변경과 위치선정
- 10) 장마비의 대비와 복서풍에 대한 고려 등 숨가쁘게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었다. 이렇듯 모든 공정이 시공의 까다로움을 수반하였으나, 어느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작업이었다.

공사기간 내내 현장소장의 피곤한 모습과 부르튼 입술, 뼈뺀 공사비와 공기의 운영,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창호공정의 차질, 내 장일에 쫓기는 일, 작은집이지만 결코 쉽지않게 몇 개월동안 긴박하게 뛰어다니게 했다. 그러나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집짓는 일이 늘 그렇듯이 모든 만족은 있을 수 없으며, 또 모두 충족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비교적 설계의도와 시공의 완성도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생각되며, 설계와 시공·인테리어·가구·조명·조경까지 토털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건축주도 가끔씩 힘들어 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가의 의도와 생각을 전폭적으로 이해해주고, 따라와준 건축주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착공때 꿈 상서로운 봉명조양(鳳鳴朝陽)의 꿈을 영원히 간직하고, 또 이루시길 바라며, 이제 이 집의 공간을 채워나가는 일은 건축주의 남겨진 여백이며 몫인 것이다. (그래서 이집의 이름은 꿈의 얘기이다)

그리고 생활이 포개져 갈때마다, 비운 듯이 채워지며, 채운 듯이 비워갈 때, 이 집은 늘 참다운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송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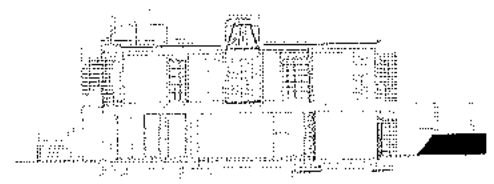
101 13 16



배면도



단면도 1



단면도 2

남원의료원 Namwon Hospital

정종영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 Jong-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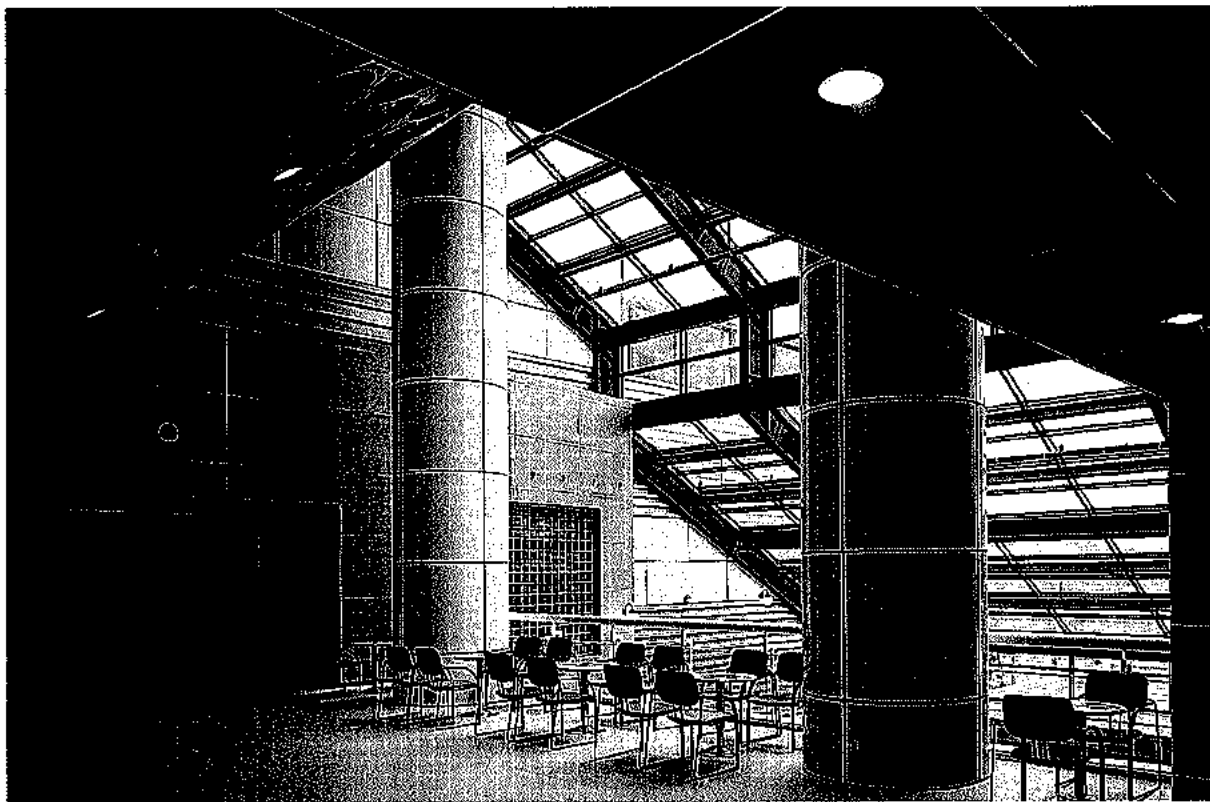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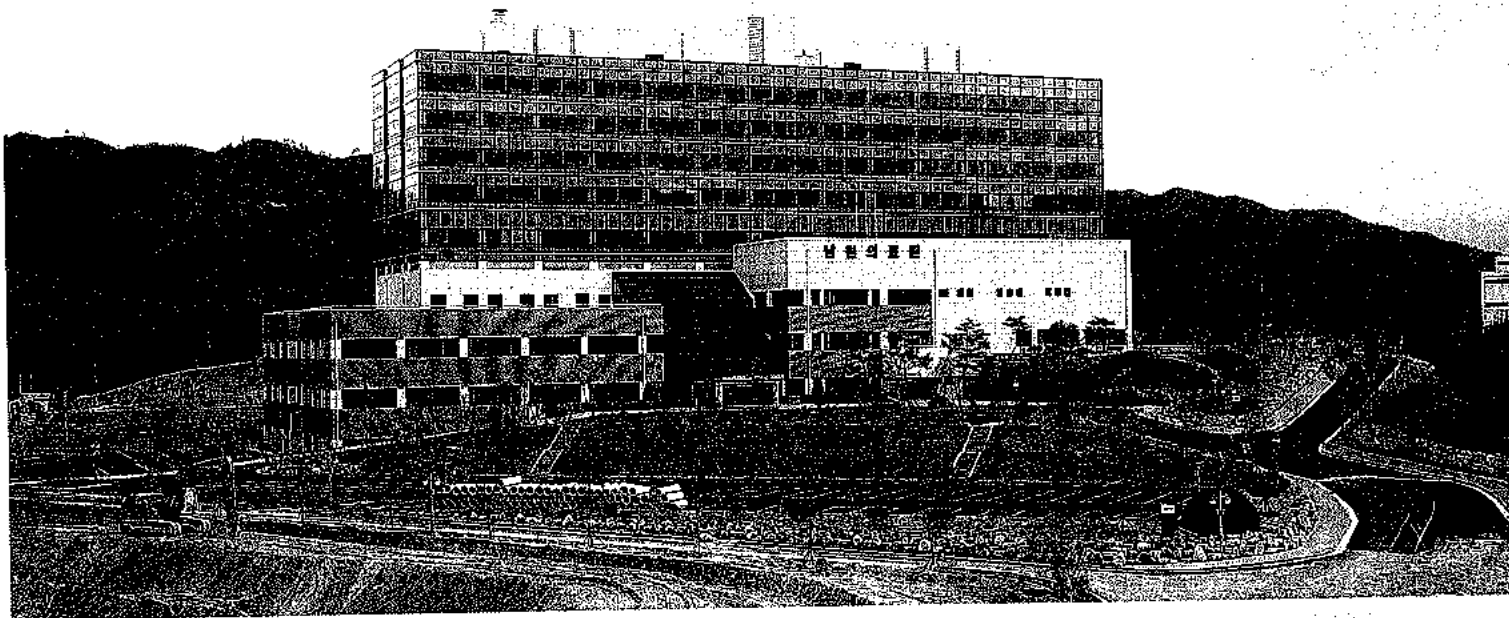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산63-1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설계시설지역, 의료시설지구
시설용도	종합의료시설(종합병상/422병상)
대지면적	104,975m ²
건축면적	7,861.64m ²
연면적	40,030.01m ²
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건폐율	7.4%
용적률	38.13%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 - 커튼월마감, THK3, ALSHEET
내부마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설계담당	강희성, 금창준

지리산 남원골의 새천년을 여는 남원의료원

남원의료원 신축이전지로 결정된 남원시 고죽동은 지리산의 빼어난 산수를 배경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원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주변경관과 근무환경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근에 남원시 공설운동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남원시와 인근지역의 지명도를 갖춘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설계초기 부지내 연못의 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기능의 요양병동과 정신병동의 치료환경을 고려했고, 부지 중심에 의료원 본관을 배치하여 진료활동의 중심이 되게 했다. 또한 의료진을 위한 숙소동을 부지내에 계획하여 남원의료원 진료진의 안정된 근무환경을 고려하고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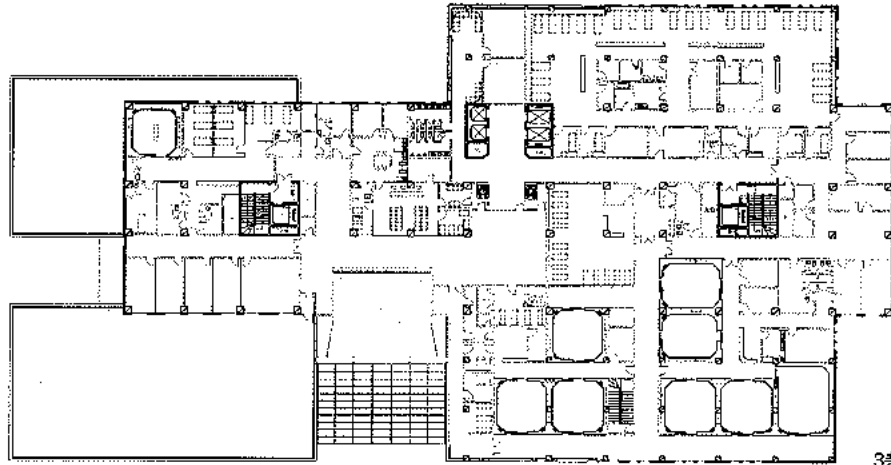


동선계획은 부지내 진입을 위한 2개의 진입구(주진입구, 부진입구)와 병원주변의 순환도로, 그리고 순환도로를 따라 연계된 응급부 동선, 서비스 동선의 연계로 구성되었고, 병원기능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세밀한 동선계획은 남원의료원의 두드러진 계획의 주안점이다. 동선의 흐름과 연계된 평면구성은 Podium의 외래진료, 중앙진료부와 고층부인 병동부로 구분하였고, 지형차를 이용하여 병원진입 level을 3단계로 구분하여 병원기능의 평, 단면적인 해결을 고려하고 자연 지형 및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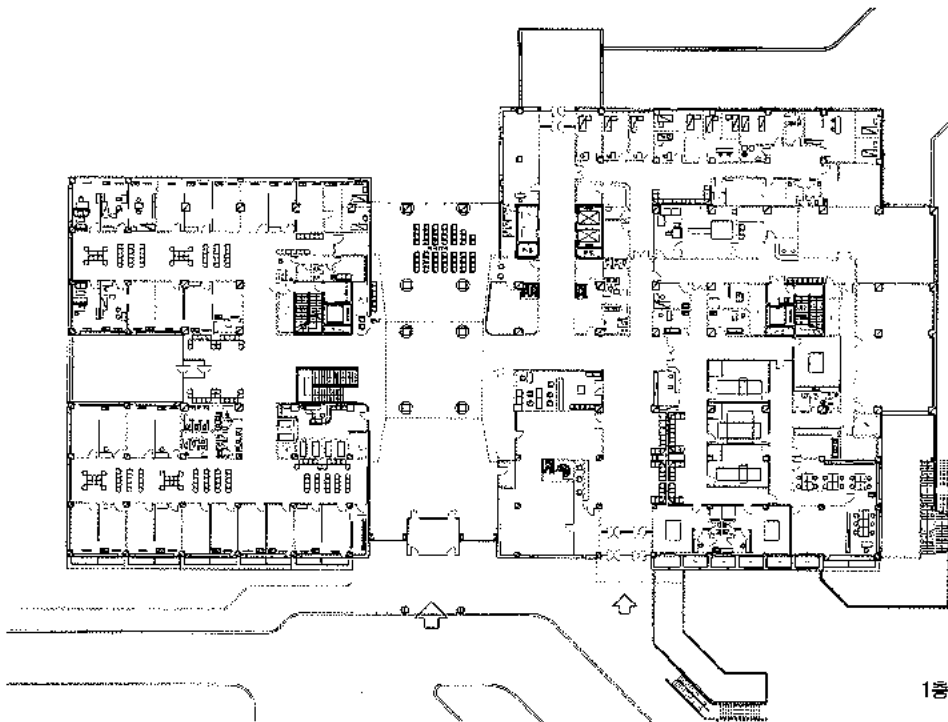
또한 현대식 병원 건물로서의 이미지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선택한 고층부의 그린색 유리 커튼월과 주출입구의 천장은 하늘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건물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병원내부에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울리는 또하나의 인공환경을 만들어내고 있고, 건물 4면의 창박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지리산은 한 폭의 산수화같은 조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치유효과를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한다.

저층부 Podium내부로 빛의 유입을 통한 Open된 공간 계획방식은 병원내 환자들의 "길찾기"를 고려한 것으로 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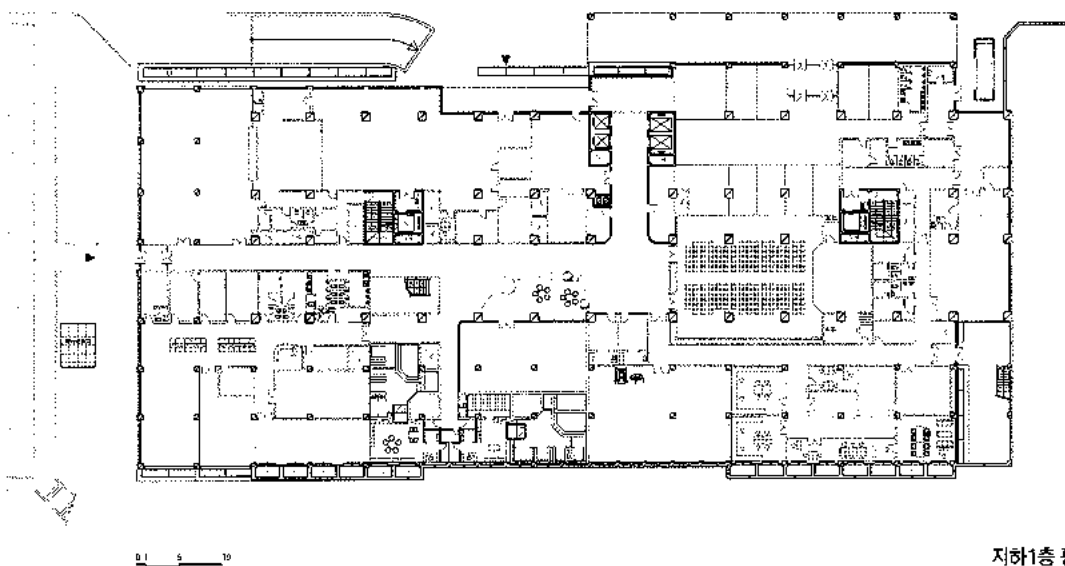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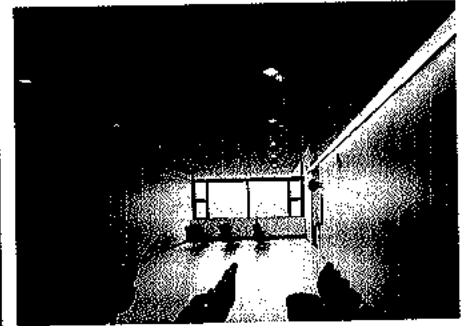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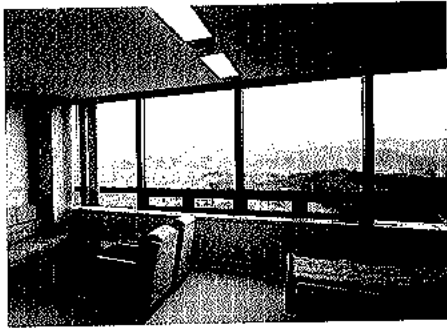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0 5 10



능적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1층 진입부분의 Lobby는 3개층의 Open된 공간으로 접수·수납 및 각 진료부로의 진입을 위한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 3층 수술실 보호자 대기실의 2개 층 Open공간은 일반적으로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어둡고 답답한 느낌으로부터 탈피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통해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축적 장치로 의도되었고 직

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세심하게 고려한 부분이다.

서남지역 최대의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 인간존중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빛고을 춘향골의 새천년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정다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술재민'으로 비롯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대학교 환경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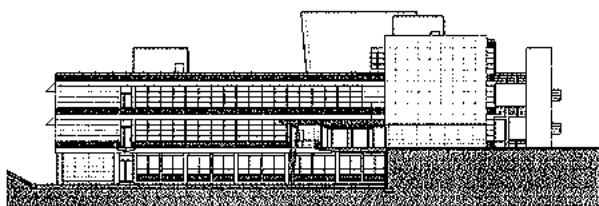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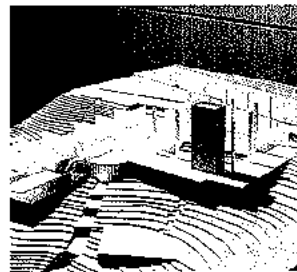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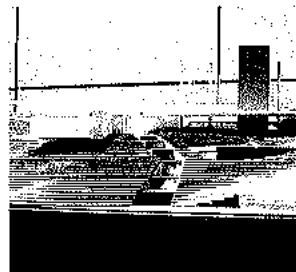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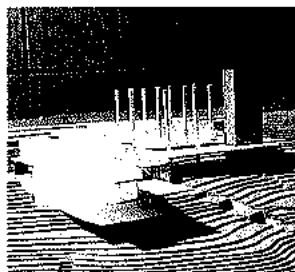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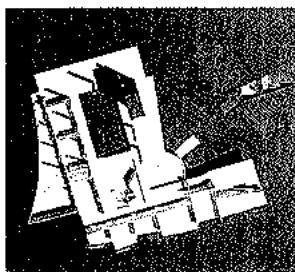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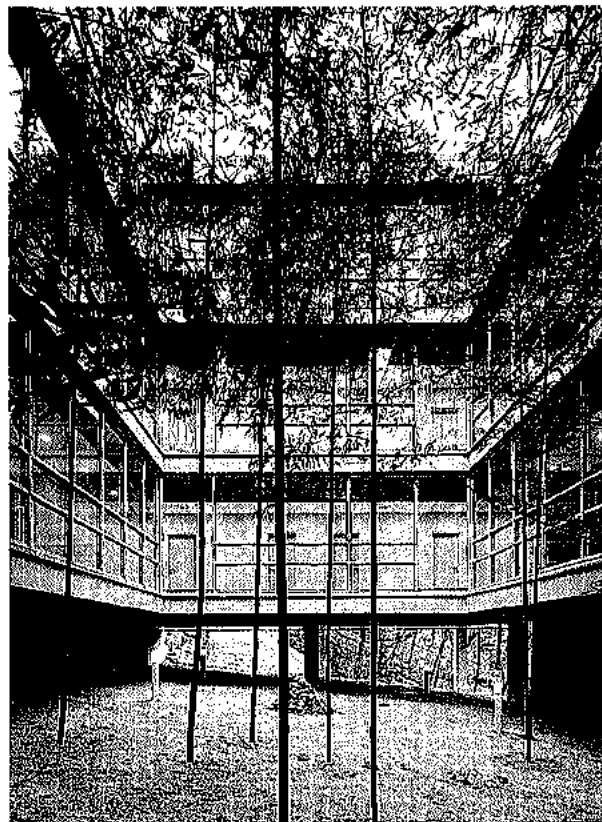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승희 · 강원필 / 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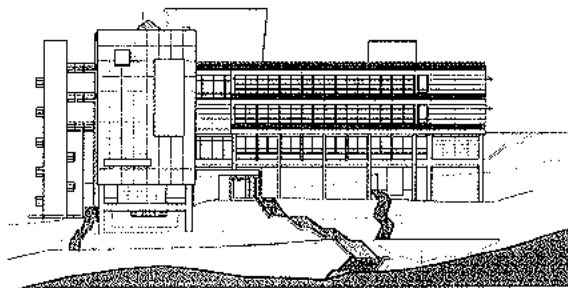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Seung-Hoy & Kang Won-Phil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내
건축면적	1,752m ²
연면적	5,585m ²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콘크리트제물치장, 화북석, 외단열공법마감 등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콘크리트제물치장, 마천석, 흙음패널 등
설계담당	이상훈, 이규상, 최재봉, 박영욱, 김명선
모형제작	조형만, 양진석
모형사진	최덕신
시공	현대산업개발
기계설비	기한엔지니어링
전기설비	신우전기
설계기간	1995.8 - 1995.12
공사기간	1996.3 - 1999.12



동측입면도



서측입면도

몇가지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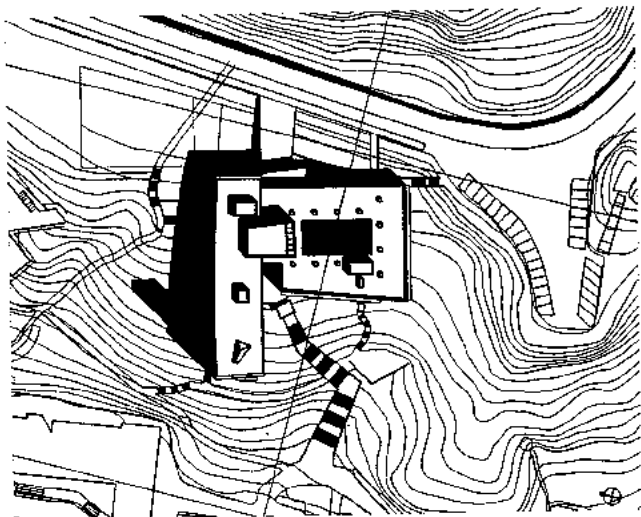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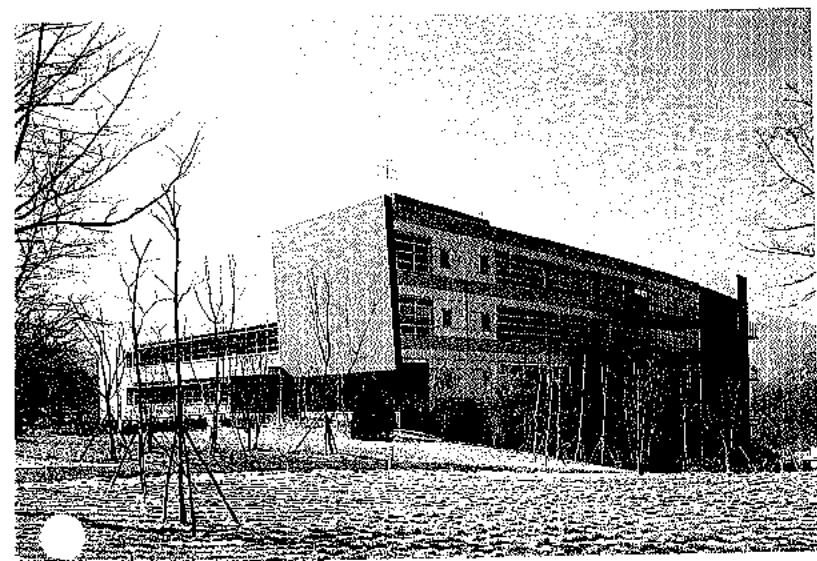
환경대학원은 서울대학교의 특수대학원 중 하나로 도시설계, 도시계획, 도시정책, 조경 등 환경설계 및 계획에 관련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환경 설계와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원의 건축물 자체가 학생들에게 텍스트로서 기능하기를 바랐다. 그것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는데, 하나는 '환경연구관'답게 주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포즈를 건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건축물 자체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공간과 물질에 대한 경험을 주는 장치로 고안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과 별도로 주목한 부분은 순환도로와 캠퍼스코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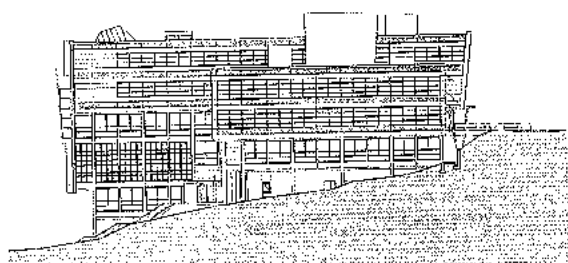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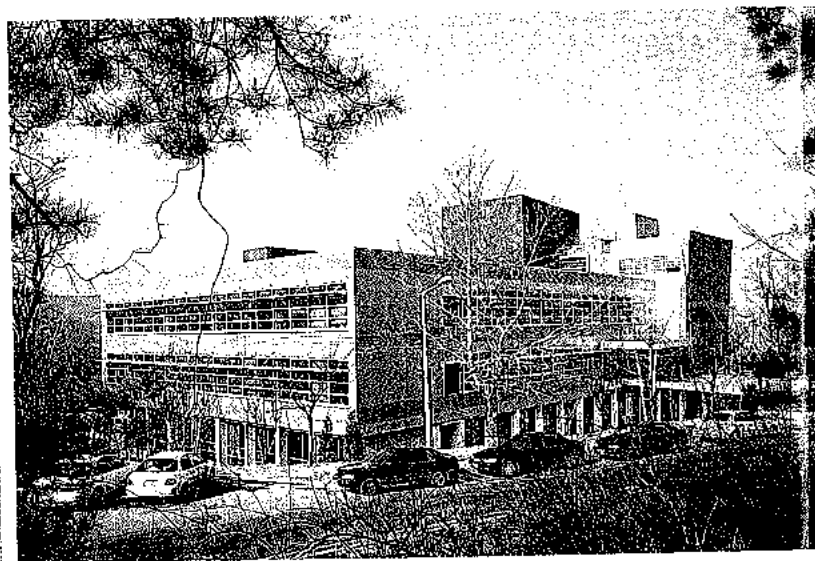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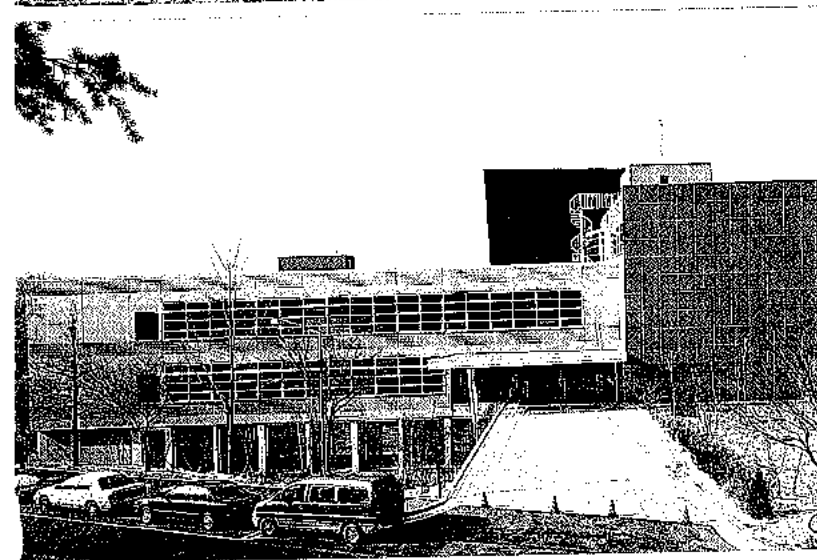
이어주는 연속선상에 환경대학원을 위치시키면서, 서울대학이라는 작은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매개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과, 환경대학원 뒤편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리지 않도록 순환도로 레벨에서 최대한 그 몸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학교측이 희망한 대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잡목이 우거진 경사면 따라 건물을 내려오게 하는 결단을 요구했다.

설계개념의 주요 목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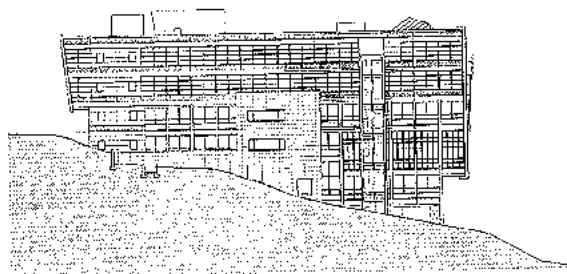
환경의 연구목표란 결국 균형잡힌 세계의 구축에 있다고 하겠는데, 환경연구관 설계도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 관계들의 조화를



배치도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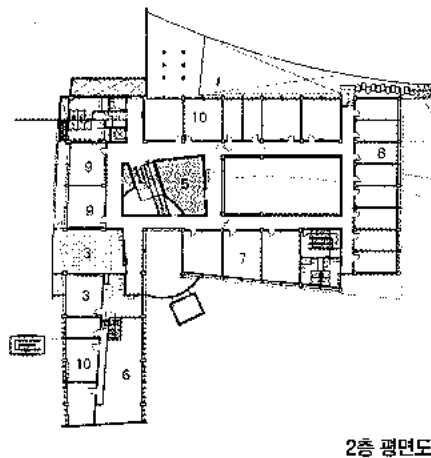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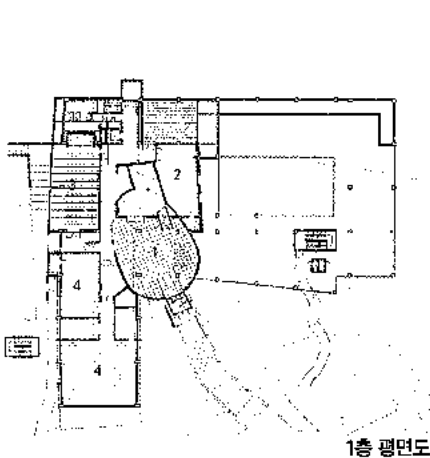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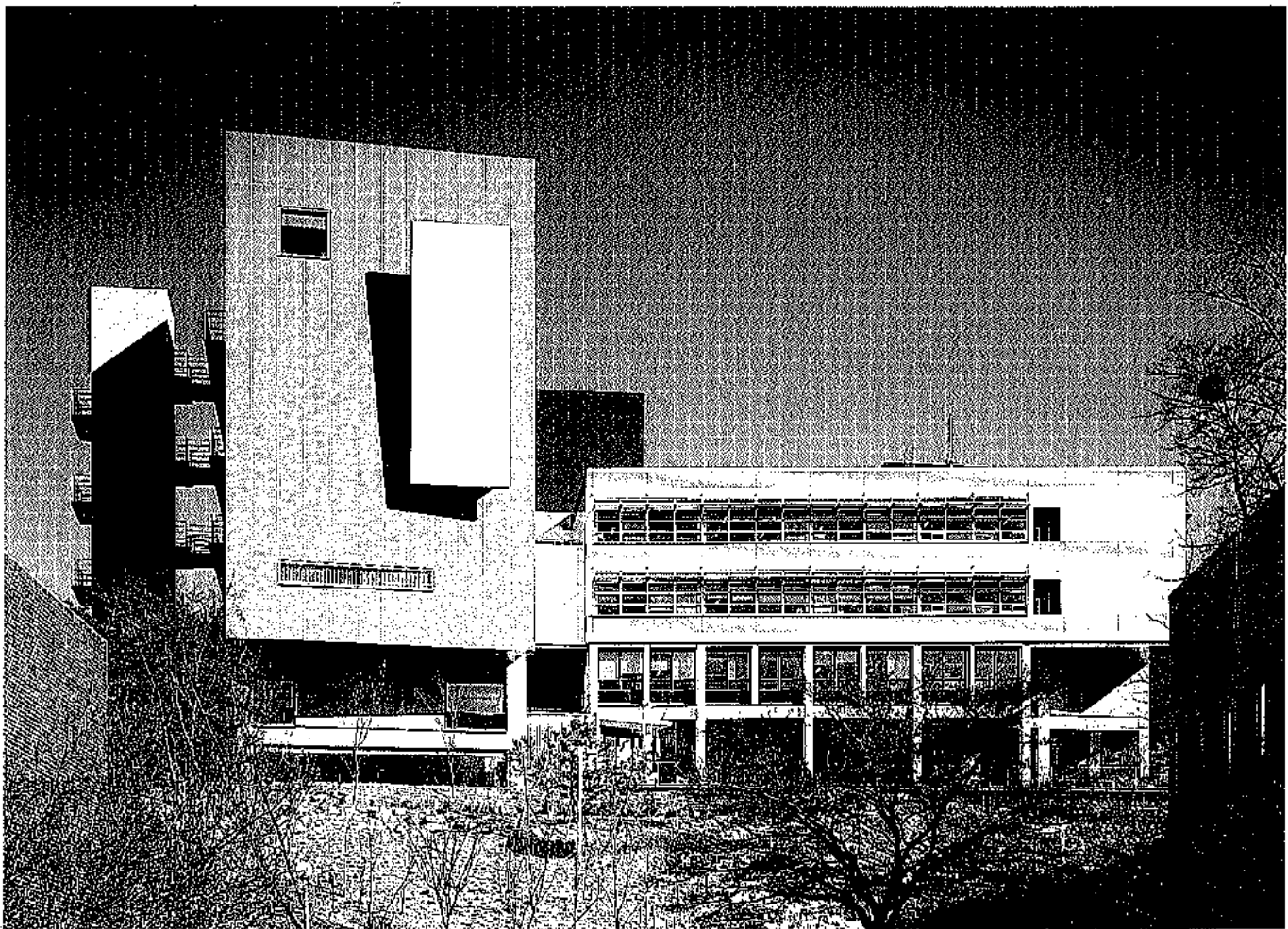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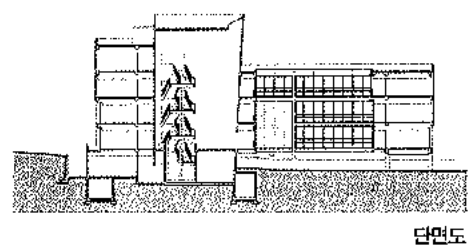
요구했다. 관악의 자연과 도시적인 캠퍼스, 순환도로에서의 진입과 캠퍼스 코어쪽에서의 진입, 순환도로, 예술관, 인문 사회대의 상이한 urban grid와 스케일 등등 대지주변의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프로그램상에 제시된 연구실 등의 반복적인 단위들과 도서관이나 스튜디오 같이 큰공간의 관계들을 풀어가면서 계획안의 윤곽을 만들어 내었다. 종축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경사지에 필로티로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순환도로와 캠퍼스의 그리드, 경사방향, 그리고 순환도로와 캠퍼스 코어와의 축선 등, 여러 관계에 대응하는 regulating line을 설정하고 그 선들을 새 건물의 열개 속에 담고자 했다. 그것은 배타적인 형태의 논리를 극복하고 주변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의도

와 잘 부합되었다.

도시환경관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틀은 격자 구조이다. 그것은 편리하고 안정된 건물의 바탕이 된다. 여기에 쓰여진 그리드는 실은 섬세하게 변형된 그리드이다. 요구된 실의 두 가지 모듈을 해결하기 위해 수직선과 수평선의 간격이 다르며 완만한 곡선 하나를 도입하여 경직되기 쉬운 그리드 형태에 에너지를 부여했다. 그리드를 배경으로 자유로운 형태들을 SUPER-IMPOSE했는데, 그 형태들은 보다 느슨한 공간을 요구하는 기능을 담기 위한 경우거나 자연과 건물이 만나는 언저리에서 그 둘을 완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자연광을 적절히 끌어들이는 것은 공간의 생명력을 위해서나 환경계획의 측면에서나 모두 중요한데 실의 성격에 맞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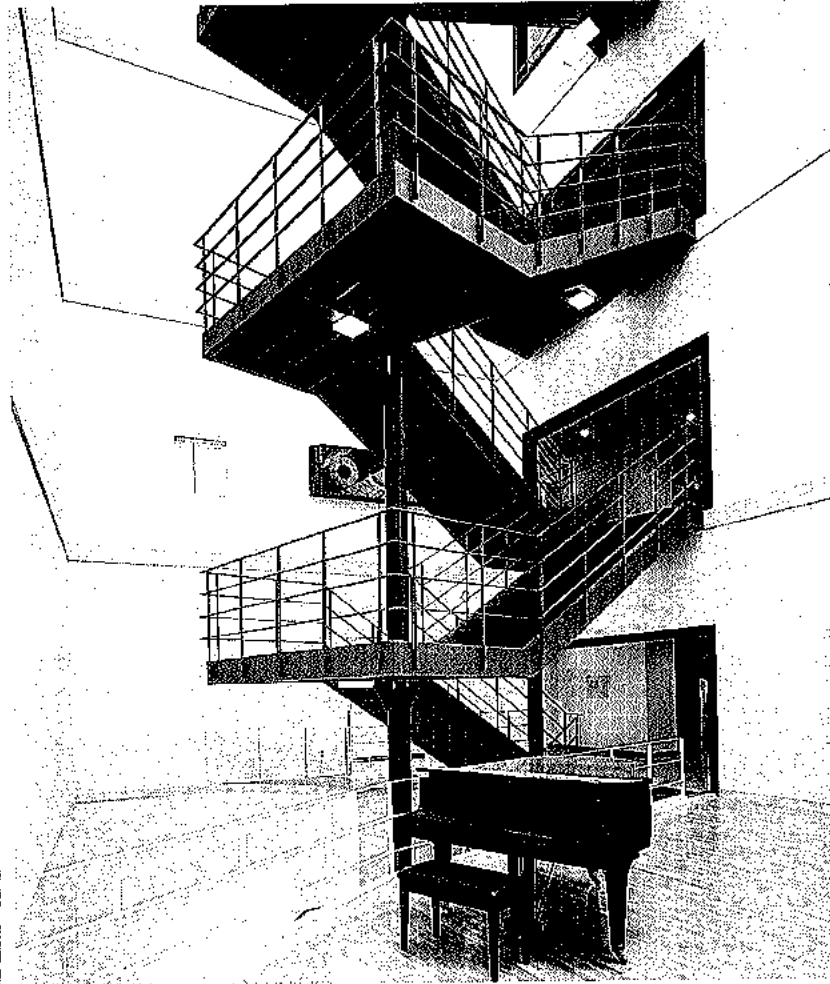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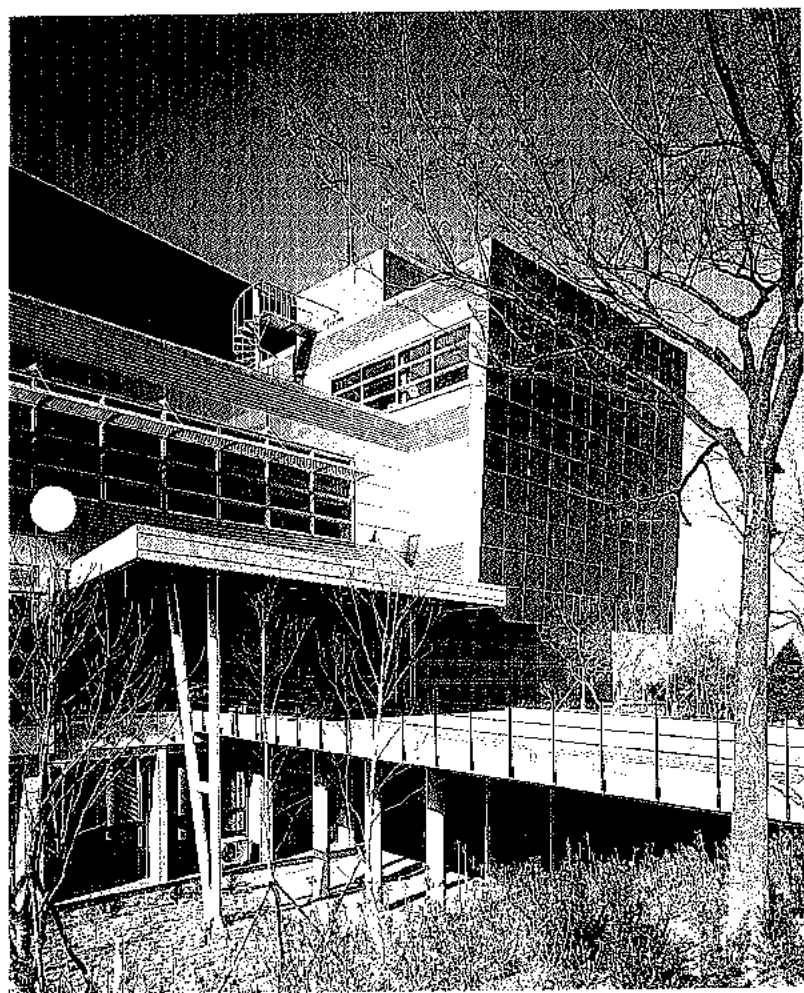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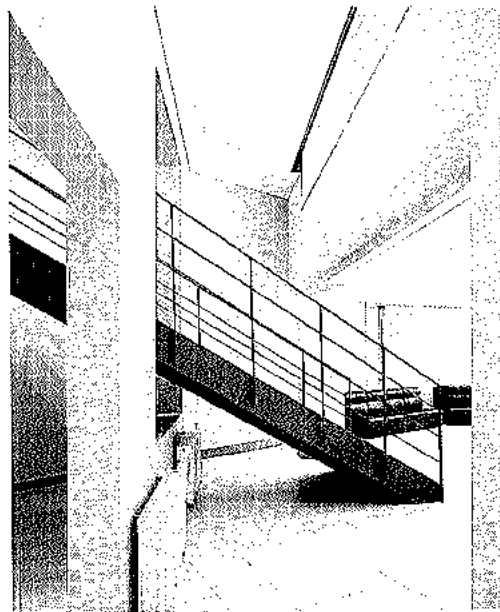


- | | |
|--------|---------|
| 1. 로비 | 6. 열람실 |
| 2. 기계실 | 7. 연구실 |
| 3. 강의실 | 8. 교수실 |
| 4. 실험실 | 9. 스튜디오 |
| 5. 중 | 10. 사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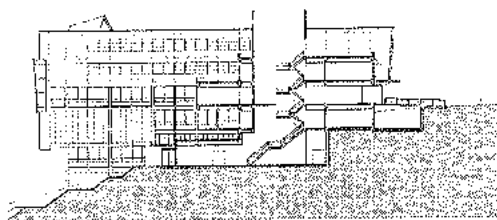


적절한 빛을 제공하고자 했다. 일반적인 실들은 루버에 의해 지나친 직사광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서관에는 수직루버를 세워 종이층 공간의 비례를 돋보이게 한다. 중심공간에는 높은 천창으로부터 떨어지는 극적인 빛을 연출하고, 실의 깊이가 큰 스튜디오에는 lighting shelf를 두어 여과된 빛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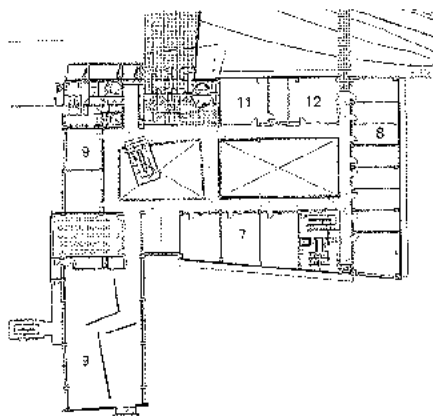
밖으로는 다양한 주변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복합적인 기능을 담아야 하는 까닭에 자연히 다양한 입면요소를 갖게된다. 대지에 건물을 들어올리면서 드러난 필로티의 구조, 상부의 SKIN CLADDING SYSTEM, 일조조절을 위한 루버와 스카이 라이트 등 등의 조합으로 풍부한 표정을 연출한다. 한편 구조모듈의 반복과 60cm수직모듈의 적용으로 통일성 있는 외관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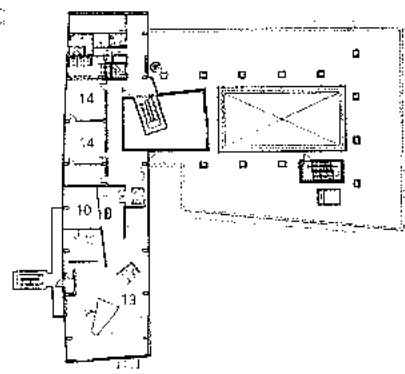
- 11. 행정실
- 12. 세미나실
- 13. 연구소
- 14. 전산실



단면도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실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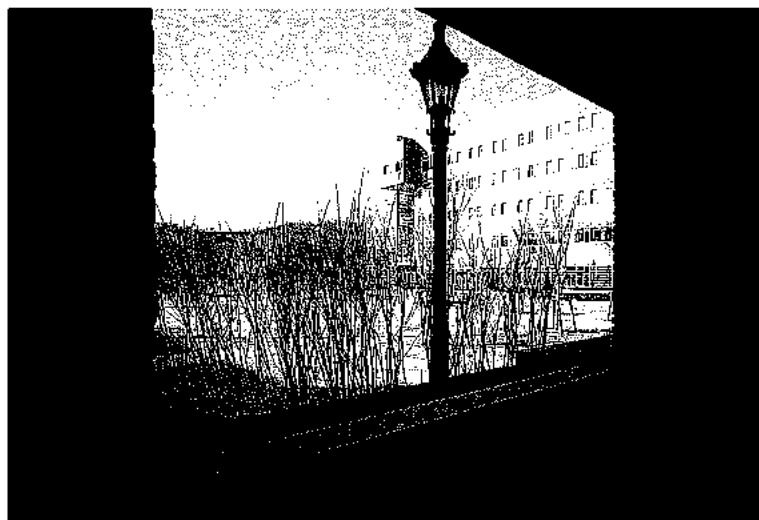
Laboratory Building of Public Health College, Korea Univ.

부대진 /진아건축 · 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 - Ji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 1-2번지 외 4필지
지역 · 지구	일반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 일부 풍치지구
대지면적	36,611.00m ²
건축면적	기존 - 1,732.10m ² 증축 - 1,992.98m ²
연면적	기존 - 8,200.13m ² 증축 - 11,491.27m ²
건폐율	10.17%
용적률	47.78%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최고높이	22.47m
설계담당	홍승훈, 윤보근, 장기태, 박해중, 박광배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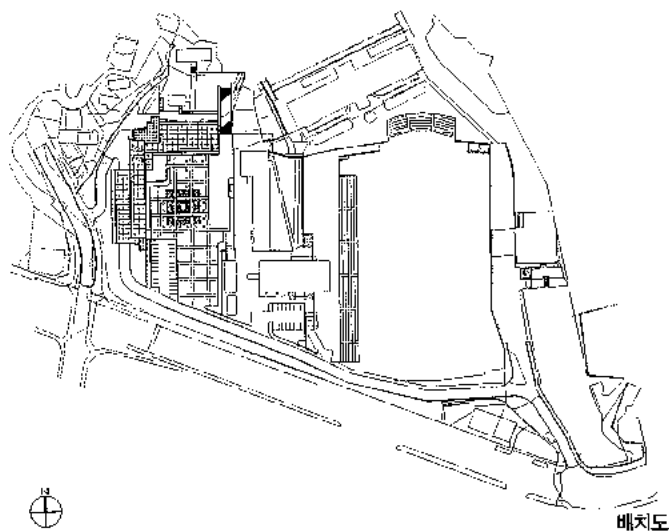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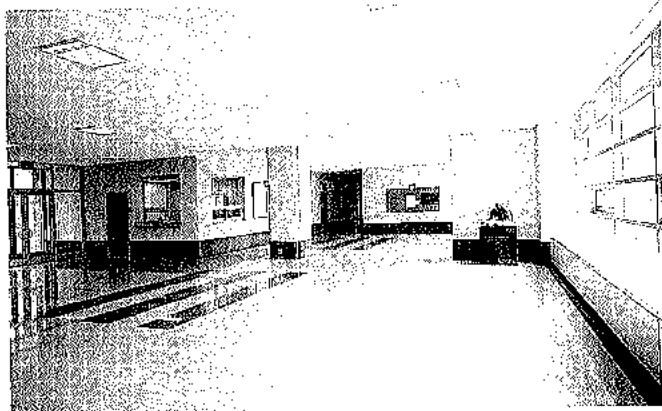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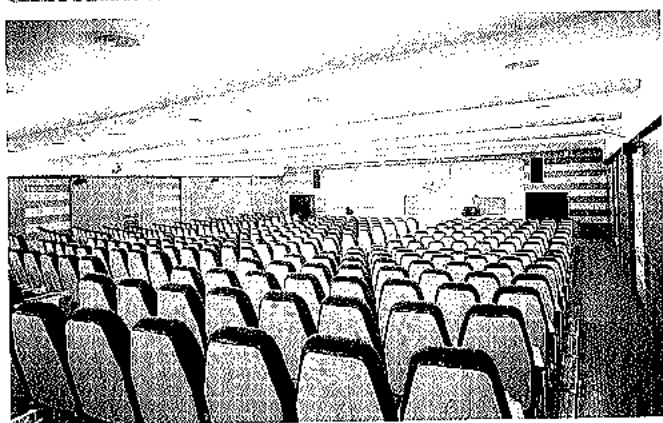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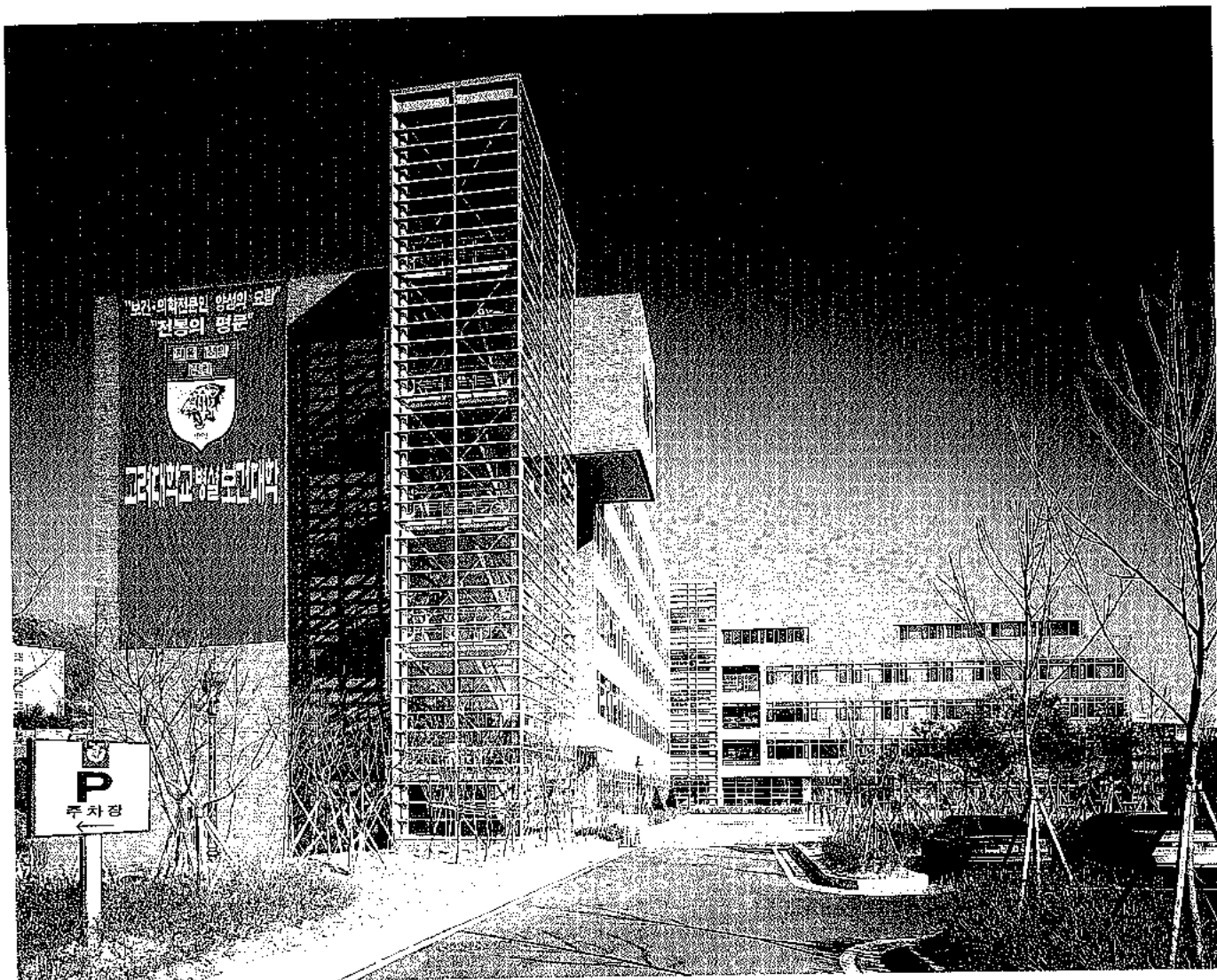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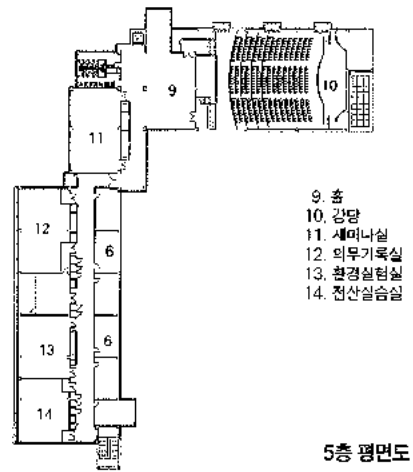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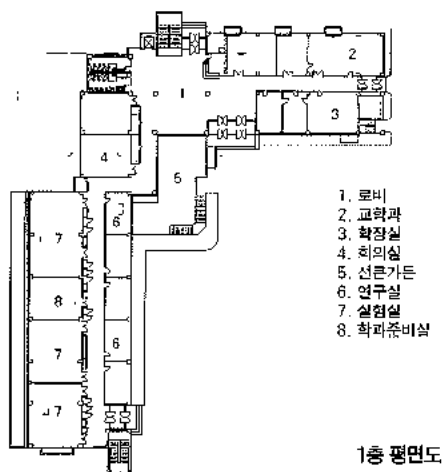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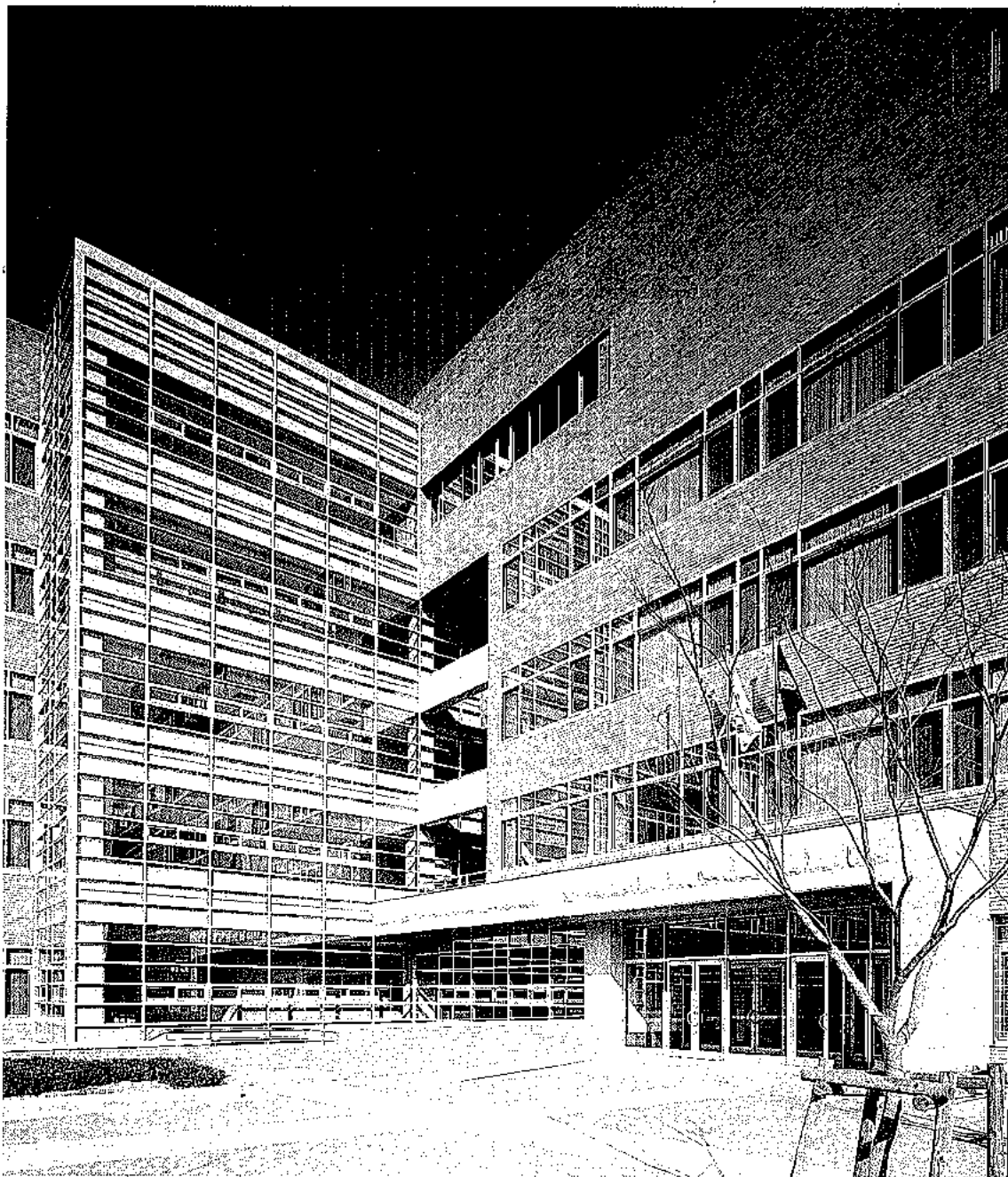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은 정릉과 북악터널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캠퍼스를 가진 학교이다. 계획당시 내부 순환도로가 미개통상태로 한창 공사중이어서 접근하는 부분이 매우 혼잡하였으며, 교문조차 숨겨져 있어서 학교로서의 인식의 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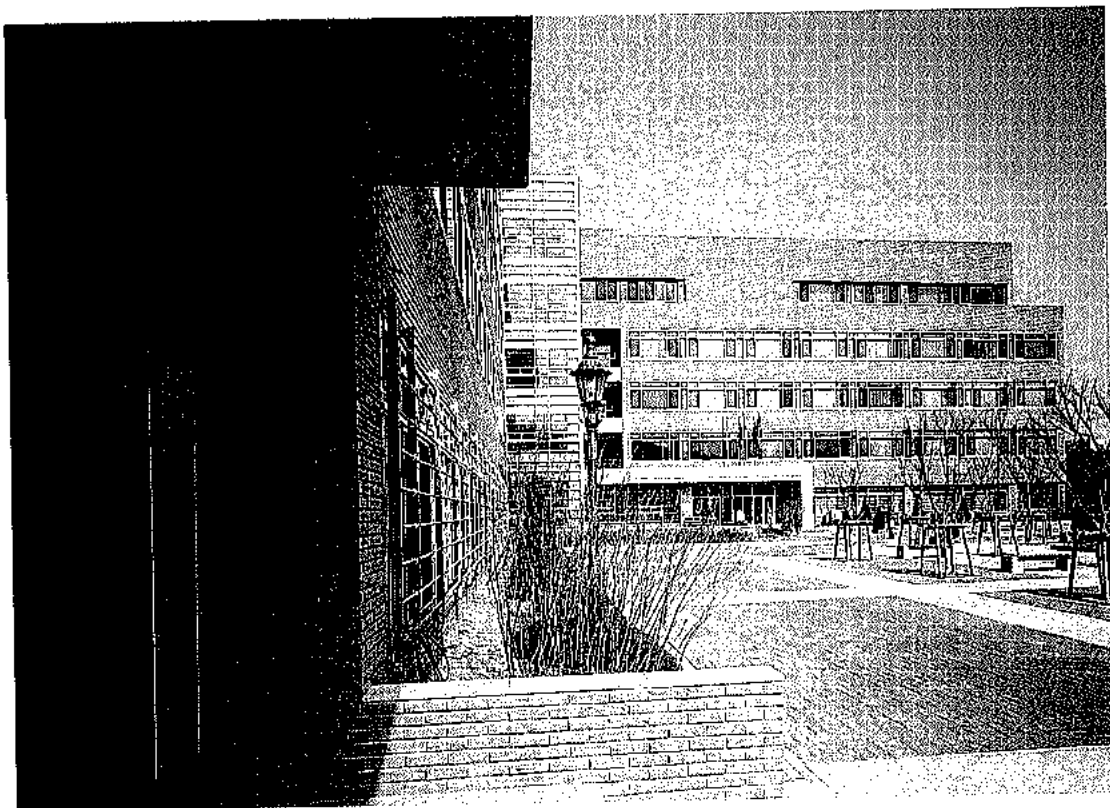
대지의 상황 또한 한 개의 교문이 보건대학과 병설 고등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영역성은 분명하지 않아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캠퍼스의 체계는 불분명한 상태로 60년대 김수근 씨의 작품인 본관이 계획 예정인 건물과 마주보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은 계획건물이 그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요구하였다. 중정화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의 구성과 캠퍼스의 질서를 부여하는 배치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요구조건의 계획의 방향마저 간섭했다.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정문과 중앙광장, 그리고 실험동 등으로 이는 한꺼번에 작은 학교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대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기존의 배치 흔적을 최대한 수용하고 건물 자체가 가지는 프로그램의 분석결과 T자형의 배치가 결정되었고, 이는 캠퍼스의 중심을 형성하는 중앙광장을 부가적으로 형성시켰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건축적 요소를 고안하였고, 그 요소를 계단을 설정하였다. 계단의 투명함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세라믹타일과 대비됨과 동시에 외부로 열려있는 이미지의 부여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투명함은 분절된 매스 사이에 한 번 더 삽입되어 전체 형태의 아이덴티티로 작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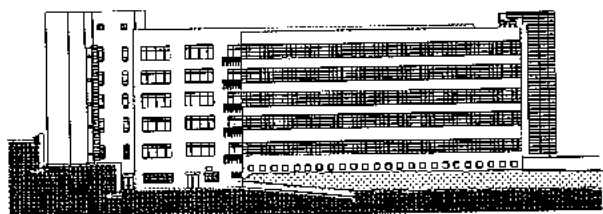
준공된 건물을 보면서 설계과정과 시공과정에서 처음 계획되었던 다양한 요소들 - 전체 입면에 계획되었던 압출성형 시멘트판, 서측면의 철재 루버, 그리고 통일감을 주기 위한 알미늄바로 구성된 그릴 등 -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삭제된 것과 실험동이라는 기능적인 요구에 의해 내부 공간의 건축적 공간감을 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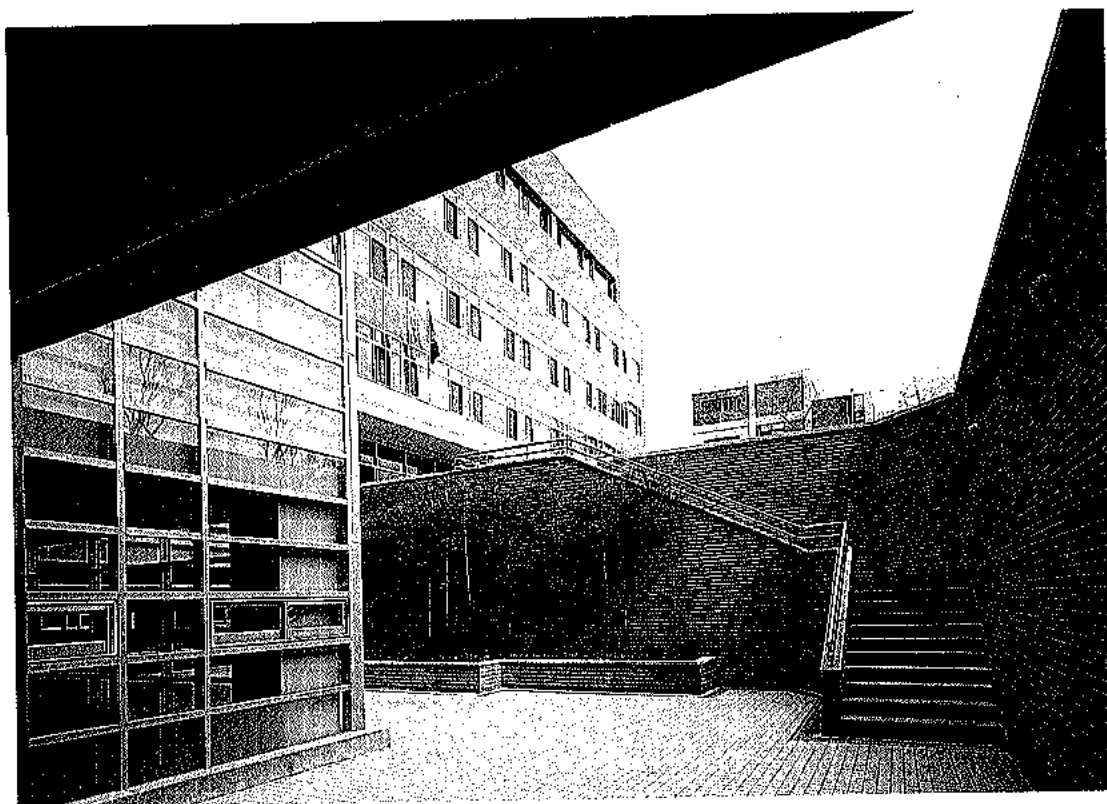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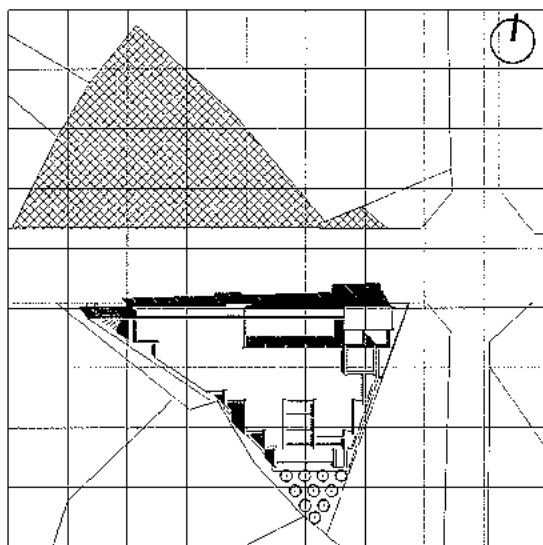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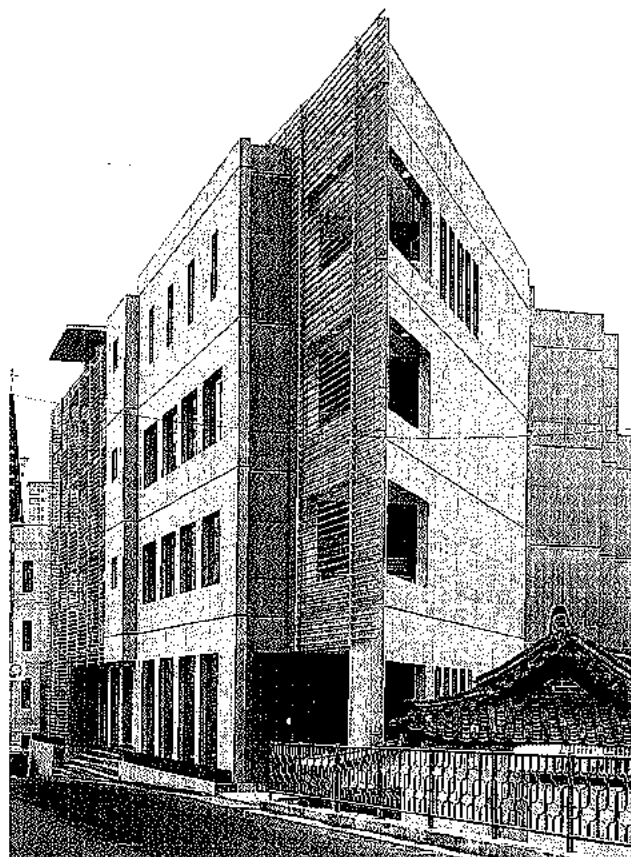
엑스트루드

Extr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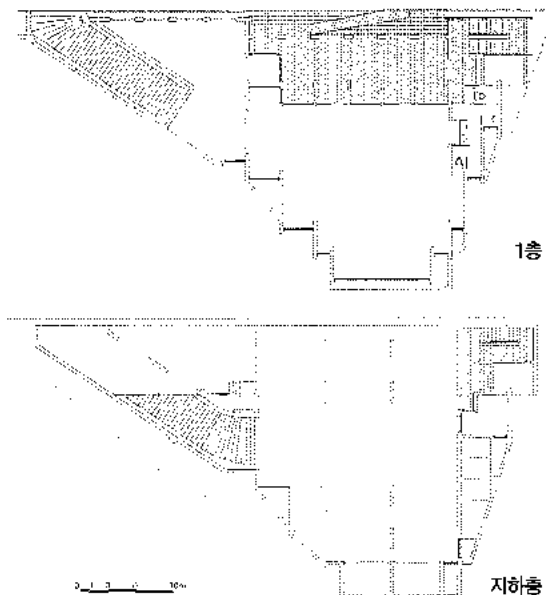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rl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신내동 565-1
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대지면적	567m ²
건축면적	328.2 m ²
연면적	1,576.7m ²
건폐율	59.6%
용적률	214.2%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재료	노출콘크리트, 스텐레스파이프, 목재널빔기
주차대수	10대
설계감리	(주)아르키움
건축주	윤재석
시공자	대양건설주식회사
구조설계	동양구조
전기설비	문전기설계
기계설비	미래설계
조명	신광조명
설계기간	1998.7 ~ 1998.12
공사기간	1999.3 ~ 1999.12
설계담당	원유정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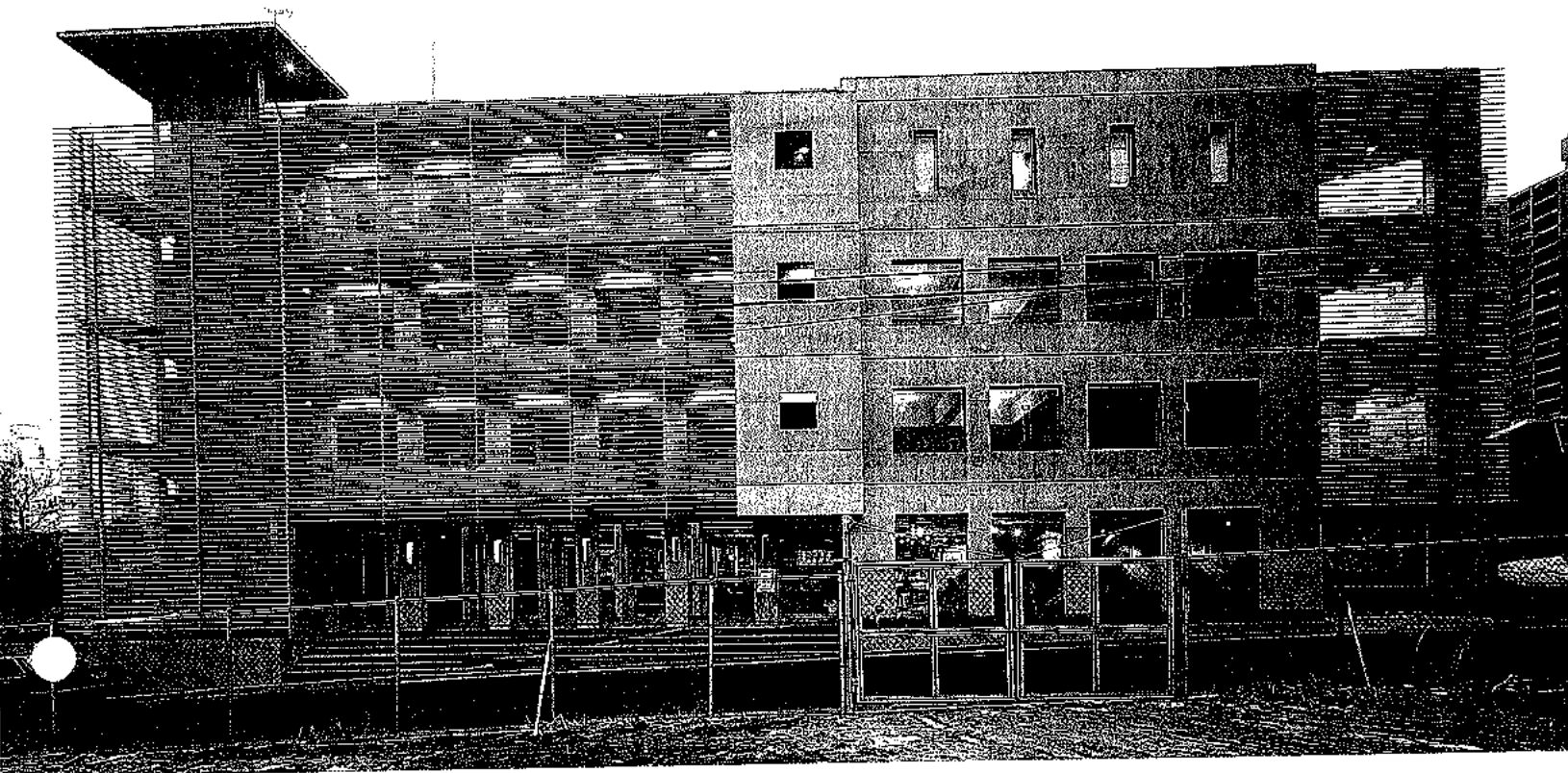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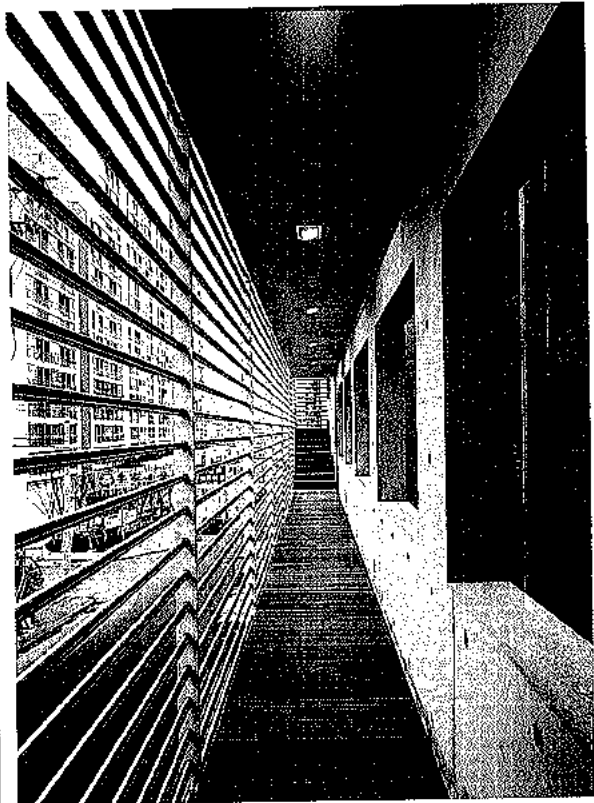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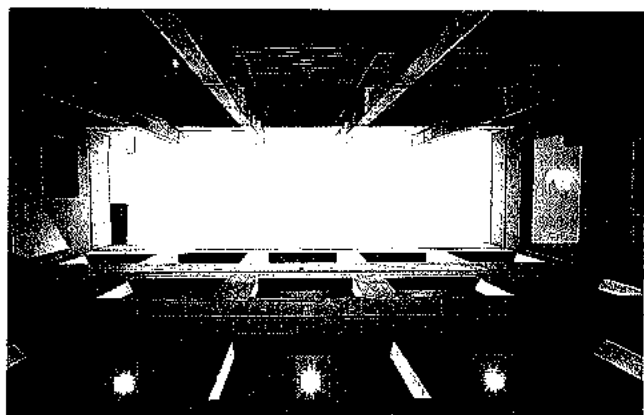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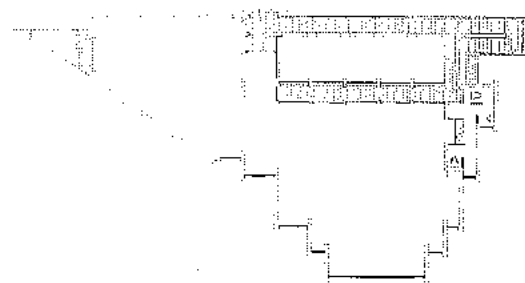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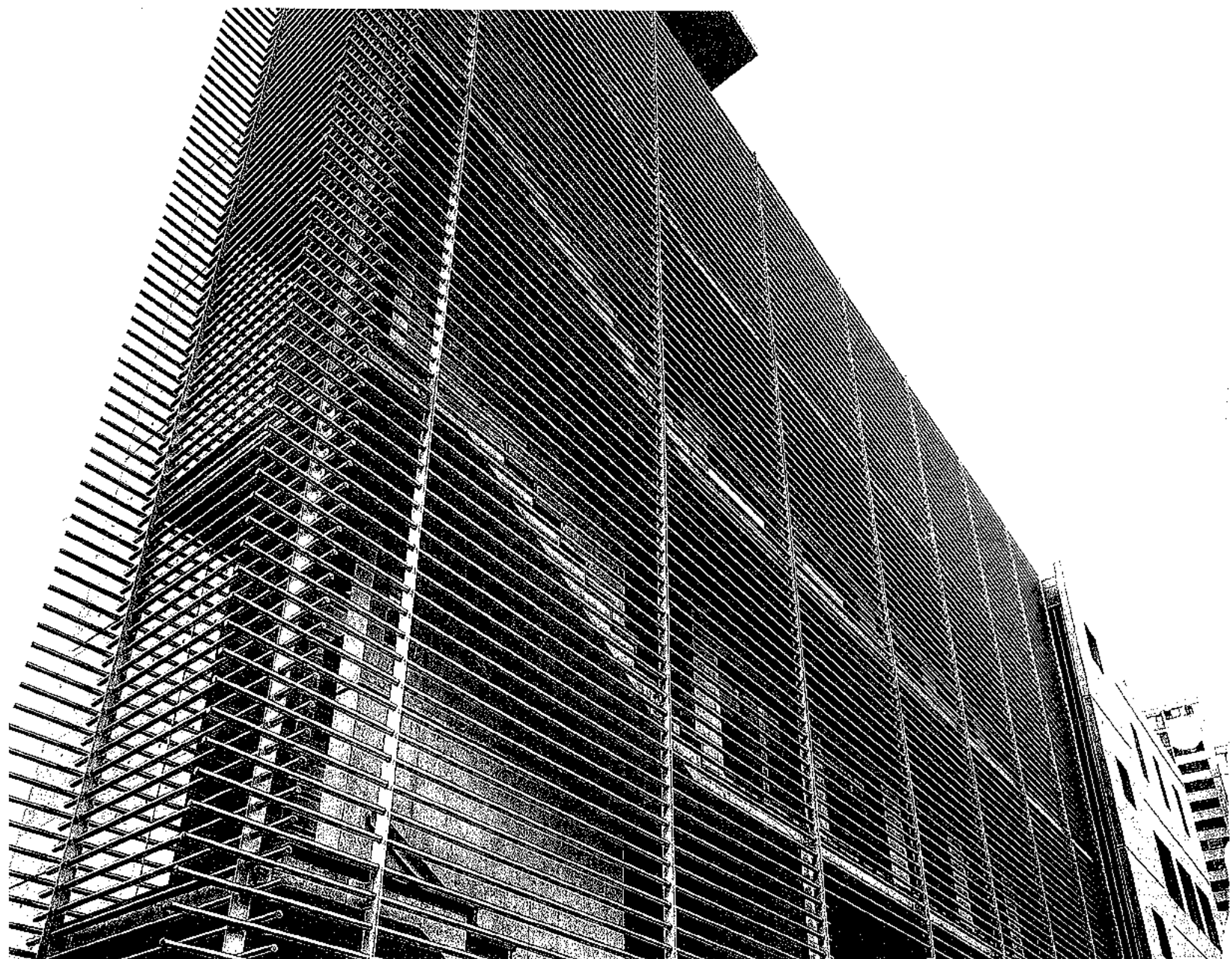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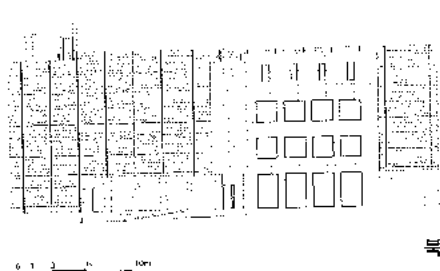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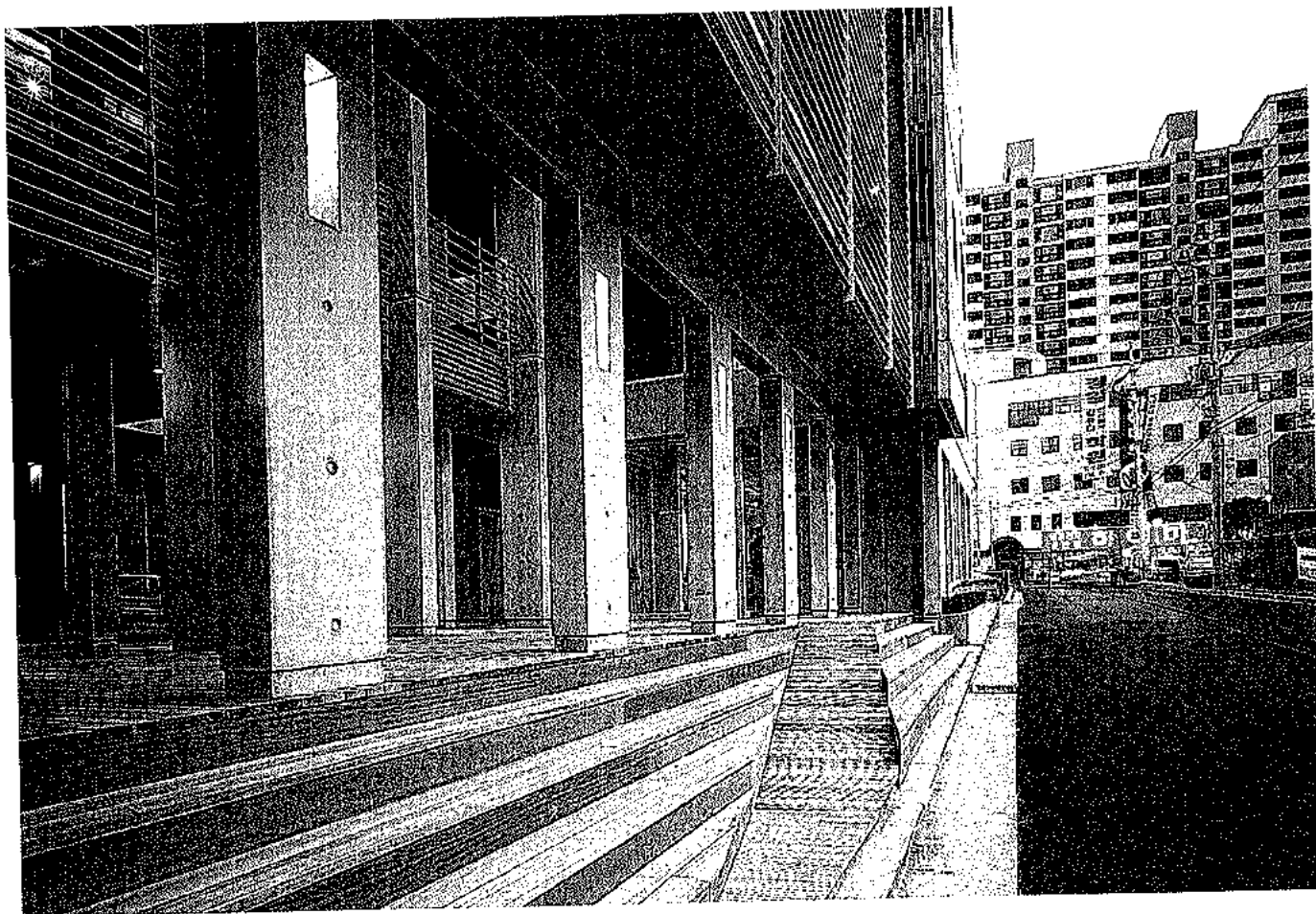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0 1 2 3 4 5 6 7 8 9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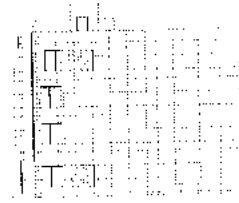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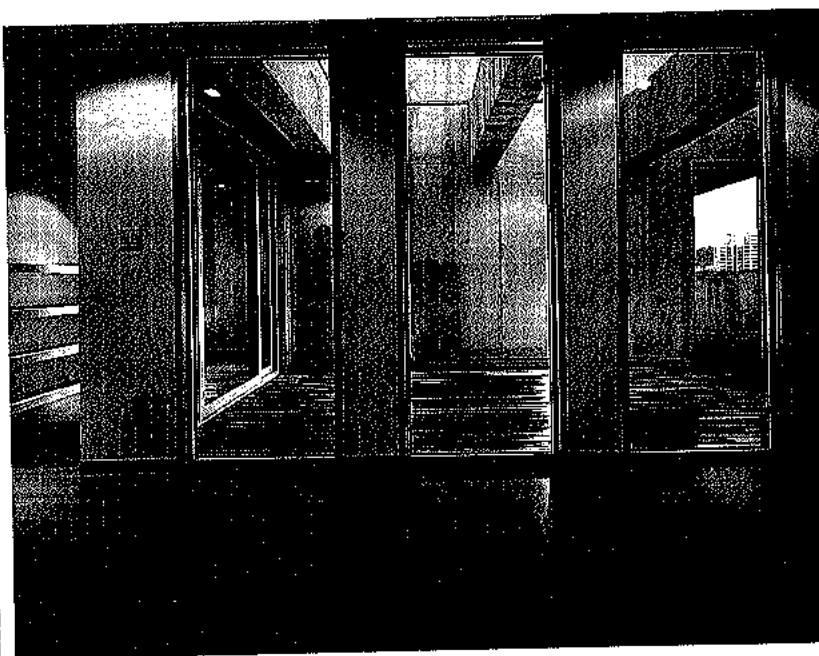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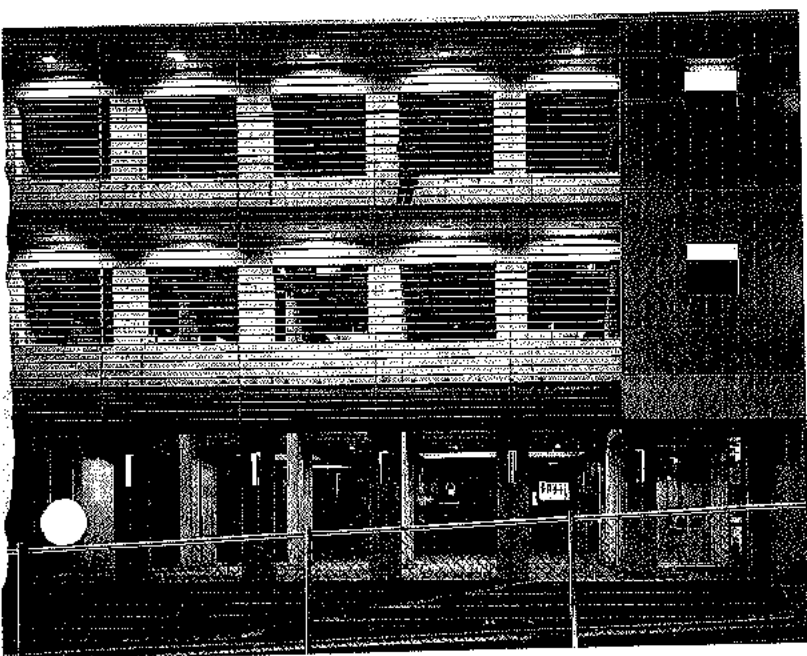
북측면도



남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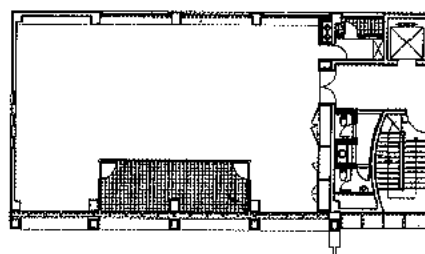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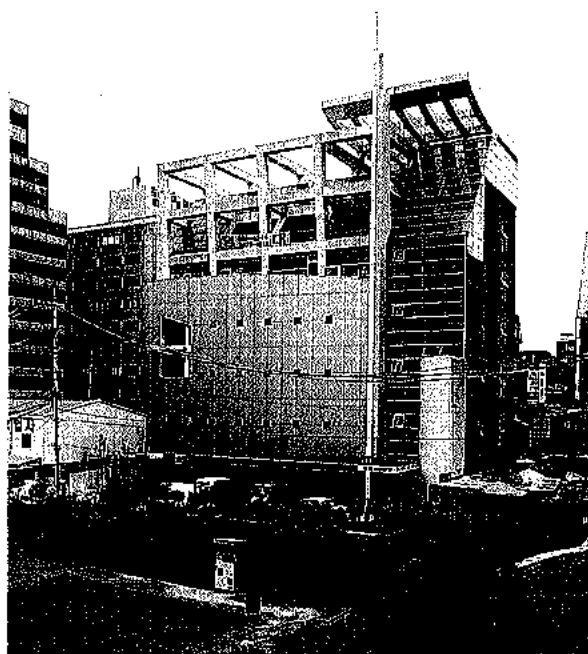
인클라인 III

Incline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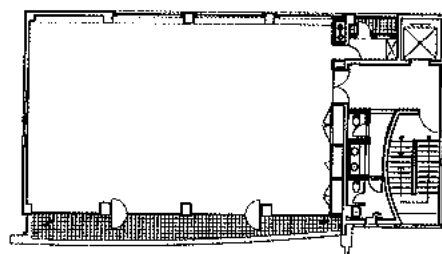
주영정 / (주)에조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oo Young-Jung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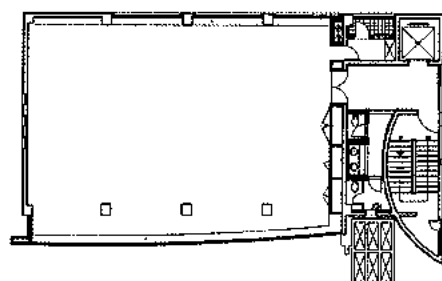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37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장비지구, 도시설계지구
용도	공공주택+판매, 근린시설
대지면적	470.00m ²
건축면적	269.69m ²
연면적	1,999.43m ²
건폐율	57.38%
용적률	321.37%
조경면적	52.90m ²
최고 높이	24.60m
층고	3.3m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설비	각층 패키지방식 + 중앙난방(공용부분)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외부미감	THK4.0 알루미늄복합패널, 지정외벽단열시스템
내부미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바닥/THK30 화강석 물갈기
설계담당	송문호, 소병권, 김광진
사진	채수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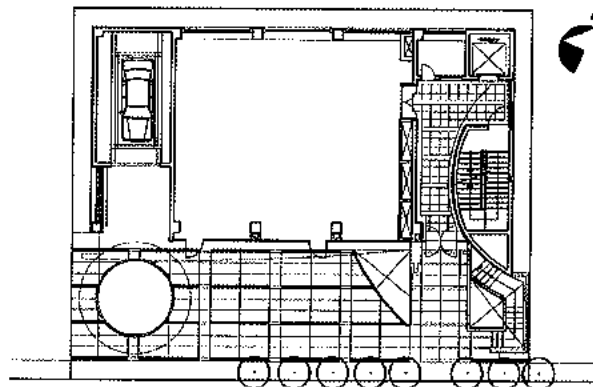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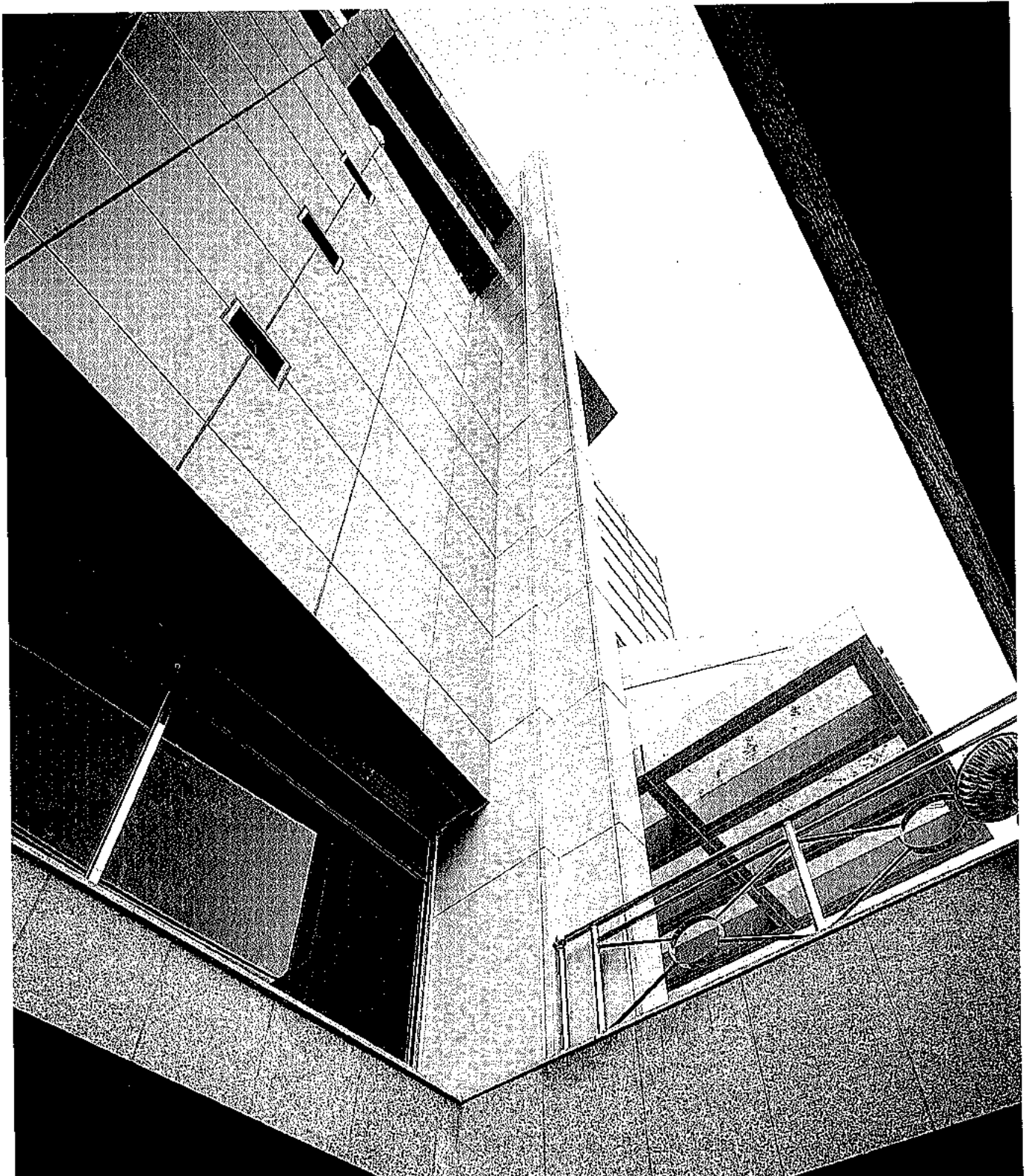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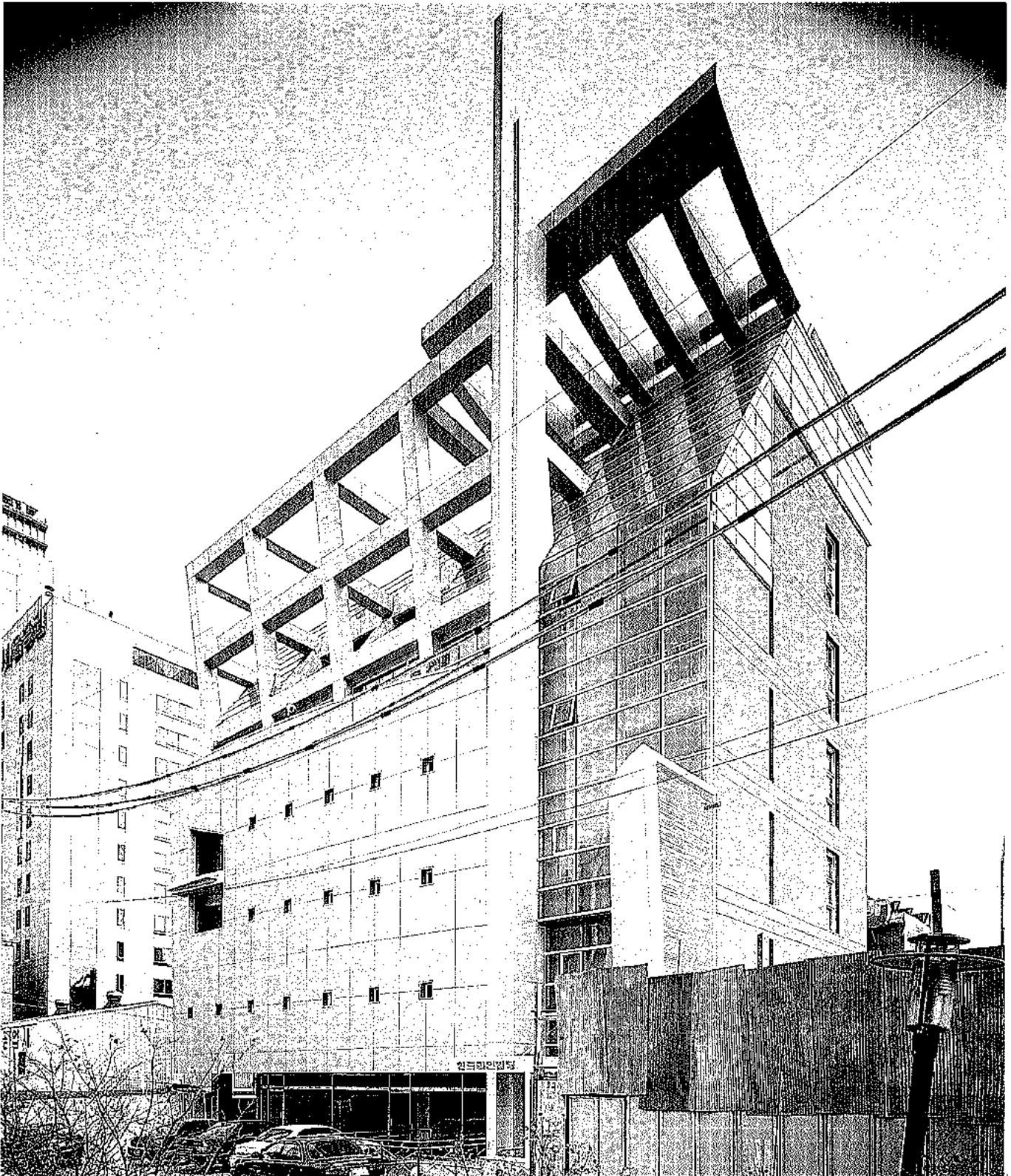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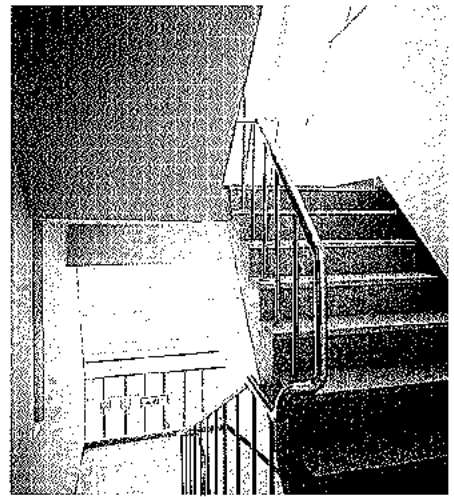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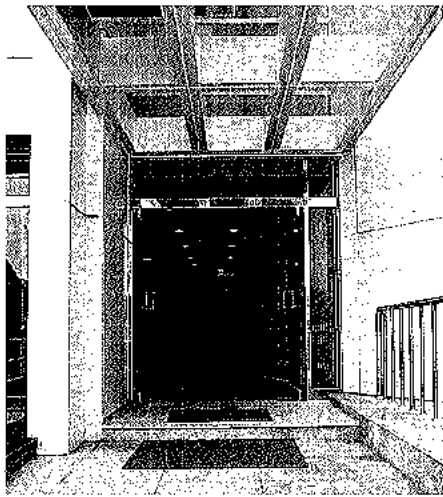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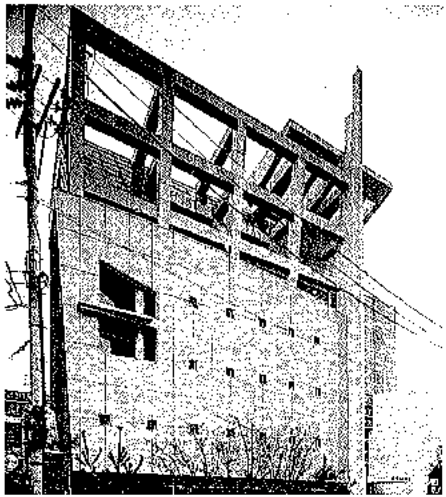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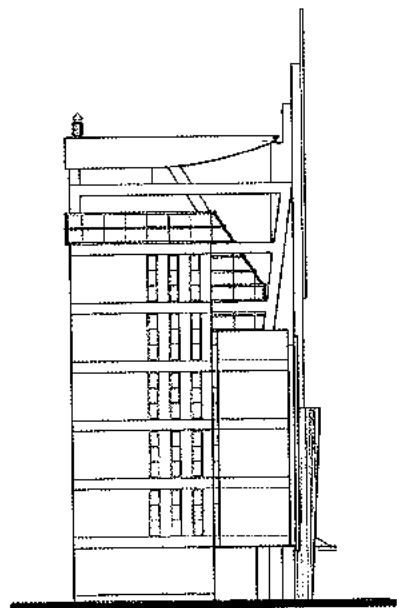
대지는 정리된 도심의 풍경이 형성되어 있는 테헤란로에서 한걸음 물러선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진 테헤란로 일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발달군(群)으로 특색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몇몇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상업적인 몸부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도시와 더불어 호흡하고 있지 못하고 삭막한 도심의 거리를 창출할 뿐이다. 건축적 반영에서의 요소를 든다면 사회적 맥락, 주변의 context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가 어떠한 건축을 주목할 때의 가치 체계는 건축 자체의 물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의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도시적 관계성을 추구하면서 그 자체로 도시적 경관의 재구성에 참여하면서 도시와 건축이 서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와 건축의 공생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인클라인Ⅱ의 기본적인 mass 및 입면개념은 절제된 방형과 잘려진 타원형의 단순한 결합의 하부와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면의 커튼월과 역응하는 8"기울어진 격자형태의 골조를 노출시킨 상부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개별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공간감의 형성과 함께 입면요소로써 한 부분을 차지하게끔 계획하였다. 코어(core)상부의 Crown과 Tower는 사육으로서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평면계획은 전면의 완만하게 호를 그리는 피막으로 둘러싸인 절제된 방형의 평면과 타원형의 계단실이 만나는 곳에 건물의 주진입구를 두어 시선을 이끈다. 그 아래로는 가로로 걷는 블록정다수인의 가벼운 선택으로 걸어 들어올만한 출입구가 위, 아래로 열려 가로의 보행감각을 건물내로 연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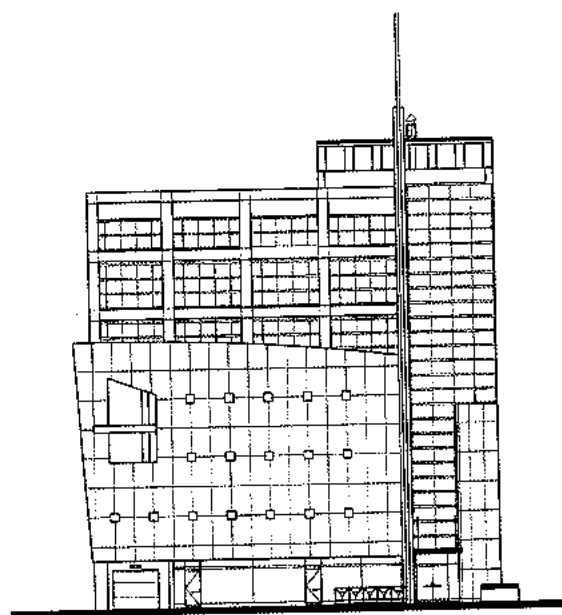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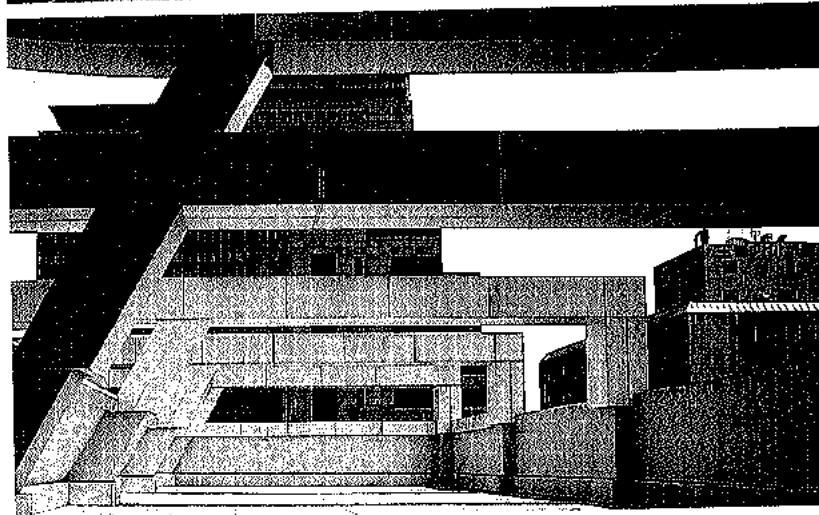






0 5 10m

좌측면도



정면도

각북 · 전원 · 주택

One Bed Room House

박종석 / 대상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Suk

작업의 지침서 - “어느 건축물의 탄생”

5월 10일, 현장에서

맑고 쾌청한 오후, 경사지 위로 오토바
이가 올라간다. 인접도로의 자동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사람들은 잔디밭 위에 누워 하루를 즐기고 있다
..... 중략

주변을 산책해 본다. 작은 집들, 조용하
고 단조로운 길, 뛰어노는 아이들, 비어있는 대지...

5월 12일

복잡한 프로그램, 이 꼬여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5월 13일

정신세계의 산책. 길을 걸어서 대지에
다다를 때까지 머리속에 그려지는 공간, 이미지들, 곡
선, 오르막과 내리막 ... 중략.

5월 19일

“내부공간 내부의 길”에 대한 아이디어
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한쪽방향으로 좋은 전망을 가
진 높은 길, 즉 열려있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면서 내부광장으로 향하는, 작은 정원을 따
라가는 길... 중략.

5월 22일

입구측에서 보이는 파사드를 없앤 건물,
길에서 다른 길로 걸어가듯 자연스럽게 회랑속으로 들
어가..., 절대 위엄있고 웅장한 건물은 피해야 한다...
중략.

6월 9일

일관성 있는 전체 덩어리... 단면, 대지
단면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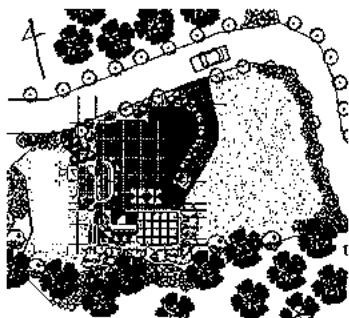
6월 18일

모형작업, 아주 작게 만드는 모형작업
(1/1000)은 일을 쉽고 빠르게 이끌어 준다. 형태... 중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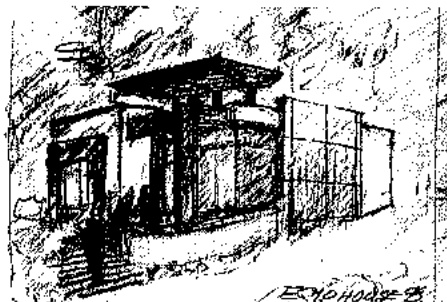
10월 18일

지금까지의 Note들을 정리하자. 작업
하는 동안 꾸준히 기록해 온 작품Note들도 결국 이 번
Project의 가장 중요한 것-가슴 속에 담겨 있던 가장 중
요한 것-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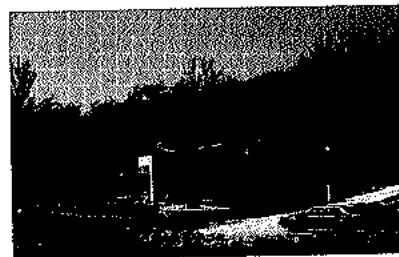
10월 19일



배치도



스케치



... 이제 작품 Note하는 작업을 마쳐야겠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을 통해 변화된 나를 스스로 느끼며 이제 5월의 그 대지 위로 다시 돌아가 희망을 거닐고 정원을 바라보며, 태어날 공간속의 움직임을 맞볼 수 있겠다.

Pierre Riboulet가 Robert-Debre소아병원설계를 위하여 자신의 고민과 발전과정을 이렇게 일기로 기록한 것처럼, 주택설계를 위해 나 자신의 작업에서도 하나의 건축공간이 서서히 부드럽게 탄생할 수 있도록 Note하는 **홍내**를 열심히 내어본, 자신도 알아보기 어렵게 갈겨쓰고, 때로는 운전중에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적고 그려놓은, 그래서 어쩌면 정리안된 "상념의 편린"들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레 이뤄진 그런 작품이었다.

건축주의 요구 - 건축가의 변

"40~50평정도의 단층건물을 원합니다. 그 외에는 전문가가 알아서 하세요. 믿고 모두 맡깁니다."가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던 멋쟁이 최사장님부부 요구의 전부였고, 다음으로 함께 결정한 사항은 적당한 크기의 침실(한실) 하나와 나머지 면적은 전부 넓고 시원한(30평이 넘는) 거실로 한 것처럼 처음부터 완공될 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 일관되게 믿음을 바탕으로 Project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태어나서 주변과 함께 살아가기까지의 몫과 의무가 우리들이 임버릇처럼 얘기하는 건축주, 시공자, 건축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소박한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 한다.

시공자

대구시내에서 삼, 사십분 거리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볼 수 있는 즐거움에, 내 집처럼 짓겠다는 정성을 다하고 싶었다.

가창댐과 산허리를 끼고 돌면 수자원보호지역이므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지나 산 정상을 넘어가면 각북전원주택으로 한창 개발붐을 타고 투기가 성행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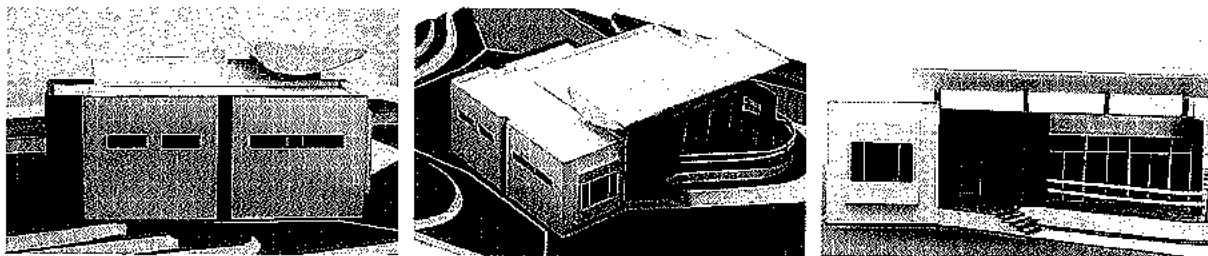
이곳저곳에 자태를 뽐내며 하나, 둘 서있는 건물은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

건축가의 까다로움은 다른 현장에서 이미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경험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사선으로 시공하는 외부석공사의 모서리부분 마무리공사와 사선으로 요철되게 처리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 마지막 층에서 콘크리트타설중에 거꾸집이 터져 옆 공장지붕에 흘러내려 밤새도록 처리하고 날이 새면서 다시 마무리 처리작업을 마친 기억들이 생생하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시공자 입장에서 각북전원주택은 또 다른 섬세함과 화려함이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조의 건축물로써, 거실부분의 철골과 데크플레이트의 노출처리가 이색적이며, 건축주의 취향에 맞추어 색상 선택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여러 색상을 모형에서 작업을 한 결과 흰색과 자주색의 조화가 화려함을 더 한 것 같았다.

공사 진행시 건축주의 지상함과 열정속에 바닥재, 벽난로 도기, 타일 등의 자재 구매를 건축주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즐거움도 함께 했다. 지금도 바쁘지 않은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울창이와 개구리를 잡으면서 쌓였던 피로를 풀곤한다. <변영일>



건축주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 이사와서 생활하며 맞는 세 번째 초록의 계절이다. 평소 그렇게도 꿈 꾸어오던 전원의 삶이 조금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와 맞물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어서 그럴 것이다.

고향이 서울인 아내도 입버릇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곳에서 생활할까” 하는 얘기를 2년여가 지난 지금도 가끔씩 떠올리는 걸 보면 한계효 용제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곳 각북의 전원생활인가 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직업관 즉 자기부모를 낮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진료하는 의사, 항상 정의의 편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법관,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는 정성으로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건축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식료품업자 등. 우리주변에는 많은 직종의 직업에 종사하지만 과연 그렇게 정직하고 노력하는 투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언젠가 각북면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얘기 중에 올해로 이사와서 세 번째인데 다가오는 어린이날에 우리 집을 지은 건축사와 시공업자가 자녀들과 함께 놀러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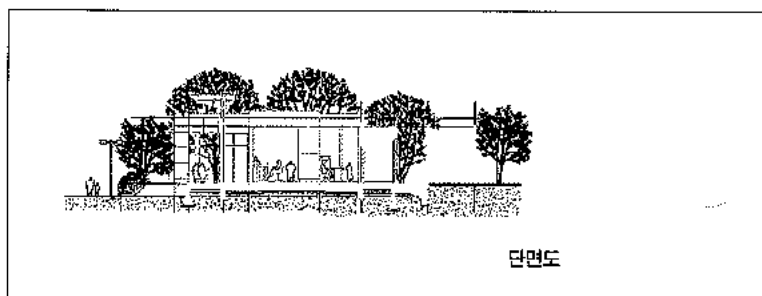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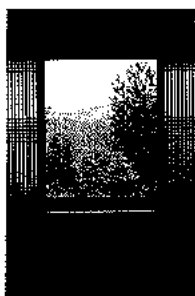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을 끝내고 나면 사이가 소원해져서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 한 번의 만남도 인연인데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해놓고 그럴 수 있느냐니까 요즘엔 비정상이 많아 어느게 정상인지 모를 정도란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제 아내가 얘기하듯이 정말 운이 좋게도 성실하고 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건축가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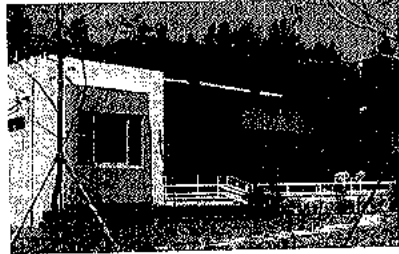
게다가 십수년동안 예술과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건축가를 만난 것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나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건축주보다 더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작품이기에 건축주인 나 자신이 월하나 고치고 싶어도 건축가의 의도와 어긋나지나 않을까 해서 먼저 상의를 할 정도였다.

제 소유이긴 하지만 뛰어난 감각과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한 건축가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속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물자리를 봐주기 위해 왕림하신 우리나라 수맥과 풍수의 대가이신 임웅승 퇴임신부님께서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다 있구나 하셨다.

뒤에 큰 산을 지고 있고, 바로 옆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흐르고, 이 주변의 가장 큰 봉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말로만 들던 배산임수가 바로 여기



단면도



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칭 환경보호론자인 본인이 곧잘 부르짖지만 자연은 우리 인간이 가꾸고 지킬 때 보답하는 것이다. 지구의 자정능력 또한 한계가 있다. 인구가 늘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분의 일로 버리고 비례해서 아껴야 한다 이런 소중한 환경을 우리만 향유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겐 물려주지 않으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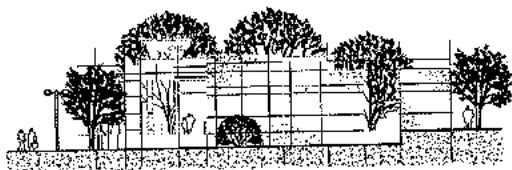
우리 집엔 외국인을 비롯해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다. 심지어 건축사인 프랑스친구들은 여기가 자기들의 고향인 “노르망디” 보다도 낫다고 할 정도다.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좋은 곳을 너희만 알고 지내지 말고 찾집이라도 열어 많은 분들과 공유하라고 충고삼아 말하는 친구도 있다.

오는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한다. 정말 이런 생활을 가지도록 해주신 누군가 큰 분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갈바가 드리워진 테라스에서 아무런 사념없이 땅거미가 서린 산과 들을 바라보고 있다. <최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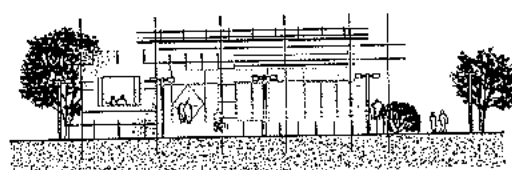
에필로그(Epilogue)

테오도르 루소(Theodore Rousseau)가 하루를 지내려왔던 바르비종이 너무 좋아 평생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버린 것처럼, 주말별장으로 사용하려던 이 곳이 최사장님부부의 주주거가 되어 버렸고, 살던 APT에는 한 달에 한두번 들러볼 정도로 이곳 각북(지역) · 전원(환경 · 조건) · 주택(용도 · 방식)에서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기에 건축가로서 가장 큰 보람을 가진다.

하지만 비가 오면 아직도 철골과 유리 이음 부분에 물새는 곳이 있고, 외벽의 흰색드라이비트 마감 사용에 대한 경험부족 때문에 예상밖으로 빨리 더러워지는 것, 너무 많은 외부조명등 설치와 보안에 무심한 설계, 빠르게 변색해 버리는 데크바닥재의 선택 등의 미숙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격려는 비단 이 주택과 설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사랑을 더불어 나누는 모든 관련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측입면도



정면도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공사비 계획(Cost Planning)과정

The Cost Planning Process of Pre-design Phase

홍영배 / 대하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by Hong Yeong-Bae

1. 서론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계획하는 과정은 프로젝트의 계획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설계사공분리(D-B-B: Design-Bid-Build)방식과 더불어 설계와 시공이 Fast Tracking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시공 일괄발주 형태의 총액 입찰제도에 의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기본설계단계에서의 타당하고 체계적인 공사비 계획은 더욱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기본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계획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불명확한 공사비 정보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사비 계획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초기조건들의 통계자료 및 과거에 수행된 프로젝트의 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공사비 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공사비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개인의 자료에 의해 개산(概算)되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공사비 계획의 목적인 적정한 프로젝트 범위와 품질의 규정, 합리적인 공사비 예측, 공사수주 및 시공관리 등에 걸친 공사비의 정확성 검토 및 활용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국내 건설전문집단의 공사비 견적 관련 업무의 대부분은 완성도면에 대한 물량산출과 단가산정업무에 치우쳐 있으며, 설계단계 이전에 실시하는 공사비 산정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전문집단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공사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활용가능한 공사비 예측기법, 공사비 정보의 유형과 형식의 고찰을 통하여 공사비 계획의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공사비 계획

2.1 정의

공사비 계획(Cost Plan)의 의미는 공사비 계획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¹⁾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 1) 이미 책정한 예산을 확인하는 업무
- 2) 소요 건물의 다양한 기능적 부위 내에서 공사비가 건물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적절히 분포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업무

2.2 공사비 계획의 중요성

공사비 예측 기법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활용 정보의 양에 의해 그 정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공사비 예측의 정확도는 그림 1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y축은 공사비 예측이 초과될 확률을 나타내고 있고, x축은 프로젝트의 진행단계, 즉 기획, 기본설계, 수행단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 커브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작성되는 견적인 경우 거의 100% 정확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커브에서는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① 불투명한 기획 단계는 변화가 많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기간의 커브를 그리는데 사용된 기초 데이터는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

1) Morton, Ralph, Jaggar, David. Design and the Economics of Building, E & FN SPON, 1995, p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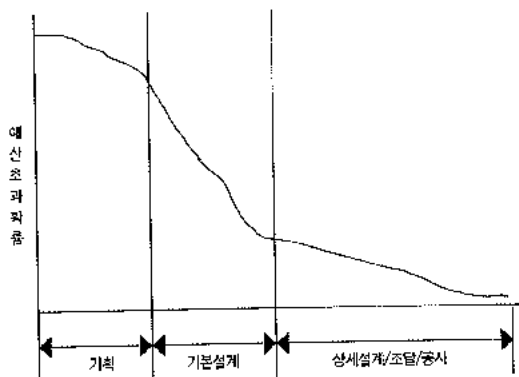


그림 1.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공사비 예측 초과 확률
자료: 코스트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처, 1994. 10. pp. 107-108.

초과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초과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② 설계기준이 확정되면 정확도가 극적으로 변하고,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정확도가 상당히 증가한다. 이것은 설계를 확정하는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설계단계가 공사비 계획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2.3 기존의 공사비 예측의 절차 및 기법

공사비 예측 기법은 프로젝트 수행 각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그림 2는 각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사비 예측 기법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타당성 분석과 기본 요구사항을 확립할 시에는 예를 들어 병상 당, 단위면적 당 등에 의한 공사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에서는 건물 부위별 분류에 의한 정보에 의해 견적을 할 수 있으며, 상세 설계단계에서는 수량산출 기준에 의해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이후 단계에서는 공정계획에 입각한 공종별 분류, 자원별 분류 등의 기법에 따라 산출되어진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는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 이후 단계에서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초기 단계에서의 기존의 공사비 예측 기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 1) 기능 또는 성능에 따른 방식(예: cost/bed, cost/pupil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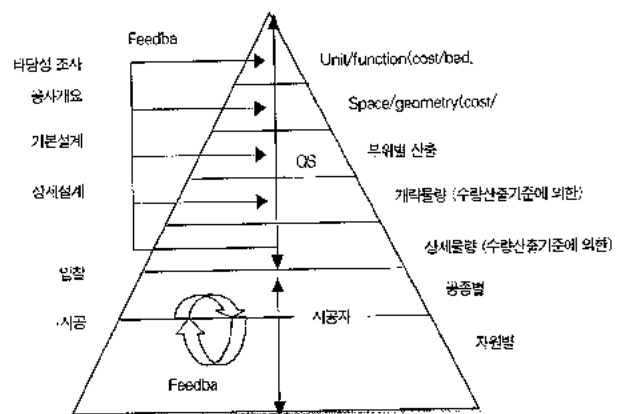


그림 2. 프로젝트 단계별 공사비 예측 기법
자료: Morton, Ralph, Jaggar, David. Design and the Economics of Building, E & FN SPON, 1995, p. 291.

본 방식은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신속하게 산출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이 기법에서는 지반조건, 건물 형태, 층 수 등의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며, 아주 초기단계 이외에는 그리 신뢰할 방법이 아니다. 종종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²⁾

2) 면적에 따른 방식(예: cost/m²)

이 방식은 건물의 단위면적의 단가를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출하여 같은 종류 및 규모의 연면적 당 통계 단가를 곱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일정한 자료가 수집되면 누구라도 개산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단가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할 때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용적에 의한 방식이 있지만 공사비 산정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부위별 분류에 의한 방식

부위별 분류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 견적에서 물량과 성능 조절에 적합한 방식인 동시에, 공사비 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가설, 기초, 골조 마감 등의 건물 요소별 또는 부위별의 단위 면적 당 단가를 동종건물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부위별 단위면적 당 단가를 추정하고 이들을 합계하여 추정단가를 산정한다. 부위별로 분해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오차가 상쇄되면 좋지만, 과대 또는 과소 오차가 누적되어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추정 값을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부위별의 건축비 지수는 골조, 마감, 설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과거의 자료 이용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방법의 이점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건축공사의 실적 자료에서도 부위적으로 유사한 것을 모아서 적절한 단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부위별 단가가 구해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하기가 쉽고, 설계단계에서 발주자를 위하여 설계대안에 대한 공사비 정보의 제공, 공사비 관리측면에서의 비용감사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3.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공사비 정보

국내의 공사비 산정업무는 크게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의 단위면적에 의한 총공사비 산정과 상세설계 완성후 물량산정과 단가책정업무에 치우쳐 있어 프로젝트 기획, 설계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공사비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 설계초기단계에서의 전문적인 공사비 관리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자는 상세설계이전에 공사비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공사비 계획 및 관리업무에 유용한 부위별 분류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정업무 및 데이터의 축적은 전무한 상황이라서 초기 설계진행과 공사비 관리가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실정이다.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설계자와 함께 사용재료, 공법 등의 제반 변동요인을 건물 부위별 분류에 따라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설계 단계별로 세분화해가면서 소요 공사비를 미리 예측하는 방식은 좀 더 정확하고 타당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부터 품질과 성능측면을 공사비 산출에 고려할 수가 있어 궁극적으로 발주자의 가치체계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에서의 공사비 산정 절차에 활용할 부위별 분류체계를 제시하여, 기획단계와 기본설계단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공사비 정보를 규정하고, 또한 공사비 계획에 필요한 실적 공사비 자료의 형식을 제안한다.

3.1 부위별 분류 체계

부위별 분류방식은 시공단계에서 이용되는 공종별 분류방식 대신에 설계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어 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를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³⁾

예를 들어 외벽 시스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초기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외벽 시스템의 총공사비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은 설계단계가 좀더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부위별 분류체계를 이용하면 건물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기 이전에 주요 건물 시스템에 대한 공사비 예산을 규정할 수 있으며, 설계진행동

2) Potts, Keith F., Patchell, Brendon, Major Construction Works: Contractual and Financial Management, Longman Group Ltd., 1995, pp.42-47

3) Johnson, Robert E., The Economics of Building, John Wiley & Sons, Inc., pp. 87-91, 1990.

안 건물 공사비 관리와 공사비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위별 분류 방식의 단점은 공중 분류방식과 같이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 상호 간에 자료의 비교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부위별 분류방식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자료의 구성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 이용은 증가할 것이다.

공사비를 분류하기 위한 건물 코드의 분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구미 각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UCI(Uniform Construction Index)에 의한 분류 체계, Ci/SfB(Construction Industry/Samarbetskommitten for Byggnadsfrågor), 그리고 Unifomat(Uniform Building Component Format) 등이 있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부위별 분류 체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물 부위별 분류 방식은 대분류를 기존에 사용되는 방식에 비해 그 항목을 간소화 하였다. 예를 들어 Unifomat에서는 대분류에 속해 있는 하부구조, 상부구조, 외벽, 지붕을 건물 외형을 구성하는 구체공사의 하위항목에 분류하였으며, 건물 내부 부위에 대한 공사를 건축공사로 대분류하여 그 하위에 내부공사의 각 항목을 분류하였다. 또한 건물 이외의 공사항목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부대공사 하위 항목에 두었으며, 토공사 부분을 따로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좀더 간소화한 분류 방식을 사용하면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기본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를 토공사, 건물의 구체부분, 내부공사부분, 설비공사, 부대공사, 공사간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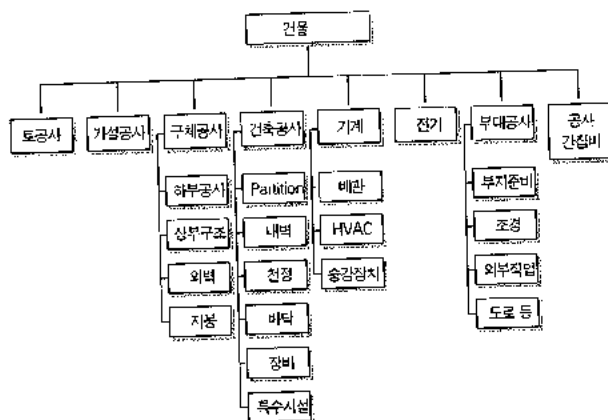


그림 3. 공사비 분류 형식

로 명확하게 나누어 산출할 수 있어 의사결정자가 공사비 구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공사비 분류 체계에서의 각 항목은 설계단계의 진행에 따라 더욱 상세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3.2 공사비 정보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는 설계도면이 아직 작성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예측할 때 구체적인 설계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때의 공사비 계획은 현재의 프로젝트와 유사한 과거 프로젝트의 설계정보에 근간하여 공사비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면적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을 이용한 공사비만을 가지고 기획단계에서 공사비를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진행동안 발생하는 공사비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사비 계획에서도 포괄적이거나 건물 부위별로 건물의 구성부분을 나누어 기존의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공사비 계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단계에서는 그림 4 외벽 마감 시스템의 분류에서 나타난 점선 위 부분 수준에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의 공사비 산정은 유사한 프로젝트의 공사비 자료를 준비하여 지역차, 년도, 물가 상승률, 기획단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건물면수, 발주자의 요구금액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사비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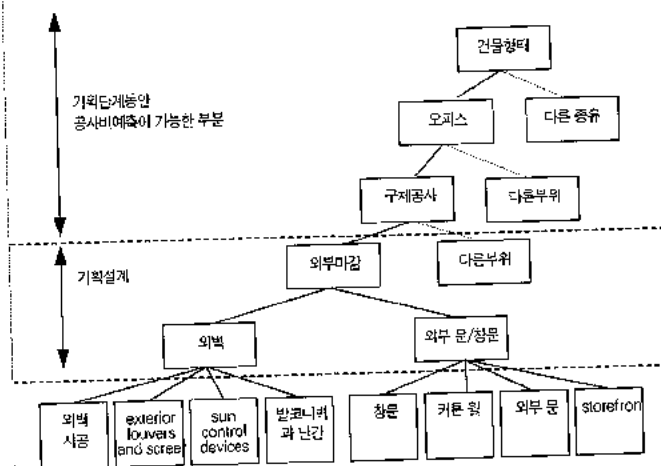


그림 4. 공사비 정보 이용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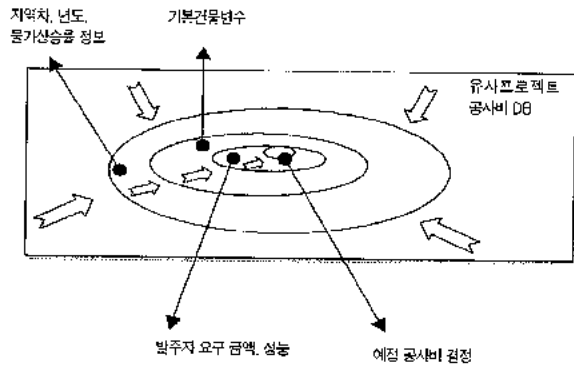


그림 5 공사비 계획에 이용되는 공사비 정보

3.3 실적 공사비 정보의 형식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할 실적 공사비 자료의 질이다.⁴⁾

그림 6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업무에 필요한 실적 공사비 정보의 형식에 대해서 도식화한 것이다.

현재 실적 공사비 정보는 확정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프로젝트 범위와 공사비를 예측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공사비 정보의 사용, 편집, 수정, 저장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실적 공사비 정보는 프로젝트 완료 후에 얻어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의 최종 공사비 보고서가 그 프로젝트의 실적 공사비 정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에서는 공사비를 건물 부위별로 산정하여 전체 공사비를 예산한다. 하지만 입찰부터 시공단계 완료까지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종별로 분류하고 자원별로 분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형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음 프로

4) Ferry, Douglas J., and Brandon, Peter S., Cost Planning of Buildings. BSP Professional Book, 6thEd., p 117,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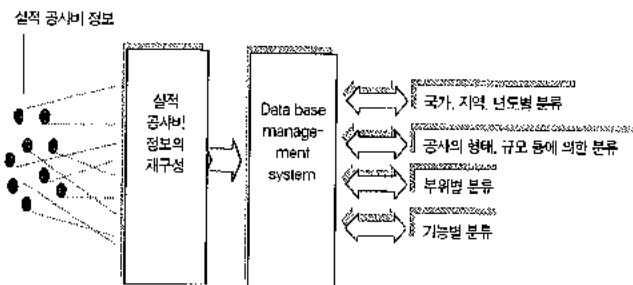


그림 6. 공사비 계획에 필요한 실적 공사비 정보의 형식

젝트에서 설계회사나 견적 전문가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실적 공사비 정보를 이용하려면 자료를 원하는 형식에 맞추어 다시 편집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적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개별 프로젝트의 실적 자료의 형식이 표준화가 이루어져 회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져야 한다.

2) 실적 공사비 정보의 내용은 자료의 내용이 작성자 아닌 다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져야 한다.

3)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적 공사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할 때 공사비 계획 업무에 요구되는 형식을 고려하여 저장 하여야 한다.

4) 현재 실적 공사비 정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최상위 공사비 정보와 최하위 공사비 정보만을 나타내고 있다.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실적 공사비 정보로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공사비 정보도 함께 나타나 있어야 한다

5) 외벽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상위 항목인 외벽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벽마감, 외부 문, 창 등의 방식으로 하위 단계로 나누어 질 때 그 하위 항목에 대한 공사비 정보도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6) 또한 부위별 공사비 구성 뿐만 아니라 성능에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

본 장에서는 기획단계와 기본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비 계획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자신의 건물을 구성 부위의 공사금액과 성능을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설계회사와 적산 회사의 주된 견적업무는 설계완성 도면 이후의 물량산출과 단가 산정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기본 설계단계에서의 발주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견적 업무와 공사금액과 성능에 대한 합의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업무가 두 전문그룹에서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프로젝트 공사비를 계획하는 개념은 이미 결정된 설계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Costing a Design) 개념보다는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과정에서 최적의 공사비를 설계하는(Design to Cost) 개념의 적극적 역할⁵⁾이 중요하다. 이런 Design to Cost 개념은 단순히 주어진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요구 성능까지 함께 만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최근의 프로젝트의 진행은 전통적인 D-B-B(Design-Bid-Build) 방식과 더불어 설계와 시공이 Fast Tracking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시공 일괄발주의 형태의 총액 입찰제도에 의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기획단계와 기본설계단계에서의 타당하고 체계적인 공사비 예측은 더욱 요구된다.

그림 7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를 도식화 한 것이다.

제시된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에서 공사비 산출은 부위별 공사비 산정뿐만 아니라 기능별, 유사 프로젝트와의 공사비 분석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부위별 산출은 건물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공사비 산출에 대한 내용이며, 기능별 공사비 산출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기능실에 대한 공사비 분석은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가치공학(VE)에 이용될 수 있어 효과적인 프로젝트 공사비 계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 프로젝트와의 공사비 비교·분석은 의사결정자료 하에 금 공사비를 각 부위별로 재조정 할 경우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어 발주자가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건물의 공사비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공사비에 따른 설계를 유도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과정에서 “공사비에 맞추어 설계하는(Design to Cost)” 적극적인 개념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발주자의 명확한 프로젝트 범위를 설계자 또는 공사비 전문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문에서는 개념적이지만 설계자와 공사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공사비 관리에 가담하는

프로젝트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제시한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 상의 각 단계별 업무가 실질적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사비 산정기법 및 전산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유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사비 정보의 축적 및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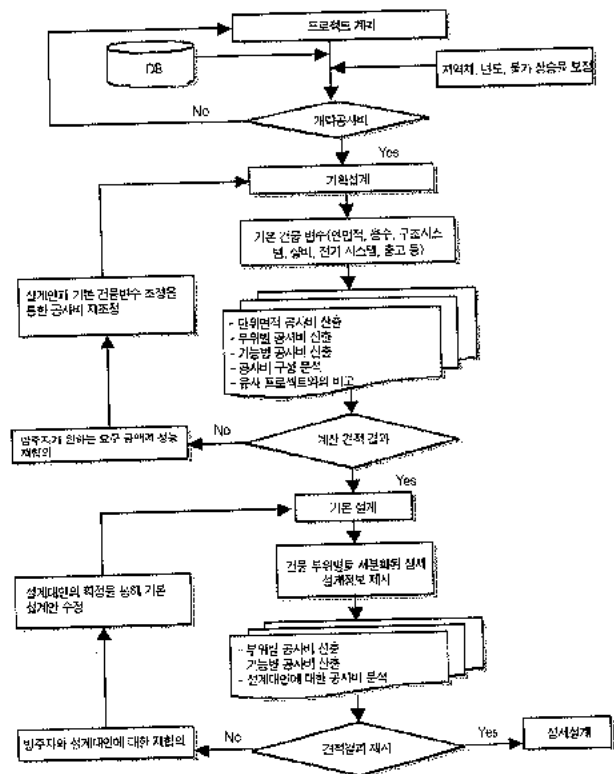


그림 7.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공사비 계획 프로세스

5) Brandon, Peter S., Cost versus Quality: a Zero Sum Gam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Vol. 2, p 111, 1984.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의 사후 품질보증 방안 Suggestions for Post-Occupancy Quality Guarantee System of Public Housings

윤혁경 / 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

by Yoon Hyuk - Kyung

마감공사의 공사감리대상 축소

공동주택의 마감공정 등 13개 공종을 공사감리 부문에서 제외키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99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되었다. 공사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종은 조경·부대시설·가시시설, 타일·돌, 도장 및 도배, 유리·가구·주방용구·위생기구와 잡공사 등 대부분 마감 공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당초 입법예고 당시에는 18개 공종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택사업자와 시공자, 공사감리자,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 13개 공종으로 축소하는 타협안으로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 대상을 축소한 이번 개정은 필자의 생각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 개정된 내용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이 준공 입주하기에는 앞으로 2~3년 이후의 일이고, 하가 등 문제의 발생시점이 3~4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흔하게 발생하는 아파트하자

한국주택신문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97년 5월부터 98년 9월까지 입주한 500세대이상의 단지 50개소를 선정, 24평에서 35평 입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자에 대한 불만사항에서 방음상태 불량(69.7%)을 하자의 으뜸으로 들고 있다. 그 다음이 도배 빛 장판(이음매, 공팡이, 들뜸 등)에 46.0%, 방과 거실의 바닥이나 미장 상태에 대하여 27.1%, 타일이 23.2%, 벽면과 천장의 결로에 대하여 20.8%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재의 품질에 대한 불만사항은 장판자의 질과 색상이 30.8%로 가장 높았고, 목재문과 문틀이 29.4%, 거실바닥의 질과 색상이 20.4%, 렌지후드와 양변기가 각각 20.2%, 욕조, 수도 및 샤워기, 조명기구, 주방기구, 싱크대, 욕실 수납장 등에 대한 불만도 각각 15%가 넘었다. 또한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못한 것(50.1%)이 첫째 원인이고, 규격미달의 자재를 사용(13.3%)하거나 미숙련공의 시공(11.7%), 형식적인 감리제도(11.5%)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마감공정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모르겠다.

감리대상 축소의 이유

국민의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느냐 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경미한 부분의 공사감리를 배제하는 대신 구조부분 등 중요한 부분의 감리를 강화시키고, 제외된 공정에 대하여는 입주자로 하여금 사용검사전 사전점검제를 통해 확인케 함으로 오히려 시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99.7.24 EBS 난상토론에서)

여기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경미한 공종의 기준은?

위에서 열거된 공종이 과연 경미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어떤 기준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파트 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공종이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하자가 발생하는 공종이다. 그 동안 감리가 있었음에도 많은 하자가 생겼는데 감리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구조나 안전분야에 대한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공수준으로 볼 때 구조적인 부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 본다. 그런 수준이라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나 주택 200만호 건립시 부실자재의 사용과 부실시공으로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불안 등의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구조부분의 시공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구조분야의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걸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사감리가 시공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책임시공 풍토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현재의 감리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볼 때 과연 감리없이 시공자의 양식에 맡겨둘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건설교통부 정책입안자들이 그런 판단을 했었다면 이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에 대한 허실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종에 대하여는 입주자들의 사전점검제를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옳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가도 아닌 입주자들이 한 두번의 현장 방문으로 잘 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다. 전문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잘못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한 두번의 현장 방문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또한 모든 입주예정자가 모든 공종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보자. 도장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페인트 가격은 그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일뿐만 아니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일반인의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시공도 마찬가지다. 바탕 고르기가 끝나면 최소 초벌·재벌·정벌 등 3번은 칠해야 하는데 한두

번 칠로 마감했을 때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양변기·세면기·욕조공사와 타일공사는 감리 제외 대상이지만 배수공사나 방수공사는 감리대상이다. 이 때 양변기나 타일공사로 방수층을 건드린 경우 감리 잘못인가? 시공자 책임인가? 어떻게 그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또한 모든 공사가 단락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옆 세대의 방수공사는 감리하고 그 옆세대의 타일공사는 못본체해야 된다는 말은 현장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발상이 아닌가 한다.

누구를 위한 감리공종 축소인가?

탈옥수 신창원을 제 때 잡지 못하여 비난을 받은 경찰들은 정말 억울했을 것이다. 신창원에 대한 비난보다 잡지 못한 경찰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신창원에 대한 비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감리자나 감독의 잘못으로 붕괴된 것인가? 아니면 시공자의 잘못이 더 큰 것인가?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 우리는 가끔 양비양시론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 이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책임은 부실시공을 하는 시공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감리자나 감독자에 대한 책임과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시공자에 대한 신뢰만 회복된다면 감리·감독은 필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시킨 이번 개정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공사감리대상 공종의 축소사태를 유발한 원인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것은 전적으로 공사감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공사감리를 했길래 감리가 있으나마나하고, 그를 핑계로 공사감리대상에서 이를 빼버렸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제대로 하였다면 감히 누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감리가 있었음에도 하자 발생률이 줄지 않았음은 무슨 연유인가? 최근 100원 낙찰이다 뭐다 해서 감리에 대한 말들이 많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다. 차리리 그릴바에야 감리를 폐지하고 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창과 방패 - 감리자와 시공자의 숙명

근본적인 빌미를 제공한 이유는 현장의 감리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나는 시공자마다 도대체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제때에 현장확

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작은 일에 트집을 잡고, 불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등 불만이 한둘이 아니다. 시간이 돈이 시공자의 입장에선 원리원칙만 요구하는 감리자가 결코 달가울리가 없다. 좋은 건축물을 향한 목표는 같을지 몰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창과 방패처럼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싸움과 타협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책임미흡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이 현재로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하자보수라는 물리적인 보완책이 있지만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은 영업정지나 행정처벌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적어도 입주자를 대신하여 품질을 확보하는데 책임을 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민사소송 이외의 어떤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공사시간과 연관 없는 감리자의 근무시간

공사감리자의 근무시간은 짧고 넓어가야 할 문제이다. 보통 공사는 07:00에서 20:00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공사감리자는 09:00에서 18:00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장 여건상 돌팔공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아닌가?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은 공사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사감리자 없는 공사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부자를 비롯하여 시공자와 감리자 간에 따로 해결할 문제이다.

공사감리원의 자질

공사감리자의 경험부족과 실력저하에 대한 불만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 설계나 시공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믿고 감리에 임한다면 문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덤핑낙찰은 고급인력 사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저임금의 감리원이 훌륭한 감리원일 수는 없다. 공사감리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공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시공자의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부이지만 몇 사람들이 그 힘을 빌어 공사를 지체시킨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많은 시공자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물론 그 중엔 정당한 요구사항마저도 시공자의 입장에선 트집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사감리비

개정 이유중의 하나가 입주자의 감리비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것인데 감리비 부담을 줄인 만큼 과연 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줄인 감리비만큼 분양가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사비내역서가 공개되지 아니한 현재의 풍토에선 이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사감리비는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가 부담한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나 공사시공자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사감리자는 입주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도 시공자가 아닌 입주자이어야 한다. 결국 공사감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입주자의 선택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에 입주자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통제하던 시절, 감리비는 사업주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분양가가 자율화된 지금 감리비의 많고 적음은 사업주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근래 수억원의 감리비를 1원에 낙찰된 경우 과연 그 차액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것인지 모르겠다. 85m²(25.7평)의 1세대분 감리비가 대략 150만원이라고 본다면 이번 감리대상에서 배제된 13개 공종의 해당 감리비가 약 40~50만원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억대가 넘는 아파트에 40~50만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리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다.

공사감리제도의 존속에 대한 물음과 향후 개선 방안

현재의 감리행태가 지속된다면 공사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감리제도는 존속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감리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고 싶다. 앞으로 개선되어 지지 않으면 안될 다음의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굳이 공사감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PL법(제조물책임법)과 무하자 증명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밝혀야 할 문제이다. 그들이 하자없이 제품을 생산

했음을 증명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생산자의 과실로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건축물의 하자도 마찬가지다. 부실시공이 원인인지, 정상적인 시공임에도 예기치 못하여 생긴 과실인지, 아니면 입주자의 사용상 하자인지를 건축의 문외한인 입주자들로 하여금 증명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경우도 전문가인 시공자측에서 무하자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당연히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공산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하자 증명제도인 제조물 책임법이 그동안 몇 년간 미루어 오다 2000년 1월에 제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쉬운 것은 제조업자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2002년부터 시행한다는 점과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주택사업자들은 스스로 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신선하기 그지없다. 2000년 3월에 분양하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프라임빌 아파트(36~84평형, 1,351가구)에 대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분양목록내용과 실제 아파트가 차이가 날 경우 입주 여섯 달이 지나고 한달 안에 리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분양제도의 도입

현재의 사전분양제도는 입주자의 선택권이 없다. 더구나 추첨으로 아파트 입주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금자의 횡포일 뿐이다. 모델 하우스만으로 분양하는 것은 사기행위와 다름없다. 더구나 공사비를 공사기간 내내 입주자가 선 부담하면서도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후분양제도를 한시 바빠 도입하는 일이다. 몇 십만원 안팎의 냉장고를 구입할 때도 확인하고 신중을 기하는데 억대가 넘는 아파트를 물건도 보지 않고 선금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자와 부실시공의 구분

하자라 함은 제품의 흠을 말한다. 흠은 정상적인 일련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길 수도 있고, 당초부터 비정상적인 방법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이 두가지 모두를 하자라 한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도입된 하자보증제도는 전자의 경우처럼 설계와 시방서 대로 정상적인 시공을 하였지만 예기치 못한 흠(숨어 있는 흠)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사후 보장적인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부실시공은 하자보

증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위반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약위반임으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철근량을 줄였다는가, KS 1급 타일을 저급한 타일로 사용한 경우, 미장 두께를 고의적으로 얇게 시공하거나 페인트칠의 회수를 줄여 시공한 경우, 거푸집 존치기간을 무시하고 빨리 제거하는 등 설계와 시방을 무시하고 시공함을 이유로 발생하는 흠은 하자보증 대상이 아니라 계약위반행위로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하자보증제도의 도입

현재의 하자보증제도는 문제가 많다. 하자의 발생에서부터 하자의 판정, 하자보수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다. 하자인정에 대한 신경전은 물론이고, 하자보수의 신속성, 하자보수의 수준에 대한 불만 등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뿐만 아니라 보수기간 동안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문제도 적은 일이다. 이러한 불편을 하자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서 입주자와 시공자와의 감정 대립을 막고 보험사와 입주자간에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자과 부실에 대한 판정은 보험사와 시공자간에 다투면 될 문제이고, 입주자 입장에서선 보수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사의 신뢰도에 따라 보험금액에 차등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고, 시공사는 성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하자과 부실을 구분한다면 시공성의 확보는 훨씬 쉬워지기도 모른다.

시방서와 공사내역서의 공개

공사금액의 결정은 내역서에 의한다. 공사 감독이나 공사감리 또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의한다. 어떤 재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 시공하는가를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이들 공개하게끔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시민연대가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사비와 사업비 내역서 공개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공개토록 판결하였다는 사건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시공이 가능하고, 공개적인 검정을 받음으로 부실시공은 상당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공사와 관련된 제반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도 신설해야 한다. 건축물 건축물의 하자보증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보관토록 해야 한다. 향후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1)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연재목차〉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세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고대 중국인의 자연을 향한 끝없는 탐색은 원림¹⁾이라고 하는 건축유형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우선 장소의 선택과 개발방식에 따라 인공산수원(人工山水園)과 자연산수원(自然山水園)으로 대별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원림(北方園林), 장강(長江) 하류를 중심으로 한 강남원림(江南園林), 주강(珠江)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원림(嶺南園林)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사용자의 주체에 따라 황가원림(皇家園林)(사진1), 사가원림(私家園林)(사진2), 사사원림(寺刹園林)(사진3)²⁾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원림의 형태에 따라서 기하학적인 원림, 자연풍경식 원림, 그리고 이 둘의 형태가 혼재된 혼합식 원림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고전 원림건축은 다른 어떤 건축유형에 비하여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윤리관, 우주관, 자연관, 심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며,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 기원전 11세기경에 처음으로 출현하여 20세기의 초반까지 무려 3천여년에 걸쳐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고전 원림건축이 추구한 것은 자연에 대한 현세에서의 재현,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능가하

1) 원림이란 단어는 서진(西晉) 시기의 시문에서 처음으로 보이며 당대(唐代)의 시인들 역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시대부, 풍인 등과 같은 개인에 의해 조성된택원(宅園)을 지칭하는 의미로서의 원림은 영말의 유명한 조원가인 계성(計成)의 저서 '원아(園冶)'라는 책이 나오기 전 이후의 일이다('중국조원사', 정가원, 명문출판사, 1991년, 11쪽).

2) 학자에 따라서는 사사원림을 사관원림(寺觀園林) 또는 사묘원림(寺廟園林)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는 초자연적인 인위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있었으며 그 조영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에 근원을 두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견지

둘째, 건축물의 다양한 형상을 통해 표출되는 건축미를 적극적인 조경의 수단으로 전환

셋째, 풍부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기능의 활동을 만족시키는 공간의 조합방식

넷째, 시·서·화(詩·書·畫)의 예술적 의미가 농후한 입체적인 시정화(詩情畫意)의 표현

다섯째, 마음으로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은밀한 방식의 우의와 상징적 기법을 이용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어느 한 시기에 모두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며 장기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그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³⁾

1.1 원림건축의 생성기-선진, 양한(B.C.11세기-A.D.220년)

이 시기는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탄생되어 점차 성장해 가는 맹아기이자 유년기로서 노예사회 말기와 봉건사회 초기에 해당하는 하, 은, 주, 진, 한의 5개 왕조에 걸친 1천 2백 여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당시 사회의 주요한 변화 상황으로는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고 지역의 귀족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던 채읍제(采邑制)가 중앙집권적인 군현제(郡縣制)로 대체되고 유학이 점차 정통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지주노동의 경제를 기초로 하는 봉건 대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황가의 원림은 규모가 광대하고 기개 있게 만들어져 이 시기 원림조영활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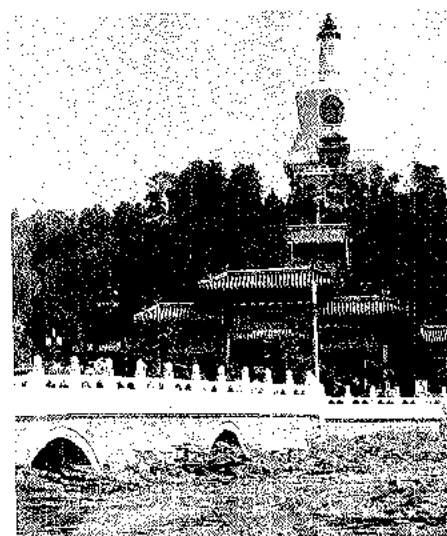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원림의 기원은 과일나무와 채소 등을 심는 원(園)과 포(圃), 금수를 기르던 원(苑)과 유(囿)에서 비롯되었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글자에 이미

3)일반적으로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시대구분은 왕조와 별칭을 따르고 있으나 여기서는 중화대학 건축학원 謝稚暉 교수의 저서인 「중국고전원림사」(청화대학출판사, 1993년)에 서술된 견해를 취했다.

원림의 생산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先秦), 양한(兩漢) 시기의 원림건축은 아직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유형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조영활동의 주류는 황가원림에 있었다. 사가원림은 문헌의 기록에는 보이고 있지만 수량이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황가원림의 규모와 내용을 모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유형의 원림건축 사이에는 유형상의 명확한 차이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원림건축의 기능도 초기의 수렵, 통신(通神), 구선(求仙), 생산 위주에서 점차 후대에 보이는 휴식과 오락, 관상(觀賞)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은 자연환경 속에 소략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3대 요소인 산과, 물, 식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시적인 산천송배, 제향의 봉선활동(封禪活動), 신선사상 등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대자연에 여전한 신비로운 존재로 남겨 두고 있었으며 완전히 자각된 심미의식을 구축하지 못한 채 객관적으로 관조하는데 머물렀다. 따라서 원림의 총체적인 경영이 일정한 계획하에 설계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으며 예술적인 창작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1.2 원림건축의 전환기-위, 진, 남북조(A.D.200년-A.D.589년)

위진 남북조 시기는 중국 역사상 일대 혼란기였으며 사상계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사상의 해방은 예술 영역의 개혁을 촉진 시켰으며 원림건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원활동은 점차 민간으로 보급되었고 예술적인 창작의 경지로 승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사진1)
북경의 북해궁
원 영안사 입구
와 박합의 전경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전시대의 업적을 계승하여 후대를 계발(承先啓後)시킨 하나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369년에 걸친 위, 진, 남북조 시기의 혼란기에는 자연미를 핵심으로 하는 미학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자연을 재현하고 자연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자연산수의 모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적절히 개괄하고 추상화하며 전형화함으로써 자연에 근원을 두되 자연을 능가하는 방향으로 조원의 방향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종전의 원림이 가지고 있던 수렵과 통신(通神), 구선(求仙) 등의 기능은 점차 소멸되고 상징적으로만 남게 되었으며 유람과 관상활동(觀賞活動)이 유일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람과 관상의 주요내용은 경관의미를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이었지만 아직은 단순하고 조잡한 상태였다. 또한 사가원림이 하나의 독립적인 원림건축의 유형으로 등장하여 이 시대 조원활동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사가원림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부와 신비로움을 경쟁하는 귀족과 관료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은일을 표현하고 자연의 정서를 추구하는 문인과 명사들의 경향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이후에 문인원림의 기원이 되었다. 황가원림에도 변화가 생겨 총체적인 도성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그 결과 황가원림은 도시 중심부의 유기적인 조성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사원림의 출현은 원림건축 영역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풍경이 수려한 지역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때 이후부터 중국 고전 원림건축은 황가, 사가, 사사원림이라고 하는 3가지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건축물도



(사진2)
소주의 망사원. 소박한 벽면위에 간결한 문. 시의가 잘 드러나 있다.

조원의 요소로 작용하여 다른 자연환경의 요소와 더불어 긴밀한 조화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원림건축의 계획 역시 종전의 초보적인 조잡한 단계에서 비교적 정제되고 정교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보다 자각적인 원림건축의 설계경영은 예술창작의 단계로 향상되었다.

그 결과 위, 진, 남북조 시기에는 앞서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언급한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5가지 특징 가운데 '자연에 근원을 두되 자연을 초월하고', '건축미와 자연미가 서로 융화' 되는 2가지 특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뒤를 이어 등장하는 수, 당의 원림건축이 전성기로 진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3 원림건축의 전성기-수, 당(A.D.589년-A.D.960년)

수, 당 시기의 원림건축은 전 시대의 풍경식 원림예술의 기초 위에서 봉건 사회의 경제와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전성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황가원림의 경우 황실의 권위와 존엄성이 완전히 기틀을 잡아 원림건축의 규모, 전체적인 배치, 세부적인 설계에 이같은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왔다. 그것은 궁궐계획의 원비, 황제의 다양한 활동, 원림 내의 거주 등과 직접 관계가 있다. 아울러 황권을 핵심으로 하는 집권정치의 공고함, 봉건 경제와 문화의 번영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 결과 황가원림은 전 시대에 비하여 다른 원림건축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당시 시대적인 의의를 내포한 원림건축으로는 서원(西苑), 화청궁(華淸宮), 구성궁(九成宮) 등을 들 수 있다.

사가원림의 경우는 그 예술성이 전대에 비하여 더욱 승화되어 원림경물(園林景物)의 전형적인 성격 및 세부의 치밀한 처리 수법에 유념하였다. 시문(詩文)과 회화(繪畵)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유(王維)이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생동감 있게 산과 들, 전원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였으며 그림에서도 동일한 기질로 시의 의미를 갖추고 있었다. 중당(中唐) 이후, 왕유, 백거이, 두보 등의 문인들은 모두 원림건축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망천집(輞川集)』에서 망천별업을 묘사한 내용으로 보면 시와 그림의 정취가 원림의 산수경물에 부여되었으며 그림이 경관이 되고 시가 원림건축에 이입되는 수법은 이미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결국 산수경물을 통하여 유람자의 연상활동을 유발시켰고 의경(意境)⁴⁾의 형상화 역시 몽롱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또한 유가의 현실주의적 정취, 도가의 과욕과 신흥

불가의 선종이 추구한 자성에 의한 해탈 등 이 3가지가 지식인의 조원사상에 융합되어 독특한 원림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가원림의 창작과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송대와 명대의 문인원림을 이루게 되는 계몽적인 역할을 했다.

사사원림의 보급은 종교의 속세화로 나타난 결과로서 종교와 종교건축의 속세화를 촉진하였다. 도시에 자리잡은 이러한 건축유형은 대중들의 사교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으며 내부에 조성된 원림 역시 공공적인 성격을 띠었다. 또한 교외의 산간지역에 조성된 사사원림은 종교활동의 장소를 풍경장식의 수단으로 전환시켜 참배객과 여행객을 끌어들이므로 원시적인 여행지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조를 하였다. 종교건축과 풍경건축은 더욱 차원 높은 수준에서 결합하여 산악명승지가 보편적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는 산수화와 시문이 원림건축과 결합됨으로써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시정화(詩情畵意)의 특징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직 의경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정교한 예술경영에 있어서 휘황찬란한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같은 전성기의 발전추세는 송대까지 지속되어 결국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였다.

1.4 원림건축의 성숙기 전가·송, 원, 명, 청초(A.D.960년~A.D.1736년)

북송에서부터 청대雍正年間까지의 7백여 년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당대(唐代)의 전성기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발전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가, 황가, 사사 등 원림건축의 3대 유형이 비로서 풍경식 원림건축의 특징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특징 또한 전면적이고 명확히 조원활동에 나타났다. 그밖에 문인원림이 당대의 계몽기를 거쳐 남, 북송대에 흥기하였으며 명대와 청대 초기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다. 원림건축의 한 풍격으로서 그것은 원림건축의 특징을 확장시키는 한편

4) 의경은 중국 예술창작과 감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미학의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주관적 이념, 감정이고 강론 객관적 생활과 경유이다. 의경은 예술창작에서 서로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창작자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인 생활과 경유 속에 용해시켜 감성적의 유사한 감정의 격동과 이념의 연상을 일으키게 한다.

발전의 정도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원림의 창작방법도 점차 사의(寫意)를 향해 전환되었다. 북송대에는 당대의 사실(寫實)과 사의(寫意)가 서로 결합된 전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간악기(艮岳記)』나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의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이다. 남송의 문인화가 화단에 출현하여 사람들의 심미관을 사의의 화풍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심미관도 원림건축의 창작, 특히나 문인원림의 창작에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게다가 '소중견대(小中見大)', '수미개자(須彌芥子)', '호중천지(壺中天地)' 등과 같은 미학관념의 영향으로 사의원림의 흥기에 일정한 촉진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원, 명의 문인화가 극성을 이루면서 몇 개의 화단 세력이 원림건축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의적 창작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정교한 돌쌓기 기술(疊石)은 원림건축 내에 보편적으로 가산을 만들게 하였으며 사의원림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적 조건이 되었다.

황가원림은 우선 사가원림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점차 민간의 조원기술을 흡수하여 황실의 기백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경향은 명대 이후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날로 발전하면서 성숙기 후기에 이르러 황가원림 경영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문인원림은 사가원림의 예술적 최고봉으로서 강남원림을 대표로 한다. 특히 송대와 명대이후 봉건사회 내부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면서 상공업이 번영하고 시민문화가 발흥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의 원림건축도 따라서 융성하였다. 사회적인 역량이 사가원림에 침투하여 문인원림의 다양한 형식이 출현하였다. 민간의 조원활동도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으며 각지역의 인문조건과 자연조건이 서로 결합하여 지방의 풍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향토원림이 탄생되었다. 불교에서 선종의 발달은 사찰의 7당가람제를 확립하고 불교건축이 완전히 중국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선종과 유학의 결합은 승도(僧道)의 문인화(文人化) 경향을 낳아 사사원림의 세속화를 촉진하는 한편 문인원림의 요소 가운데 절대 다수의 부분이 사찰의 조원활동에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사원림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공공적인 원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명말 청대 초,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여 민간의 조원활동이 번성했던 강남지역에는 걸출한 조원가들이 출현하였다. 일부는 문인계층이었으며 가산을 만드는 전문적

인 장인도 등장하였다. 문인 가운데는 전문적이 조원가도 있었다. 그리고 풍부한 조원경험이 부단히 누적되어 이론적인 저술도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성이 쓴 『원아(園冶)』라고 하는 책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례없던 일로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조원가가 출현하고 전문적인 조원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 개인적인 풍격의 원림창작이 발전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가산을 만드는 기술이 두드러졌다.

한편, 송대에는 불교의 선종이 일본에 전래되어 중국의 조원예술이 당대 이후 또다시 일본에 영향을 주어 일본선종원림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명말 청초에는 다수의 사신과 강남의 문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감으로써 일본의 막부시대에 성행한 회유식(回遊式) 정원에 강남 지역 사가원림의 풍격이 반영되었다.

1.5 원림건축의 성숙기 후기-청중엽, 말기(A.D.1736년-A.D.1911년)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발전사로 볼 때 건륭 연간부터 청대말기까지의 2백여년간은 근, 현대로 전환되는 급변하는 시기였으며 일종의 종결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원림건축은 전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휘황찬란한 성과를 이루었다. 동시에 봉건문화가 무르익어 말기의 쇠퇴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존하는 원림건축의 대부분은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황가원림은 우여곡절을 거쳐 건륭, 가경 양대에 이르러 규모나 예술적 조예로 볼 때 역대 최고봉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대형원림의 마스터 플랜과 설계는 참신한 요소들이 다수 나타났으며 강남의 민간에서 조영된 조원원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남북지역의 원림풍격이 크게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840년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한 근대화 시기 이후에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민간의 사가원림은 지속적으로 전 시대의 기술을 이어받아 강남, 북방, 영남 등 세지역의 지방풍격이 서로 정립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소수민족 가운데는 장족의 원림건축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각 지역의 인문, 자연적인 조건은 향토색이 농후한 특색있는 원림건축을 만들어냈다. 한족 지역과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문인원림의 풍격이 성행하기는 하였으나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 더 이상 송, 명시기와 같은 생명력 있는 모습을 재현하지 못했다.

원림건축의 성격도 다소간의 변화가 생겼다. 궁중과 민간의 원림 내에서의 활동은 원림건축이 마음으로 감상하고 눈으로 희열을 느끼며 인격수양 위주의 유람과 휴식의 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의 활동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봉건시대 말기에 나타나는 과도한 형식과 기교의 추구는 원림건축내에 건축물의 밀도를 크게 높였으며 산석(山石)의 사용량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원림내에서 건축물의 조경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가산의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원림건축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약화시켜 형식주의에 흐르게 하였으며 동경식 원림의 본 뜻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론적인 탐색도 정체상태에 빠져 전 시대와 같은 이론저술은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 계통적으로 총괄하여 과학적인 이론으로 승화하지 못했으며 문인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조원활동의 창조성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 내외의 상황변화와 더불어 서양 원림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건륭연간에는 원명원 안에 서양식의 건축물과 분수등을 갖춘 서양황궁의 정원양식이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대외무역이 이루어지던 상업도시에는 사가원림 주인의 취향과 호기심에 따라 이국적인 풍격의 원림요소가 대량으로 침투해 들어왔으며 동남연해 지역의 도시에서는 다수의 화교들이 낮은 이국에서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돌아와 저택과 원림을 지었는데 대개는 서양의 풍격을 모방한 것들이었다. 17, 8세기에는 중국에 왔던 서양의 상인과 선교사들에 의하여 중국의 문화가 서양의 궁정과 귀족 사이에 일시적으로 성행하는 중국풍의 열기가 일기도 했다. 이것을 양식적으로는 시노와즈리라고 부른다.



(사진3)
북경의 대각사 후원.
자연의 돌을 이용한 바닥과
가산이 혼연일체되어 있다.

협회소식 / 75

추모 / 76

건축계소식 / 77

법령 / 85

해외잡지동향 / 93

계획작품 / 99

회원현황 / 10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4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5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5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건축신고 범위확대 반대성명서 게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문안 수정 및 광고시기 등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2호의안: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협회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축자재 DB 구축사업과 관련한 웹서버의 용량부족으로 데이터 입력이 불가능하여 웹서버를 추가로 구입(11,000,000원)코자 예비비 사용)
- 제3호의안: 건설기술자 연회비 및 경력증명 발급수수료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연회비는 20%, 증명발급수수료는 경력증명서와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는 33%, 보유증명서는 43%를 각각 인하함.)
- 제4호의안: 추대회원 추대 추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제34회 정기총회

시 보고시 누락된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추대회원 강중희의 6명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추대함.)

- 제5호의안: 경북건축사회 사무국장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정주영 경북건축사회 사무국장 정년퇴직에 따라 공로패 수여)
- 제6호의안: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윤준섭 상근부회장 유임)
- 제7호의안: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승인의 건
- 원안중 일부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안건〉

- 제1호: 2000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협의
-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함.

건축사예비시험 실시

지난 5월 14일, 3,373명 응시

건축사예비시험이 지난 5월 14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홍익대학교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출원자 4,728명 중 3,373명이 응시해 71.3%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이는 작년 응시자 3,610(응시율 75.2%)보다는 237명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시험은 오는 9월 3일 실시될 예정이다.

姜明求 전임회장 별세

지난 5월 3일, 향년 84세로

우리 협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한 강명구 전임회장이 지난 5월 3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 강명구 전임회장은 평생동안 건축계에 몸담아 오면서 건축인 후학양성과 권익신장 등 건축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건축사이다. 또한 누구보다 건축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고인은 건축이론에 바탕을 둔 작품활동을 통해 건축의 질적향상은 물론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여러 업적들을 남겼다. 한편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많은 후학과 건축계 관련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 했다. 시신은 경기도 파주 낙원공원에 안장됐다.

◇ 주요약력

1917. 2. 22. 서울 출생
1940 일본 와세다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1955~1969 홍익대 건축과 교수
1959 국회의사당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
1965 강명구건축사사무소 개설
1968~1969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1969~1970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971~1981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
1956~1970 대한민국전람회건축부분심의위원
1972 문공부장관 표창

1982~198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시설전문위원, 서울지하철공사 자문위원,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 전시자문위원, 제3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위원장

1984~199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다 자영

◇ 주요작품

한국전력공사 별관 / 주택공사 마포아파트 / 부산지방해무청사 / 부산지방검찰청 / 신당동 주택 / 서울대 농대 기숙사·대식당 / 종로2가 계영빌딩 /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故 강명구 전임회장

故 강명구 선생의 영전에 부쳐

삼가 故 강명구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애적(哀戚)의 정성(精誠)을 영전에 드립니다. 인간 일대의 공과(功過)는 관을 덮고 서야 이야기된다 했거늘 돌아켜 보건데 선생의 일생은 건축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생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을 오로지 건축의길을 걸으셨습니다. 일찍이 교육계에 투신하시어 많은 대학의 강단에 계셨으며, 특히 홍익대학 건축과에 10년 이상 재직하시면서 이 나라 태동기 건축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수학 이후 명동에 사무소를 개설하시고 건축설계와 더불어 인테리어디자인을 하시면서 그 이론서인 의장론을 국내 최초로 저술하시므로써 실내건축의 태두가 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도 곡선보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별관, 이승만박사 제주별장, 목조트러스를 이용한 황명순고아원 등은 주옥같은 작품들입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본협회 회장직 등을 역임하시면서 건축계의 원로로서 오늘의 본협회가 있기까지 개척자적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가협회부회장, 예총 등 여러 단체에 관여하시면서 초창기 한국건축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여명기에 태어나서 암흑과 수난의 시대를 거쳐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선생의 일생은 한국 근대건축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며,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몸바쳐 오신 반세기 동안의 그 업적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선생이시여!

선생을 존경해 온 많은 그리움들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된 우리들의 사정(私情)일 뿐입니다. 군자의 죽음은 휴식이요, 소인의 죽음은 굴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야말로 천명(天命)을 다하시고 이제 휴식에 들으셨으니 선생의 휴식 위에 참연한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재천의 영령들도 선생의 가심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만곡(萬斛)의 눈물로써 선생을 장송(葬送)하는 가권(家眷)과 애도(哀悼)의 지정(至情)을 굽어살피고, 이승의 짧은 역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빛나는 생애였음을 회상하고 명목(瞑目)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선생의 육신은 속세에서 타계하셨습니다만, 선생의 영혼과 정신은 우리 건축사 모두의 가슴과 우리 나라 건축계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동장(同掌)하여 비나니 선생의 휴식이여 길이 평안하소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의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

건축법규 예비시험에 추가,
자격시험은 배치계획과 건축설계 2과
목으로

내년부터 현행 건축사자격시험과목인 건축법규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추가되고, 건축사자격시험과목은 배치계획과 건축설계 등 2과목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건축사의 설계능력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건축사예비시험과 자격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사의 건축설계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단순 암기과목인 건축법규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전환하고, 실무능력평가에 적합한 배치계획을 자격시험에 신설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응시원서와 함께 요구해온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합격예정자에 한해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건축사 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정했다. (본지 85쪽 참조)

센트랄 글라스 국제설계경기

7월 21일 마감

일본의 센트랄 글라스사(社)의 주최와 신건축사(社)의 후원으로 '유리로 만든 작은 공공공간'이라는 재미있는 주제의 국제설계경기가 열린다. 아이디어를 완전하게 발전시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순한 프리핸드 스케치나 캐드도면보다는 좀더 다양한 표현 방식과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입상작은 2001년 1월 22일 ~ 2월 2일 일본의 신건축관(新建築館)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 제출 : 7월 21일까지 (등록 필요없음, 별도의 질의응답 받지 않음)

- 응모규정

• 제출도면 :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축척 자유),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기타 설계의도를 표현하는 그림이나 설명문(200자 내외) 등은 자유.

• 종이 : 쉐트지나 그와 유사한 두꺼운 종이(600×840mm) 1장에 제출도면 및 설명문을 담아야 함. 청사진, 연필, 잉크, 채색, 사진부착 등은 자유이나 패널로 만들지 말 것.

- 응모방법 : 응모작품 뒷면에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한 종이 부착할 것.

- 결과 발표 : 일본 월간지 「新建築」 2000년 11월호, 계간지 「JA40호」에서 발표.

- 시상 : 최우수상(1) 200만엔 및 기념품 / 우수상(3) 각 30만엔 및 기념품 / 입선(약간) 각 10만엔 및 기념품

- 제출처 : Central Glass International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2000 Shinkenchiku-sha Co., Ltd. 2-31-2 Yushima Bunkyo-ku, Tokyo 113-8501, Japan

- 문의전화 : +81-33-811-7101
gmdd@cgco.co.jp

<http://www.cgco.co.jp/kyougi/index.html>

제18회 공간학생건축상

'DIGITOWN' 주제로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공간학생건축상이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주제는 'Digitown'이며, 국내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으로 전공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다. 3인 이하의 팀별 참가도 가능하다. 작품접수는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CD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심사는 류춘수(이공건축 대표), 조택현(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서해천(공간건축 소장) 씨가 맡는다.

문의: 02-7747-2892,3

spacem@unitel.co.kr

류춘수 「건축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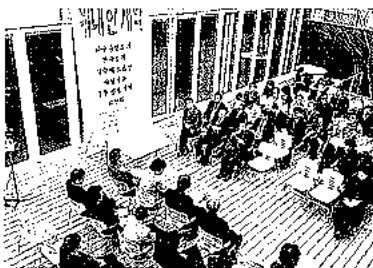
6월 16일 오후 6시부터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류춘수건축의 양날의 칼(전통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6월 1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원정수·지순, 유결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고전적인 어법과 현대적 구조를 결합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춘 건축가 류춘수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문의 : 건축세계사(02-422-7392)

파주출판도시 건축총괄 코디네이터 승효상

위대한 계약 체결



승효상(이로재건축)소장이 파주출판문화단지 건축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파주출판도시는 자매격인 인근의 헤이리아트밸리와 함께 대안적 공동체, 새로운 삶의 공간을 모색하며 추진중인 문화타운건설 프로젝트로 오는 10월 2차지구 건설에 착공, 2002년 중반기에는 전체의 70%가량이 완공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에 미만해 있는 건축의 현오나 출판의 불신을 씻어내고 이 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시 말해,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 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형태·시설양식이 서로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나 입주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과 협동성의 가치를 추구하되, 개체의 특성과 가치와 이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데 그 큰 뜻을 두자는 것이다. 일함에 있어서는 물자와 시간을 아끼며, 일하는 아들끼리의 건

필 예정이다. 이는 대단위 공동건축의 경험이 부족한 국내 건축계에 의미있는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건축가들이 집단으로 참여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세계 건축계의 비상한 관심도 끌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0여명의 외국건축가를 포함하여 총 40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하는데, 섹터아키텍트를 중심으로 파트너아키텍트가 같이 작업하게 된다. 전체 건축을 총괄할 건축가 승효상(이로재건축)외에 김인철(아르키움), 김 원(광장건축), 이일훈(후리건축), 민현식(기오현),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김영섭(건축문화), 정기용(기용건축), 이종호(메타건축) 등이 섹터 아키텍트로 참여하고, 서해람(힘마건축), 김영준(이로재), 승효상(이로재), 김중규(한국예술종합학교), 김병현(장건축), 최 욱(최욱건축연구소), 김광수(팀반건축), 양남철

강과 우정을 두터이 하며, 거친 건설현장과 대규모 이주에 따른 위험이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꿈과 예절과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의 동네로 꾸미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설계되고 운영될 터이므로, 생태이념에 대한 설계자-시공자-입주자들의 의식의 연대를 다시금 다짐한다.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중히 서약하면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좋은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받아들여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한다.

(MA건축), 김 현(메타건축) 등이 파트너아키텍트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출판문화정보사업단지 인포룸에서는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를 위한 시범지구 공동설계계약 조인식'이 열렸다. 민선주(위가건축) 건설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조인식에서는 '위대한 계약서'라 이름붙여진 계약서에 출판인 대표 이기웅(출판문화단지이사장)사장과 건축가 대표 승효상(이로재건축)소장이 각각 서명하고, 나머지 건축가와 출판인들도 돌아가며 위대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위대한 계약서에는 '건축가와 출판인의 신뢰, 존중', '새로운 건축문화창출' 등이 명기돼 있고, 특히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쓰여져 있다. 계약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입주자들의 기업적·생산적 현실을 심도있게 궁구하여, 그들이 이곳에서 경제적·문화적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는데 정성을 다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우리 출판도시에서 새롭게 창출되도록 전력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 출판인 대표와 건축가 대표는 서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출판문화와 건축문화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이름한다. 이 위대한 계약서'는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 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해, 출판인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승효상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기업 대표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 서약한다.

2000 건축사진 워크숍

한국건축사진가협회에서
6월 20일까지 접수

한국건축사진가협회(회장 임정익)에서 주최하는 건축사진 워크숍이 6월 29일(목)부터 7월 1일(토)까지 3일간 서울 충무로 SAPPAS사진교육원(구 KAPA)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건축사진워크숍은 건축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및 사진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건축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 대상으로 한다. 건축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진의 실제적인 이론강의와 실가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건축에서의 사진의 역할과 사진매체를 통한 표현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최된다. 참가비는 12만원이며, 신청마감은 6월 20일(화)까지다. 문의: 한국건축사진가협회 02-566-3090

이인미 사진전, 「자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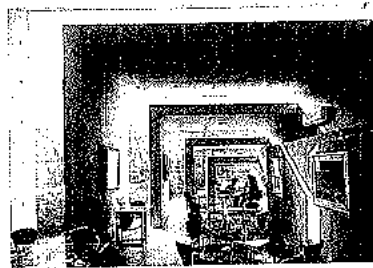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청에서 6월 10일까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전문사진가 이인미씨가 사진전을 연다. 부산 금정구청 건축과 주최로 열리는 이번 이인미 사진전은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금정구청에서 자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6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사진전은 전통건축에서 자연과 건축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러한 모습들이 사진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은 지금에 와서도 어떤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지, 그

리고 건축이 자연을 어떻게 끌어들이고자 했는지를 사진에 담고 있다. 문의: 051-464-4115

김인철作「김옥길기념관」, 아시아 태평양 문화건축디자인상 수상

본상(Honorable Mentions)에 선정



올해 아시아태평양문화건축디자인상(The 2000 Kenneth F. Brown Asia Pacific Culture & Architecture Design Award)에 김인철회원이 설계한 「김옥길기념관」이 본상(Honorable Mentions)에 선정됐다. 1998년 완공된 이 작품은 김동갈박사 한 개인의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기념관으로 한국건축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건축물로 심사를 맡았던 케네스 브라운(Kenneth Brown)은 비좁은 도시적 맥락 안에서 그 기념비적 성격을 조각적이면서도 영감이 있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한 프로젝트로 이 작품을 평가하였다.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와 하와이대 건축학교가 후원하는 이 상은 1995년 제정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상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1월 사이에 완공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 작품을 접수받아 4월 15일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본상 4점을 선정한 것이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2001년 하와이 건축대학에서 동서양

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제4회 아태지역 국제건축심포지엄에 기조연사로 초청될 예정이다.

2000년도 제1회 사이버건축대상

접수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축전문 인터넷방송 아키TV에서는 2000년 제1회 사이버건축대상을 개최한다. '우리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독도의 역사가 반영된 건축'을 주제로 대상자는 독도를 포함하여 독도를 관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심사는 백문기, 김병운, 이정호, 최동규, 김익중, 서보광, 민선주, 김홍일 씨가 맡는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대학원), 전문대학 건축 및 조경, 미술, 환경, 조경 등 관련학과 재학생 및 건축 신인으로 단독작품(1팀 1인만 가능)만 가능하다.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전화 사전 접수(372-7732) 후 응모 가능
- * 신청서 접수는 2000년 7월 1일- 8월 31일 3:00pm
- 인터넷으로만 가능(직접 내사 불가)
- * 작품접수마감은 2000년 9월 1일 작품접수 또한 인터넷으로만 가능(직접 내사 불가)
- 발표: 2000년 10월 중 인터넷방송 아키TV archi.or.kr에 발표
- 시상: 2000년 11월 10일(예정)
- 수상작전시: 2000년 11월 1일-14일(예정)
- 제출요강: 설계개념, 평단면 구성, 조형의도 등을 판독할 수 있는 도면으로 도면 표현은 자유. 단, 작품접수시 전체 용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작품설명서를 포함하여

1. 43M로 1개의 디스켓 용량으로 제한.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불어로 제한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시 신청시 교부받은 접수번호와 ID, PW를 확인
- 제출작품: 응모작품은 미발표된 창의적인 작품이어야 함.
- 제출처: 건축전문 인터넷방송 비평 건축 archi.or.kr의 사이버건축대상 사무국 내 Cgi
- 제2회 주제 예고: 친환경 건축(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

제2회 전국대학(원)생 건축 도시 그래픽 및 사진 공모전

6월 2일까지 접수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에서는 특성화 기념으로 천년의 건축, 천년의 도시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 제2회 전국대학(원)생 건축도시 컴퓨터그래픽 공모전 및 제1회 전국대학(원)생 건축 도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지나온 밀레니엄을 회고하기 위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시각적체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순수 창작품만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 다양한 표현기법의 활용 등을 심사한다. 참가접수 및 제출마감은 6월 2일(금)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6월 7일(수)에 한다. 문의: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사무실(042-829-7610), <http://maus.mokwon.ac.kr>

인터넷방송 아키TV 개국 기념 강좌

6월 18일부터

인터넷방송 아키TV archi.or.kr에서는 개국 기념행사를 갖는다.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작가 자신이 소개하는 내용을 답사 전 방영한다. 반드시 사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선착순 15명으로 제한한다.

1부		
일정	작가	비고
2000/ 6/18	승효상	현장 비평
7/9	이종상	"
8/20	조건영	"
9/17	최동규	"
10/22	김수근, 김중업	"
2부		
일정	작가	비고
11/19	최정화	LECTURE
12/17	김개천	"
2001/1/21	이충기	"
2/18	민선주	"
3/18	김홍일	"
4/15	김 현	"
5/20	조병수	"
6/17	이필훈	"
7/15	곽재환	"

GRAPHICS KOREA 2000 디지털 그래픽 및 프린팅 & CAD/CAM 전시회 개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지난 12년동안 개최되었던 '국제 CAD/CAM & 컴퓨터그래픽스 및 멀티미디어전'이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디지털 그래픽 및 프린팅 관련

기기류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시회인 'GRAPHICS KOREA 2000'으로 변모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코엑스(COEX) 대서양관에서 개최될 이번 전시회에는 '밀레니엄! CAD/CG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라는 제하의 관련 컨퍼런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한꺼번에 집약시킨 전시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웹디자인, 영상 효과, 그래픽 디자인에서부터 애니메이션, 디지털 비디오, 전자출판 등 국내외 아티스트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계 및 건축 등 제조 업계의 CAD/CAM/PDM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모든 솔루션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주관사인 (CAD & 그래픽스)를 맞아 세계의 컴퓨터 그래픽스 및 CAD 분야 최고의 전시회인 "SIGGRAPH + MACWORLD EXPO + NAB + AUTOFACT + A/E/C시스템즈"를 집대성한 최대의 전시회가 될 것이며, 홈페이지(www.graphicskorea.com)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GRAPHICS KOREA 2000과 함께 개최될 '제1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국내외 우수 프로덕션과 우수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의 현주소와 새로운 영상 테크놀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기간내에 개최되는 GRAPHICS KOREA 2000 컨퍼런스는 <밀레니엄! CAD/CG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라는 제하에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5월 31일), 건축 분야(6월 1일), 기계 분야(6월 2일)로 나뉘어져 최신 CAD/CG 분야의 기술 동향 및 유저 성공 사례 등이 발표된다.

문의 : 캐드앤그래픽 02-322-5700
www.graphicskorea.com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원 신입생 모집

5월 31일까지 접수

건축가 국제인증에 준한 교과과정 구성으로 건축시장의 국제화, 개발화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이 2000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전공 : 건축설계, 역사이론비평
- 모집자격 : 건축(공)학과 졸업자 혹은 2000년 8월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작품집 (원서접수시 제출)
- 원서교부 : 2000. 5. 22(월) - 5. 31(수)
- 원서접수 : 2000. 5. 29(월) - 5. 31(수)
- 전 형 일 : 2000. 6. 3(토요일) 9:00 AM
- 원서대 6,000원, 전형료 70,000
- 문의전화 : 02-2290-0258,9

서울건축학교 2000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8월 19일까지 접수

서울건축학교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에게 열려있으며 다음과 같이 2000년도 2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 학기 : 2000년 9월 - 12월 (12주)
- 응시서류 :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소정양식)
- 접수 : 2000년 8월 19일까지 (1차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문의 및 신청 : 서울건축학교 학무국 (02-763-0471)
- 홈페이지 : www.saschool.or.kr
- e-mail : saschool@kornet.net

서울건축학교, 여름 워크숍 개최

6월 30일까지 접수

서울건축학교에서는 충남 강경지역을 대상으로 '변화의 시작, 새로운 풍경'이라는 주제로 2000년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 :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 오늘의 자리에서 - 江景發見
- 접수 : 2000. 5. 8 (월) - 2000. 6. 30(금)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재학 증명서(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 학생선발 : 2000. 7. 4(화)
- 등록비 : 28만원
- 접수처 : 서울건축학교 학무국(02-763-0471) 인 터 넷 (www.saschool.or.kr)
- 프로젝트 대상 : 충청남도 논산시 강 경읍 일대
- 기간 : 2000. 8. 5(토) - 2000. 8. 12(토) 7박 8일
- 참가대상 : 학생 100여명 내외(국내 외 대학 건축학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코디네이터 : 이종호 (스튜디오 메타)
- 스튜디오 튜터 : 권문성, 김광수, 김병운, 김석윤, 김승희, 김영섭, 김영준, 김원, 김인철, 김종규, 김현, 김홍

일, 민선주, 민현식, 서혜림, 승효상, 오성훈, 윤평현, 이상림, 임재용, 정기웅, 조성룡, 최문규, 최욱, 한만원, 황두진

- 공개크리틱 : 2000. 8. 11(금) 09:00 - 17:00

- 크리틱 : 김광현(서울대), 김병현(장 건축), 김봉렬(예술종합학교), 김성홍(시립대), 박길룡(국민대), 윤승중(원도시건축), 이범재(단국대), 최관영(일건건축),

- 이벤트 : 영화세미나, 답사 등

- 전시회

2000. 8. 26(토) - 2000. 9. 2(금) /

서울건축학교 전시실

2000. 9. 9(토) - 2000. 9. 16(금) /

강경읍사무소

김수근 건축상 역대 수상작 전시회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공간전시실에서

김수근건축상 역대 수상작에 대한 전시가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공간전시실에서 열린다. 또한 이날 오프닝 행사로 제11회 김수근건축상 시상식이 공간소극장에서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자 강연회와 작은 음악회, 축하연이 함께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여 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제1회/강석원(에스모빌딩)

제2회/민현식(국립국악중고등학교)

제4회/승효상(학동수출당)

제5회/우규승(환기미술관)

제6회/이종호+양남철(바른손센터)

제7회/김영섭(카톨릭대 성신교정 도서관, 강의동)

제8회/故장세양(경기도립박물관)

제9회/유결(밀알학교)

제10회/손학식(오피스)

현실비평연구소, 제9회 테마 건축 기행

'유럽건축사' 기행
해쳐모여 'IMF식 일본현대건축'
기행
9년의 노후우 '양질전이' 프로젝트
'인도 건축' 기행

첫번째 이야기 / 유럽건축사 기행

■ 기행내용 르두, 칼 프리드리히 쉐펠, 고트프리트 쉐펠, 호레이쇼 그린리, 이거스틴 엘비, 뮌헨, 뷔를레르 뒤고, 존 러스킨, 샤를로 가르니에, 알렉산더 귀스파르 에펠, 윌리엄 모리스, 헨리 홀스 리처드슨, 오토 바그너, 존 웨버 루트, 안토니오 가우디, 헨리크 페트루스 베를라에, 찰스 프랜시스 보이어, 헤르만 무테지우스, 루돌프 슈타이너, 빅토르 오로프, 앙리 반 드 벨트, 예코프 기마르, 맥킨토쉬, 페터 베렌스, 아돌프 로스, 요제프 호프만, 로베르 마이아르, 시아라네, 오키프스 베레, 브루노 타우트, 빌터 그로피우스, 테오 반 도스부르그, 군나르 아스플룬드, 루트비히 미스 반 데로에 에라히 멘델존, 로트슈타트, 토마스 리트벨트, 한네스 마이어, 지오네티, 네로비, 주제페 테라니, 아르도에 66, 한스 샤로운, 루이스 칸, 마르셀 브로이어, 아일링 그레이, 카를로 스카르바, 주제페 테라니, 아이 엘 베이, 프라이 오토, 헬무트 안 리카르도 보필, 찰스 무어, 노만 포스터, 필립 스타크, 인도 타다오, 마크 맥스틴 홀, 앙리 시리아니, 포츠담, 제임스 스틸링, 한스 홀라인, 슈피루스튜디오, 시저 페리, 람프 어스킨, 뭉거스 알도 로시, 조지오 그라시, 마리오 보타, 브루노 라이히터, 파비오 리안하르트, 요세 폴 클라이부스, 뮌, 리처드 로저스, 레온 크리에, 켈 쿨허스, 한스 홀라인, 루시앵 크롤, 프랭크 게리, 리처드 마이어, 베르나드 추미, 피터 아이젠만, 지하 하디드, OMA, 뱌나첸, 쿠프 힌켈브라우, 베이젤.....등

■ 코스 서울-홍콩-런던-파리 (통상) 암스데르담 (로테르담) -베를린-빈-베네치아 (밀라노, 코모, 루가노)-취리히 (바젤, 제네)-홍콩-서울
■ 일정 2000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5박 18일 예정코스로 제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가경비 315만원 (학생 5% 할인 : 299만원)
■ 참가신청마감 2000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 참가신청금 50만원 납부)
■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6월 15일 까지

LECTURE (유럽건축사)

■ 일정 5/13 (3:30~5:30) 홍콩/영국건축 (리처드 로저스, 노만 포스터, 테라펠, 밀프러스킨, 뮌헨 등)
5/20 (4:00~5:30) 프랑스건축 (르 꼬르뷔제, 포츠담, 리콜라스그림스, 도미니크 에로 등)
5/27 (4:00~5:30)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건축 (MVRDV, 아델리, 에66, 마들루스, 한스 홀라인 등)
6/03 (4:00~5:30) 독일 건축 (테겔 집합주택단지, 코페르 단지, 포츠담 클라지-존케아터, 찰스오어, 조지오그라시, 산탈 등)
6/01 (4:00~5:30) 이탈리아 건축 (마리오보타, 카를로스카르바, 주제페테라니 등)

둘번째 이야기/해쳐모여 'IMF식 일본현대건축' 기행

■ 기행내용 안도 타다오, 다카미츠 신, 르 꼬르뷔제, 이라타 야스지키, 구로카와 키쇼, 다케야마 세이, 자하 하디드, 하세기와 이츠코, 이다미 준, 하세기와 이츠코, 이

현실비평연구소에서는 스테디식 시스템을 운영하여 미리 답사, 건물에 대하여 도상학적 측면보다 집중되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부한 다음 기행지로 출발하는 네가지의 테마건축 기행을 마련하였다. 참가인원은 인원

도모도, 하세기와 우시다, 당계 겐조, 후미코 마키, 다케야마 미노루, 나칸 그름, 오에 히로시, 스즈키 에드워드, 라파엘 바늘리, 이즈에 칸, W.M. 볼라스, 오타니 사치오, 다케나카, 렌조 피아노, 쿠프 힌켈브라우, 시저 페리, 노만 포스터, 마리오 보타, 캐서린 핀드레이, 피터 아이젠만, 마이클 그레이브스, 필립 스타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옥스포드 그름, 램 쿨허스, 하라 히로시, 프랭크 게리, 데이빗 치퍼필드, 스티븐 홀, 마크 맥, 타이거 맨, 오스카 투스케츠, 알도 로시, 오사무, 포츠담

■ 일정 5월 14일 (6:30~8:30) 일본건축 총론
5/21 (6:30~8:30) 건축기1
1.안도타다오 2.다케미츠 신 3.르꼬르뷔제 4.이라타야스지키 5.다케야마세이 5/28 (6:30~8:30) 건축기2
6.이로도도 7.당계겐조 8.후미코마키 9.필립스탁 10.노만포스터 11.피터아이젠만 6/04 (6:30~8:30) 건축기3
12.마리오그라세르스 13.노만포스터 14.마리오보타 15.이라타준 16.히로시하라 17.에이시무사다 18.이로도도 쿠나야키

■ 코스 서울-동경-오사카-교토-고베-하마지-후쿠오카-서울
■ 일정 2000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6박 7일 예정코스로 제원정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135만원 (학생 5% 할인 : 128만원)
■ 참가신청마감 2000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 참가신청금 30만원 납부)
■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6월 15일까지

■ 코스 서울-동경-오사카-교토-고베-하마지-후쿠오카-서울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도 동경 시내 곳곳을 보다 양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보는 답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00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6박 7일 예정코스로 제원정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135만원 (학생 5% 할인 : 128만원)
■ 참가신청마감 2000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 참가신청금 30만원 납부)
■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6월 15일까지

LECTURE (IMF식 일본현대건축)

■ 일정 5/14 (6:30~8:30) 일본건축 총론
5/21 (6:30~8:30) 건축기1
1.안도타다오 2.다케미츠 신 3.르꼬르뷔제 4.이라타야스지키 5.다케야마세이 5/28 (6:30~8:30) 건축기2
6.이로도도 7.당계겐조 8.후미코마키 9.필립스탁 10.노만포스터 11.피터아이젠만 6/04 (6:30~8:30) 건축기3
12.마리오그라세르스 13.노만포스터 14.마리오보타 15.이라타준 16.히로시하라 17.에이시무사다 18.이로도도 쿠나야키

셋번째 이야기/9년의 노후우 '양질전이' 프로젝트

■ 기행내용 안도 타다오, 다카미츠 신, 르 꼬르뷔제, 이라타 야스지키, 구로카와 키쇼, 다케야마 세이, 자하 하디드, 하세기와 이츠코, 이다미 준, 하세기와 이츠코, 이도모, 하세기와 우시다, 당계 겐조, 후미코 마키, 다케야마 미노루, 나칸 그름, 오에 히로시, 스즈키 에드워드, 라파엘 바늘리, 이즈에 칸, W.M. 볼라스, 오타니 사치오, 다케나카, 렌조 피아노, 쿠프 힌켈브라우, 시저 페리, 노만 포스터, 마리오 보타, 캐서린 핀드레이, 피터 아이젠만, 마이클 그레이브스, 필립 스타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옥스포드 그름, 램 쿨허스, 하라 히로시, 프랭크 게리, 데이빗 치퍼필드, 스티븐 홀, 마크 맥, 타이거 맨, 오스카 투스케츠, 알도 로시, 오사무, 포츠담

수에 따라 15, 30명 중 하나만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문의 02-372-7732, 39, 41

세번째 이야기인 '양질전이' 코스는 주최측이 그동안 9년 전부터 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다소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며 안도 타다오와 다카미츠 신의 초기 작업부터 총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6년여 동안 해 온 노후우로 타이틀만 '양질전이' 지 보다 세련되고 차별화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두루 다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안 다녀왔던 많은 분들로부터 끊임없는 요청이 있을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답사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번쯤 해외 건축답사를 해 본 분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코스 서울-동경-오사카-교토-고베-하마지-후쿠오카-서울
■ 일정 2000년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6박 7일 예정코스로 광복절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180만원 (학생 5% 할인 : 171만원)
■ 참가신청마감 2000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 참가신청금 30만원 납부)
■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6월 15일까지

LECTURE (양질전이)

■ 일정 5/13 (6:30~8:30) 1.동경 지역 건축 (다케미츠 신, 이라타야마 세이, 라파엘 바늘리, 후미코마키, 당계겐조 등)
5/20 (6:30~8:30) 2.오사카 지역 건축 (렌조피아노, 나칸세이, 하라 히로시 등)
5/27 (6:30~8:30) 3. 교토 지역 건축 (다케미츠 신, 이라타야마 세이, 치퍼필드 등)
6/03 (6:30~8:30) 4.기타지역 (안도 타다오, 프랭크 게리)
6/01 (6:30~8:30) 5.베르나드 추미, 포츠담, 스티븐 홀, 알도 로시 등

넷번째 이야기/인도 건축 기행 프로젝트

■ 기행내용 르 꼬르뷔제, 루이스 칸, 찰스 코레이, 비브이 도쉬, 자이싱그, 에드워드 르텐, 파르비르츠 사하바, 라이 레알, 람 바그등
■ 코스 서울-델리-바라나시-아그라-자이푸르-아메다바드-다카-볼배어-서울
■ 일정 2000년 12월 23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7박 8일 예정코스로 주말과 성탄절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198만원 (학생 5% 할인 : 189만원)
■ 참가신청마감 2000년 11월 23일까지 (신청서 참가신청금 50만원 납부)
■ 참가비 최종납부마감 2000년 12월 9일까지

LECTURE (인도 건축)

■ 일정 5/14 (3:30~5:30) 1.인도 건축 총론
5/21 (3:30~5:30) 2.인도에서의 루이스 칸
5/28 (3:30~5:30) 3.인도에서의 르꼬르뷔제
6/04 (3:30~5:30) 4.인도의 건축가 (비브이 도쉬, 찰스 코레이 등)

2000 대한민국 실내건축 대전 개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주)삼성중공업 웨트빌에서 「2000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30일(목)부터 12월5일(화)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 1,2,3전시실에서 개최될 이번 대전의 일반공모부문은 실내디자인에 대한 창작물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1인당 한 작품만 출품 가능하며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 명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며, 1차 작품접수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내건축가협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작품제출규정 : <1차> 작품설명서 홈페이지상의 지침서를 참조하여 최종결과물까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 규격 : A3(가로42cm×세로29cm) 10매 이내(색상 및 재질 등 자유로운 표현 가능)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11월 3일(금)까지 소인분에 한함.

- 규정

- 1) 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
- 2) 작품의 출판권 및 전시권은 협회에 속하며,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3) 2차제출안이 1차계획안과 서로 상이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면 입선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심사일정 : <1차> 2000년 11월 7일(화)~11월 11일(토), <2차> 2000년 11월 29일(수) 09:00~13:00 (시간접수)

○ 심사결과발표 : <1차> 2000년 11월 13일(월) 홈페이지에 발표(전화확인 불가)

<2차>

2000년 11월 30일(목) 오전 9시. 홈페이지에 발표. 본상 수상자 개별통지(전화확인 불가)

○ 원서교부 : <http://www.kosid.co.kr/사업소개/실내건축대전에서> 응모원서 다운 받아서 작성.

○ 원서접수 : 원서는 지침서를 숙지하여 작성하고, 응모원서와 함께 원서대(60,000원)를 소액환으로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요.(방문, 전자우편 접수 불가)

※응모 접수 후 다음 날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주소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무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10번지 대경빌딩 5층) (우편번호 : 135-280)

문의 : 02-508-8037, 8

홈페이지 : www.kosid.or.kr

ARCASIA STUDENT JAMBOREE 2000 한국학생대표 선발 공고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지역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에서는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아카시아포럼을 격년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Asia : The State of The Architect라는 주제로 오는 9월5일(화)부터 9월 9일(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9회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행사의 일환으로 회원국 출신의 건축(공)학 전공 학생들의 모임인 ARCASIA STUDENTS JAMBOREE 2000(제9회 아카시아 학생잼보리대회)를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한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아카시아 회원국 출신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건축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한국학생대표를 선발하여 파견코자 하니 관심있는 건축학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주제 : The Show

-말레이시아 말로 'origin', 'foundation', 'groth' or 'point of reference'를 뜻하는 Akar Umbi가 이번 잼보리의 주제이며, 가장 상응하는 단어는 grassroots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정체성의 재발견, 문화의 조화,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새로운 세기

를 맞이하는 우리의 근원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자격

-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 재학생
- 영어로 해당 주제에 대하여 설명 및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

○제출자료

- 건축의 근본, 원형, 발전과정 등을 본인의 이해로 풀이하여 건축형태 언어로 표현하여 A3 3매이상으로 제출
- 표현 방법은 자유

○제출마감

- 2000년 6월 29일(목)까지 협회 도착분에 한함.

○선발기준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면접

○특전

- 2000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학생 잼보리 2000대회에 한국학생대표로 참석
- 왕복 항공료, 숙박(5박6일) 제공

○제출 및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원실

(담당:허규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부산 가톨릭병원 신축설계 현상설계

신청 6월 7일부터 9일까지

1. 건립개요

- 설계경기명 : 「부산 가톨릭병원」 신축 설계경기
- 대지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산 85-4,5
- 대지 면적 : 약 6,364평(21,000㎡)
- 연면적 : 13,000평 내외
- 건립 예산 : 500억원

2. 설계경기 형태: 1단계 공개 경기방식

3. 응모자격

- 병원설계 유경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 제 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자 (공동응모 가능, 단,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 최근 5년 이내(공모 공고일 기준)에 연면적 6,000㎡ 이상인 병원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건축사 사무소 등록자. (단,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설계실적 포함)
- 병원건축 설계를 연구한 석사 이상의 논문 필한 자 및 외국에서 병원설계 실적을 갖춘 사람으로 국내사무실과 합작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관리법 제 2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받지 아니한 자.

4.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00년 6월 7일(수) ~ 9일(금) 10:00~16:00

• 구비서류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나) 공동응모일 경우 : 설계공모 공동참여자 명단

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 실적 및 실적 증명서

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기획하고 가톨릭병원 신축기확단이 주관하는 부산가톨릭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경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사) 응모 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아) 응모 대표건축사 및 공모자의 이력서 1부

자) 응모 접수비:오만원 (작품 접수시 반환함)

• 배부 및 등록처 : 부산 성분도병원(부산시 동구 초량동 31-3)

5. 내용설명회 및 설계경기지침배포

• 설명일시 : 2000년 6월 9일(금) 14:00

• 설명장소 : 부산 가톨릭병원 신축부지

6. 질의응답

• 질의기간 : 2000년 6월 10일(토) ~ 2000년 6월 18일(일)

• 질 의 처 : 등록 접수처와 같음.

• 회 신 : 질의 마감일까지 접수된 내용에 한하여 응모 등록자 전원에게 회신함

7. 작품접수

• 접수기간 : 2000년 9월 15일(금) 17:00(시간 엄수)

• 접수장소 : 등록 접수처와 같음.

8. 심사위원(7인)

9. 심사 및 포상

• 당선자 발표 : 2000년 9월 25일(월)

• 포상내역

- 당선작 : 1 점(상금 3,000만원 및 실시 설계권 우선 부여)

- 우수작 : 1 점(상금 1,500만원)

- 가작 : 1 점(상금 500만원)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가톨릭병원 신축기획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466-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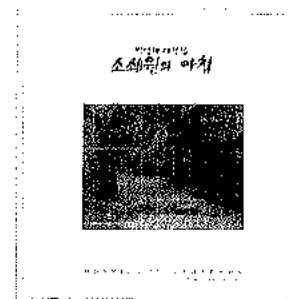
- 팩스 : 051)464-7271

- homepage : www.sungbundo.co.kr

- E-mail : hos@sungbundo.co.kr

신간안내

박영채사진집, 소쇄원의 아침



한국 최고의 정원인 소쇄원 사계(四季)의 이른 아침을 사진작가 박영채의 풍성한 감성으로 사진으로 담아 책으로 펴냈다. 시간과 빛의 대비를 통해 읽어낸 예술적 상상력이 다양한 시선으로 펼쳐진 이 책은 작가가 다리품을 팔아 7년여 동안 때를 가리지 않고 소쇄원을 찾아 그때그때의 현장성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기록한 결과물로 소쇄원의 풍경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보이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까지를 읽어낸 장면들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쇄원의 아침을 통해 본 박영채의 사진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깊은 맛이 있다.

58쪽/1만5천원/도서출판 간향미디어
퍼냄(02-2637-3890)

정정합니다

본지 지난 4월호 114쪽 현상설계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개요 중 「~종합건축가람(전태식)~」을 「~종합건축가람(정영철)~」로 바로 잡습니다.

개정 건축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08호,
2000년 5월 10일 공포

개정이유

건축사법의 면허제(免許制)가 자격제(資格制)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제(登録制)가 신고제(申告制)로 전환되고, 건축사협회(建築士協會)의 설립이 자율화되는 등 건축사법(建築士法)이 개정(2000. 1.28, 법률 제6244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건축설계시장의 개방과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사자격시험(建築士資格試驗)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는 때에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예정자(合格豫定者)에 한하여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6조의3 및 제7조의2)
- 나.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건축법규(建築法規)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建築士豫備試驗科目)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배치계획(配置計劃)을 신설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건축사의 설계능력향상을 도모함(영 제8조)
- 다.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함(영 제13조)
- 라. 건축사업무신고(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 건축사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영 제29조제2 및 별표 1)
- 마. 건축사협회의 설립이 자율화됨에 따라 건축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영 제35조제2항)

건축사법시행령 전문

(굵은 글씨가 개정된 부분임)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5. 12. 30)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95. 9. 2)

제3조 삭제 (95. 12. 30)

제4조 삭제 (00. 5. 10)

제5조 (건축사자격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00. 5. 10)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제6조 (사망신고)

- ① 삭제 (00. 5. 10)
-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제6조의2 (자격취소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3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사본이나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정 00. 5. 10)

제7조 (시험과목의 면제)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배치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 9. 2)(개정 00. 5. 10)

제7조의2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본조신설 95. 9. 2)(개정 00. 5. 10)

제8조 (시험과목등)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 9. 2, 00. 5. 10)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 가. 배치계획
나. 건축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규

- ② 삭제 (89. 7. 5)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2. 7. 14, 89. 7. 5, 94. 12. 23) (전문개정 79. 11. 5)

제9조 (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95. 9. 2)(개정 00. 5. 10)

제10조 (합격기준)

-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배치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95. 9. 2)(개정 00. 5. 10)

제11조 (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제12조 (경력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제13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개정 94. 12. 23, 95. 9. 2, 00. 5. 10)

제14조 (구성 및 위원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구성한다. (개정 89. 7. 1)

-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95. 9. 2)

-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 12. 23, 00. 5.

10)

- ④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0. 5. 1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정 00. 5. 10)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정 00. 5. 10)

제15조 삭제 (00. 5. 10)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0. 5. 10)

제1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4. 12. 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85. 6. 15]

제2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00. 5. 10]

제21조 삭제 [00. 5. 10]

제21조의2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9. 2] [개정 00. 5. 10]

제22조 (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서본
 2. 삭제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전문개정 95. 9. 2] [개정 00. 5. 10]

제23조 (신고기준)

- ① 삭제 (95. 9. 2)
- ② 삭제 (85. 6. 15)
-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80. 5. 26, 00. 5. 10]
- ④ 삭제 (82. 7. 14)
- ⑤ 삭제 (80. 5. 26)

제24조 (신고필증의 교부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00. 5. 10]
- ② 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23, 개정 00. 5. 10]

제25조 삭제 [00. 5. 10]

제26조 삭제 (95. 9. 2)

제27조 삭제 (00. 5. 10)

제28조 삭제 (00. 5. 10)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 9. 2] [개정 00. 5. 10]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 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00. 5. 10]

제29조의3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95. 9. 2] [개정 00. 5. 10]

제30조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95. 9. 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 6. 15, 94. 12. 23, 95. 9. 2] [전문개정 81. 7. 14]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 9. 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산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삭제 (95. 9. 2)

제33조 삭제 (00. 5. 10)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95. 9. 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2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 12. 23]

[본조신설 85. 6. 15]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12. 31]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개정 00. 5. 10]
-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신설 00. 5. 10]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개정 00. 5. 10]
-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신설 00. 5. 10]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개정 00. 5. 10]
- 3의2. 법 제29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신설 00. 5. 10]
-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개정 00. 5. 10]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00. 5. 10]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

고의 접수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95. 9. 2]

제36조 (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23, 95. 9. 2]

[본조신설 85. 6. 15]

부칙 [00. 5. 1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 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신고효력상실에 해당하는 때 또는 업무신고효력상실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신고효력상실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건축사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업무신고효력상실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2월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28조 제1항제3호	업무신고효력상실	업무정지 12월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법 제28조 제1항제4호	업무신고효력상실	업무정지 12월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	법 제28조 제1항제5호	업무신고효력상실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8월	
나.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라. 기타	법 제28조 제3항제1호	시정명령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8.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0호		
가.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나.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위 반 사 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건축사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
행한 때 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라.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 손괴를 야기한 때 마.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때 (3)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바.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사.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때 아.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신고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2월 또는 업무정지 6월

위 반 사 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건축사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
(2)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자.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10.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10.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2월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시정명령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시정명령	
	법 제28조 제1항제12호		
	법 제28조 제3항제2호		
	법 제28조 제3항제3호		

〔별표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 삭제 (95·9·2)

〔별표 3〕 위반행위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제3항관련) (개정 95·9·2, 00·5·10)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만원 이하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2호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4. 삭제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제2항	3만원 이하
6.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마.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 미만인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다.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법 제41조제2항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e

2000년 2월호

이번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가들의 '현대 건축'을 소개하였다. 현대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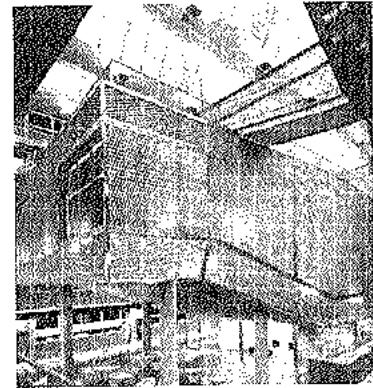
흐름을 각기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개괄하고 있다.

■ 근작소개

21세기의 현대 건축은 건축적 형태나 건물 유형이 중성적이며 단순한 결합에서 의미가 가득한 관용법으로 전이되고 있다. Thom Mayne의 Hypo Alpe-Adria-Center와 Bernard Tschumi의 파리 건축학교는 모더니즘의 관습을 해체하고 이용한다. Mayne은 불확정성의 현대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그의 건축에서 휘고 부러뜨리고 충을 만들어낸다. Tschumi는 인간 반응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포개어진 브리지, 캐워크, 계단을 주로 이용한다. Arata Isozaki의 오히이오 콜럼부스에 위치한 Center for Science & Industry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도에 가까운 표현 방식을 택한다. 물리적, 지각적으로 용이하게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고 닫힌 기념비적 형태를 차용하였다.

▶ Bernard Tschumi의 Marne-La-Valée 건축학교

Tschumi는 런던 AA School에서 18세기 Georgian Terrace의 미로적 공간에 대해 연구했다. 이것은 후에 그의 건축에서 비정형적인 in-between space의 중요성을 전작시켰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이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된다.



Bernard Tschumi의 Marne-La-Valée 건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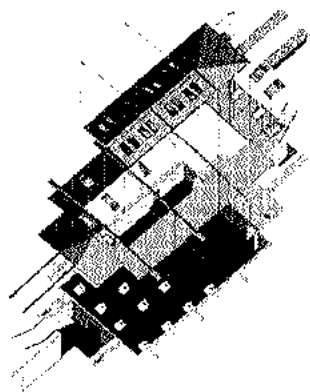
건물의 구성은 단순하게 되어 있다. 두 개의 원이 가운데 아트리움을 만들어 내며 그 중앙에 오디토리움 볼륨이 어긋나게 배치되어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메쉬로 마감된 매달려 있는 오디토리움 볼륨 아래의 in-between space에서 학생들의 만남과 사교의 장이 형성된다.

▶ Arata Isozaki의 오히이오 콜럼부스, Center for Science & Industry

이 디자인은 건축 형태의 보편성과 지역적 상황의 반영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지의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비행선과 같은 형태는 강가라는 지형에 여윌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혼성적인 주변 경관에 대하여 단일한 매스로 신비로운 인상을 만들어 낸다. 형태와 내용물 간의 관계, 형태와 장소의 관계가 빚어내는 긴장은 이 시설의 관장인 Katherine Sullivan의 다음과 같은 언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여기 콜럼부스에 있지만 과학은 지역적인 문제를 벗어난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소자키는 이러한 초월적 형태를 대지의 바로 앞에 흐르는 Scioto 강에 대응함으로써 사이트와의 연관성으로부터 도출하였다.

▶ Bernard Khoury Architects의 베이루트 지하바 B 018

한때 격리된 장소였던 항만 근처의 이 지역에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지하 바가 지어졌다. 17년간의 내전으로



베이루트 지하바 B013

보호공간으로서의 지하공간은 전쟁미학의 표현이 된다. 건물을 가운데 두고 원형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배치를 하여 치의 헤드라이트가 지하 바의 천창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디자인하였다.

▶ Van Berkel & Bos의 암스테르담 Het Valkhof 박물관

네덜란드의 고고학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서, UN Studio는 이 건물에서 고전적인 질서와 현대적인 복잡성 사이의 중간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례로 서측 파사드의 처리에서 교묘히 조작된 유리면의 수평 리본은 4개층의 입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층 건물이 파사드 뒤에 존재하는 것이다. 대지는 고대 로마의 첫 번째 정착지였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건축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도시와 랜드스케이프 사이의 게임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단순한 박스에서 찾았다. Van Berkel & Bos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수평 띠는 정보의 흐름이라 불렀으며, 그 정보는 건물의 프로그램과 빛 환경을 결정하는 대지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것이라 하였다.

Architectural Review

2000년 2월호

이번호는 도시광장이나 고속도로의 환경조형물 등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다뤘으며, 집합주택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근작으로 Sarc Architecture의 미디어 빌딩을 헬싱키의 도시적 컨텍스트와 관련지어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띈다.

■ 랜드스케이프 건축

▶ West8의 Tilburg 도시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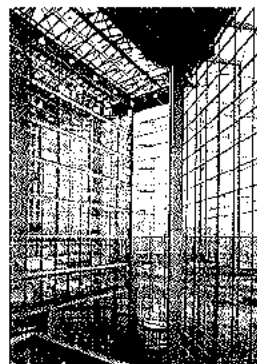
버려진 도시 사이트에 활기를 부여하는 랜드스케이프 프로젝트에서 명성을 얻은 Adrian Geuze의 West 8가 도시중심부의 정원계획에 초청되었다. Tilburg의 중앙역 근처의 거대한 삼각형 대지에 조성된 이 공원은 다른색과 텍스처로 이뤄진 판들이 엮물리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Denton Corker Marshall의 멜버른 고속도로의 게이트웨이

멜버른의 도시 외곽을 잇는 고속도로에 장소성과 도시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세워졌다. 도시의 스케일에 맞는 이 진입 조형물은 단면이 5m²에 이르며 70m 길이의 캔틸레버형태로 길 양쪽에 늘어서 붉은 벽과 연결된다. 근대도시는 계속 확장하고 유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의 외곽에 이러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움으로서 다른 도시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경계부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거대한 스케일이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안에서 인식되도록 디자인되었다. 300m길이의 터널은 도로의 소음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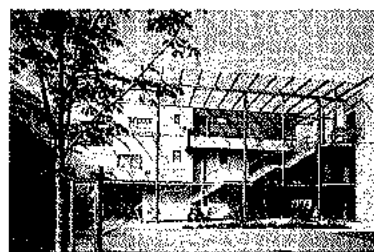
■ 근작소개

▶ Sarc Architecture의 헬싱키 미디어 빌딩



헬싱키의 중심부는 신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항구쪽으로 내려오다보면 근대 건축가들의 건물이 오브제처럼 들어서 있다. 사아리넨의 국립 박물관, 알토의 핀란드아홀이 국회의사당 주위로 다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반대편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최근에 들어선 두 개의 건물이 이 지역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그것은 스티븐 홀의 Kiasma 미술관과 이 미디어 빌딩이다. 형태적으로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전자는 감각적으로 유연한 곡선을 이루며 불투명하다면, 이 건물은 도시의 그리드 조직에 맞춰서 투명한 매스로 이뤄졌다.

▶ Günter Behnisch의 독일 Ingolstadt Hollerstaeden의 공동주거



이 주거단지는 도시도 시골도 아닌, 장소성을 지니지 못한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서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지는 최수자들을 위한 아파트 60호와 그 가족들을 위한 테라스형 아파트 30호, 그리고 학생 주거 단지로 구성된다. 저예산으로 계획되어져서 값

싼 재료와 단순한 디테일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군터 베니쉬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비정형과 차이자음이라는 그들의 주제를 전개해 나갔다. 대부분의 건축적인 노력은 파사드와 그 진입부에 집중된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순환동선의 레이아웃과 무광의 스틸 포스트가 지지하는 유리지붕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복도가 파사드를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외피의 가장 바깥쪽에는 오후의 강렬한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목재 패널이 입면을 분절한다.

그 밖에 ▶영국식 정원의 조형원리에 의해 배치된 듯 다양한 공간과 장소를 만든 Michael Hopkins and Partners의 노팅엄 대학 캠퍼스 ▶Tengnastuen Vandkunsten 외, 스웨덴 Helsingborg 집합주거 ▶Sadar in Vuga의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Frechilla & Lopez-Palaez Architects의 스페인 Arnedo 극장 ▶Demetre Anastassakis 외,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 집합주택 ▶Agnes Couvelas의 그리스 Naxos 고고학 미술관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4월호

뉴 밀레니엄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괄해보는 Cooper-Hewitt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움직임이라는 현대 건축의 개념에 부합하는 주택들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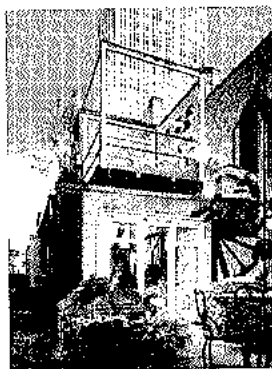


아 소개하였다. 그리고 맨하탄 등의 고층건물 옥탑에 설치된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뉴욕 Cooper Hewitt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 - Design Culture Now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타이포그래피에 걸쳐서 현대디자인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전시회는 디자인의 전망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영역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구조와 표면이 합쳐지고 있다. 3차원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은 컴퓨터에 의해 가능해졌다. 디자이너는 형태를 유기적이며 유동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재료, 빛, 정보 그리고 상상력이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연출가로서 디자이너는 관객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전시회는 유체, 현상, 재생, 지역주의의 테마로 여러 영역의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 고층건물 옥탑의 주거용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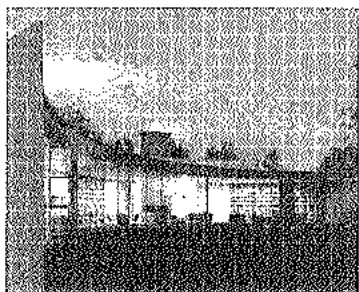


고층건물의 옥탑에는 주로 기계적인 구조물이나 물탱크들이 위치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전망이 확보되는 옥탑층에 작은 주택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양상은 콘테이너 박스, 통나무집에서부터 정갈한 국제주의 양식의 박스 형태까지 다양하게 고층건물의

꼭대기를 덮고 있다. Lee Harris는 20세기초, 맨하탄에 지어진 만사르 양식의 건물 옥탑층에 철학자의 도서관을 꾸몄다. LOT/EK의 Ada Tolland와 Giuseppe Lignano는 옥탑층의 전통적 의미를 실용주의자의 정원으로 대체하였다. 금속제의 트럭 컨테이너 박스안에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이, 박스 위에는 베드룸과 작은 정원이 위치하게 된다. 이 2개층 높이의 구조물 바로 뒤에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샤프트가 높이 솟아있다.

■ Record Houses 2000

이번 특집에 소개된 주택들은 거대한 곡면 벽으로 구성되거나, 유체역학적 형태로 짜여지거나, 절벽 끝에 서있는 등 모두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에 다뤄졌던 다른 프로그램의 건축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지역에 구분없이 선정된 다음의 주택들은 정제된 형태의 절충주의적 조합에서부터 이국적이고 비일상적 형태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그 컨셉은 재료의 사용, 사이팅, 형태 등으로부터 각각 도출하였다. ▶Albert Kalach의 멕시코 시티 GGG 주택은 콘크리트 판의 맞물림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영국 스톤헨지 근방 Ken Shuttleworth의 반달형 주택은 매끈한 반원형의 곡면벽 사이로 주거공간이 들어서서, 미니멀리즘한 외관을 보인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평범한 재료들은 풍부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소재로 다뤄진다. ▶Into Tasa의 핀란드 Espoo에 위치한 Into 주택에서는 환관과 스틸 케이블이 독특한 나선계단을 만들어낸다. 그밖에 거주성의 개념을 재고해보는 ▶Kennedy & Violich의 Western Massachusetts, 현대미술 갤러리 겸 주택 ▶David and Vivian Howard의 캐나다 노비스코



Ken Shuttleworth의 반탈형주택

시아 Howard 주택 ▶ Wendell Burnette Architects의 아리조나 피닉스, Schall 주택 ▶ Hiroyuki Arima + Urban Fourth의 후쿠오카 현 Ma 주택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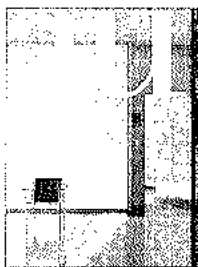
■ 기타

▶ 욕실의 설비적 디자인적 측면을 심도있게 다뤘다. 악취와 습기를 피하는 방법, 따뜻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조명계획, 표면 선택 및 공간 계획 그리고 안전성측면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기술되었다.

a+u

2000년 3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스위스의 새로운 지역주의(New Regionalism in Switzerland)」이다. 스위스의 지역주의라고하면 20여년 전의 티치노지방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가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 소개된 건축가들은 그라우뷘덴(Graubünden)주와 그 중심지 쿠르(Chur)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이다. 이들은 유럽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수준 높은 건



축들을 지켜가고 있다.

■ 특집 - 스위스의 새로운 지역주의(New Regionalism in Switzerland)

▶ 쿠르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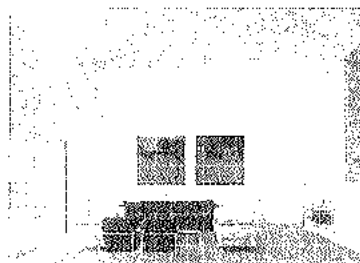
20여년 전 스위스가 지역주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비판적 지역주의자」그룹의 건축가들에 의해 스위스의 티치노는 세계적인 건축이 되었다. 이들 건축가들은 명성을 얻을수록 더욱 인터내셔널한 성향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 세대가 지나는데 동안에도 스위스의 건축가들은 모더니즘과 지역성에 의해 촉발된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 그라우뷘덴주의 또다른 건축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사람들은 유럽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표하지 않는 곳이다. 좋은 건축의 근원은 어디인가? 아카디아의 정원은 어디에 있는가? 정처적인 혼란이 있는 곳이나 번잡한 대도시, 혹은 도회지적 유행을 추구하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은 탄생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라우뷘덴주의 쿠르는 풍요롭고 수준 높은 건축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머지않아 쿠르도 티치노처럼 세계로 열려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특정된 모더니즘의 발아로써, 전원적 순수함으로 알려진 신비한 산악지대, 곧 아카디아의 정원에서 그 기반을 얻고 있는 점이다.

▶ 작품소개

소개된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은 돌프 슈네블리(Dolf Schnebli)의 마이어 저택(Meyer Residence), 지프가의 3개의 주택계획(Südstrasse House No.41, No.43, No.45), 로렌조 줄리아니 & 크리스찬 홍거(Lorenzo Giuliani & Christian Hönger)의 그



마이어 저택



그라우뷘덴의 관광전문대학



아틀리에가 있는 작은 집

라우뷘덴의 관광전문대학(Grisons College of Tourism), 발렌틴 베아르스 & 안드레아 데플라제스(Valentin Bearth & Andrea Deplazes)의 알바샤인의 학교(School in Alvaschein), 요나의 주택(House in Jona), 액커만 아키텍트(Ackermann Architekt)의 사이들러 하우스(The Sidler House), 디에터 융링과 안드레아 해그먼(Dieter Jüngling and Andreas Hagmann)의 아틀리에가 있는 작은 집(The Small House with Atelier), 쿠르의 HTA(Chur School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학교와 커뮤니티센터의 복합시설(New School and Community Center), 마인라트 몽가 & 하인리히 데겔로(Meinrad Morger & Heinrich Degelo)의 SBB 스위스 연방철도변전소(SBB Transformer Station), 콘라딘 클라보트트(Conradin Clavuot)의 변전소(Substation Vorderprättigau), 학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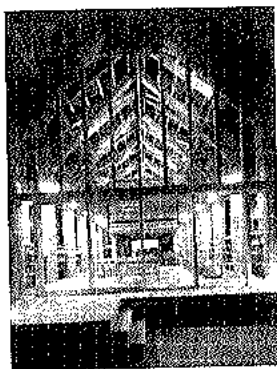
다목적 시설(Seewis, School and Multipurpose Complex) 등이다. 이들의 작품은 세상의 유행과는 상관 없는 듯 모두 미니멀하며 모더니즘에 기반한 것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스위스의 지역성과 풍광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문화

2000년 3월호

이번 호는 타케하라 요시지(竹原義二)의 특집 그 두 번째 편이 소개되었다. 10채의 그의 주택 작품을 2-3개씩 묶어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또한 테마별로 각 테마에 소개된 건축물에 쓰여진 재료나 건축적 주제에 대해서, 기와, 석재 등등의 장인과 타케하라와의 인터뷰가 소개되었고, 타케하라 자신의 짧은 글들도 소개되고 있다.

■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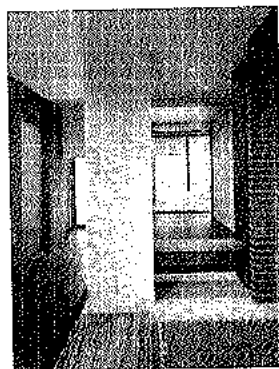
미노리 공방

▶ 타케하라 요시지의 단독주택과 집합주택 프로젝트 10개를 4개의 테마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각 테마는 「장

인과 함께 만들다», 「사이를 연결하다», 「피막으로 감싸다», 「장(場)을 읽는다」이다. 「장인가 함께 만들다」에서는 '우미츠바키하야마(海樁葉山)'이라는 여관과 '미노리 공방'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목조구조를 바탕으로 기와를 얹어 만든 건물들이다. 목조와 기와를 사용하면서 각 분야의 장인과 함께 대화하며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지역성과 모더니즘 공간의 만남을 볼 수 있다.



코우료우치의 주택



키노사키의 주택

▶ 「사이를 연결하다」는 주택의 가운데에 사이공간이 되는 틈 혹은 중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주택의 공간을 중앙을 가르는 틈새공간을 만들어 놓은 코우료우치(廣陵町)의 주택을 두고 건축가는 '화장실을 갈 때 조차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집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의 공간들을 나누고 빈 공간으로 다시 이들을 엮는 작업을 통해 주택공간의 의미들에 대해 재해석을 하고 있다. 「피막으로 감싸다」의 테마에서는 말 그대로의 피막에 의한 외관의 변화와

(히노시타 상점), 중심과 그 주변부의 구조를 이루며, 주변부의 공간이 피막을 이루는 주택의 구성(키노사키의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이 테마에서 보여지는 주택들은 그 규모가 비교적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커다란 공간에서 피막에 주목하였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점이기도 하면서, 거대한 공간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이들을 한데 묶는 작업이나 거대한 공간에 중심을 만들고 주변부를 계획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장을 읽는다」에서는 장소의 특성, 내지는 컨텍스트가 그 주제로, '하마마츠의 주택'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기 있던 것처럼 마을에 흡수되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메가미야마(目神山)의 주택'은 산 속에 자리잡은 주택으로 '숲 속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에 동화되어야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텐진바시(天神橋)의 주택'은 도시 속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 공동주택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 대답은 기와의 장인 야마다 슈지, 석공인 이즈미 마사토시, 불자이자 건축가인 타키구치 아스유키, 건축가 나카타니 테이치와 이루어졌다. 건축가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대답은 장인으로서의 각 전문가들이 건축이라는 장에서 서로 만나며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 타케하라 요시지는 1948년생으로, 1972년 오오사카 공업단기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활동을 하면서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후 현재 오오사카 시립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건축

2000년 3월호

이번호의 작품 소개는 코지마 카즈히로(小嶋一浩)와 코이즈미 마사오(小泉雅生)/C+A의 '빅하트出雲(공



연예술과 갤러리의 복합건물)', 아리마 히로유키(有馬裕之)+Urban Fourth의 'limpid(상업건물)', 나가쿠라 타케히코(長倉威彦)의 구시카와(具志川)난(蘭)센터, 오까가와 미츠구(岡河貢)의 무카이시마(向島)프리즘 파빌리온, 반 시게루(坂茂)의 아이비 스트럭처(주택)등이 소개되었다.

■작품소개



아리마 히로유키+Urban Fourth
limpid

▶ 이번 호에 소개된 건축가와 그 작품들을 보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보다는 국내에는 이름이 낯선 작가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 작품들의 경향들을 보면 유리나 철골소재(주로 흰색으로 도색된)를 주로한 모더니즘과 하이테크의 경향을 섞어놓은 듯한 작품들,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목조구조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 그리고 절제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4-5층 규모의 작은 상점 건축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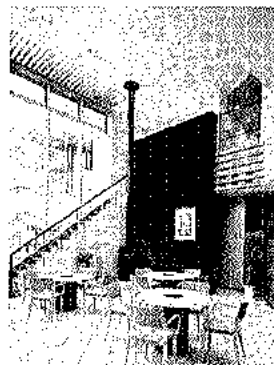
▶ 아리마 히로유키(有馬裕之)+Urban Fourth의 'limpid', 오까가와 미츠구(岡河貢)의 무카이시마(向島)프리즘 파빌리온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limpid(투명한)', '프리즘'과 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소재의 가능성을 주요 공간적 테마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반 시게루(坂茂)의 아이비 스트럭처(주택)와 나가쿠라 타케히코(長倉威彦)의 구시카와(具志川)난(蘭)센터는 부분적이지만 하이테크 건축에서 사용되는 철골구조를 외부로 드러내고 외벽은 유리를 사용하고, 이와같은 부분과 달려진 벽들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조합해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야스다 히로미치 '농가의 연속공간'

▶ 목조구조를 바탕으로 한 건축들은 꾸준히 일본에서 제작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야스다 히로미치(安田博道)의 '농가의 연속(緣側)공간'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즈오카의 한 주택의 증축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시골의 한 주택의 도로를 면한 전면부에 우리 나라의 행랑채와 같이 긴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벽면을 오픈시켜 발을 설치하여 동양적인 투명성을 만들어내고, 긴 공간에는 회랑, 작업장, 욕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반투명한 이 건물은 주택의 본체와 길을 차폐시키면서 시각적 투명성을 어느정도 유지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쿠로카와 테츠로(黒川技楽)의 린센기라쿠(臨川技楽)는 수려한 계곡변에 세워진 목조의 게이트볼 코트의

지붕으로서 '3교점 라멘 구법'을 사용, 접합부는 철제를 사용한 목조구조물이다. 와카마츠(若松)와 목풍기(六本木)의 '타마카와(玉川)지역활성화센터'는 목재와 노출콘크리트를 혼합한 구조물을 선보이고 있는데, 벽체는 콘크리트로, 지붕은 목조로 처리하고 있다.



손 탁 플랜 '자랑'

▶ 목조구조물 외에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것이 모더니즘과 일본의 지역적 감수성이 드러나는 작은 상업용 건축물이다. 손 탁 플랜의 '자랑(JÅRANG)빌딩'은 각기 다른 식당들로만 이루어진 5층 높이의 건물로서, 외부에 마련된 공용통로(계단)으로 각 층이 연결되며, 내·외부의 공간 모두 솔리드와 보이드의 구성으로 간결하면서도 통일감 있게 꾸며내고 있다. 타케나카(竹中) 코퍼레이션의 '카이운도우(開運堂) 본점'은 일본 전통 과자점의 본점답게 일본의 지역성이 물씬 풍기는 외관으로 꾸며지고 있다. 일층의 매장과 2, 3층의 사무실을 개방된 공간과 차폐된 공간으로 확연히 대조시키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기사

이번 호에 특별히 다루어진 기사로는 (가칭)아오모리(靑森)현립미술관 설계경기에 대한 결과발표가 게재되었다. 1등에는 아오키 준(靑木淳)의 계획안이 당선되었다.

이상건축, 철도역사 프로젝트 6제

Railroad Station Project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다수
의 철도 역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대부분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역사이
지만 현상설계를 통한 프로젝트로서 6
개의 역사를 소개한다.

기차는 어느 교통수단에 비하여 풍부
한 코드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철길을 보는 사람들
의 감정은 아주 다르다. 은빛 평행선을
보면서 사람들은 쉽사리 떠남을 그리
워하게 되고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 단
순히 공간적인 감상뿐 아니라 추억과
낭만이라는 추상적인 감상에도 젖게
된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그려지는
기차와 철길은 강렬하게 돌아가고 싶
은 과거를 상징하는 코드로 쓰여지고
있다. 또 줄리델피가 주연하고 오스트
리아의 빈이라는 낭만적인 도시를 무
대로한 영화 '비포 더 선'은 우연하면
서도 숙명적인 만남을 위한 훌륭한 장
치로서 쓰여지고 있다. 그런 기차가 머
무는 철도역은 또 어떤가. 설레이는 기
다림의 장소이면서 애절한 이별의 장
소로 기차역은 즐겨 사용되고 우리들
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철도역사 프로젝트는 기차와 철도역사

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순기능에만 머물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
다. 이미 사람들은 철도역에 오면서 위
에 열거한 감상들을 기대하고 오기 때
문이다. 그러한 기대를 깨뜨릴 권리는
건축사에게 없음은 당연한 일이고, 따
라서 철도역사는 그 역사가 위치한 장
소성은 물론이고 철도와 철도역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사람들의 추억과
낭만을 읽어내어 만족시켜 주어야 하
는 법이다.

장단역사는 남한 지역의 경의선 최북
단 역사이다. 당연히 언제 지어질지 기
약이 없는 역사이다. 이 역사의 바로
다음 정거장이 개성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짐작이 될 것이다.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
사적 움직임이 전제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당연히 장
단역사는 바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바람을 형상화한 역사가 되었다.
또한 주변의 비무장지대로 인한 훼손
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장단역사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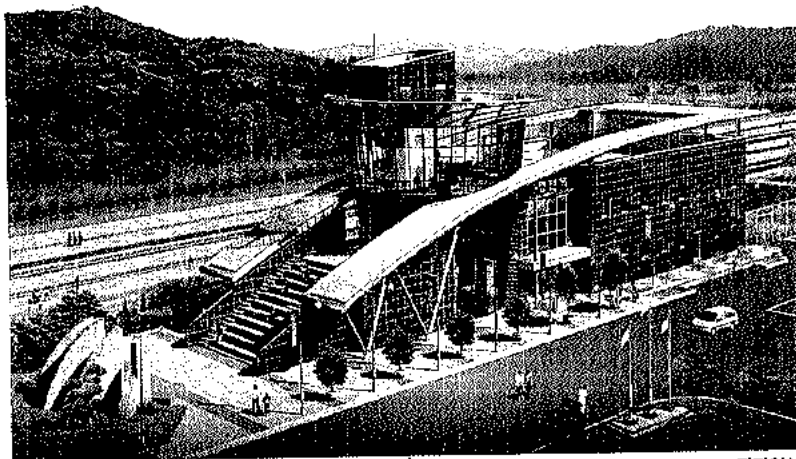
임진각역사는 장단역사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또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요구된 역사였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언제든 지어질 수 있는 역사이
지만 이미 임진각 일대에 구성된 '통
일관광지'의 허브공간으로서의 기능

이 요구되어지고 그에 따른 상징성 또
한 필요한 역사이다.

월곶역사는 유명한 소래포구로부터 멀
지 않은 월곶포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포구를 끼고 있어 풍부한 해산물
이 거래되고 어패류를 찾는 식도락가
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월곶역사는 이러한 포구
의 바다 내음을 물씬 머금을 수 있는
주형상과 자료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 나라 철도역사 중 유일
하게 막, 즉 패브릭으로 지붕이 덮여
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상역사의 지
붕이 금속재의 박스터널의 모양새를
갖춘것에 비하여 획기적인 형상의 역
사가 될 것이다.

달월역사는 월곶역사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역사이다. 이 역사에 이전에는
수인선 협궤가 지나 갔었다. 그냥 철도
도 아니고 수인선 협궤라면 그 공간의
풍부한 상징성은 배가 될 것이다. 역사
의 이름도 옛날 그대로 달월역사가 아
닌가. 때문에 이 역사는 아주 친근감
있는 재료와 조형을 갖추기로 했다. 따
스한 색상과 자료, 그리고 달월이라는
표현을 즉물적으로 해석한 반달모양의
평면 매스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
는 코드로써 기능하게 될 것이다.

지제역사는 평택의 들판 한복판에 세
워지는 역사이다. 평택은 예로부터 경
기도 지방의 유명한 평야지대이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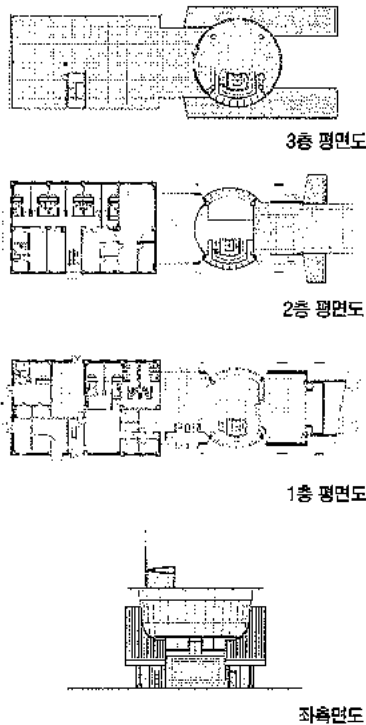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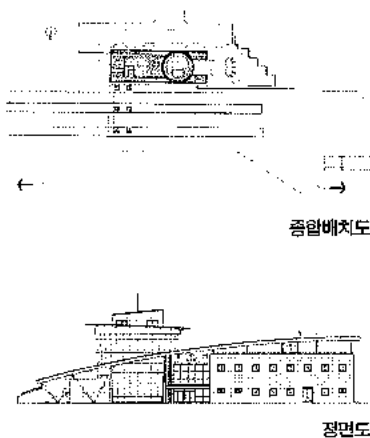


장단역사

창치대였다. 이런 들판에서는 바람이 거세다.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바람에 순응하는 역사의 조형을 추구한 결과로 유선형의 역사가 되었다. 비록 현상공모에서 2등안이 되어 실현될 수 없는 안이 되었지만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진주라는 지역에 대해선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리라. 잘 알려진 곳이거나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콘텐츠가 풍부하며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일수록 상징적인 조형 모티브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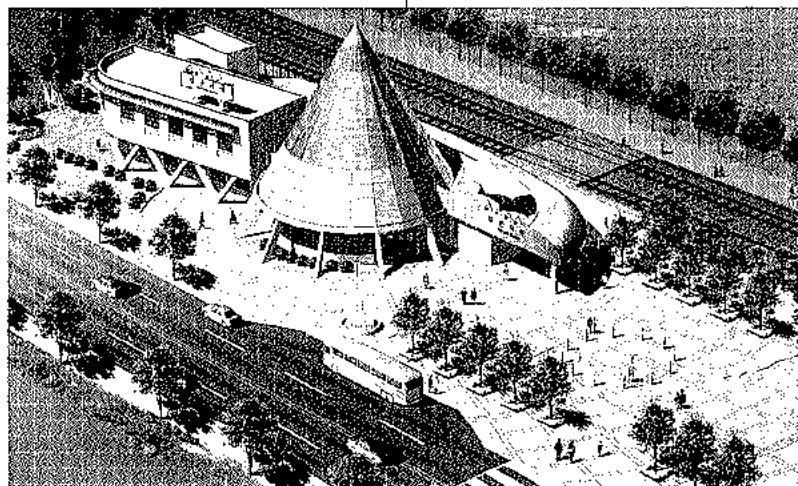
▶ 경의선 장단역사(강철희, 현상설계 당선작)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장단읍 동장리 198번지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캐노피)
층수	지상 3층
건축면적	675.10㎡
연면적	1,282.73㎡
주차대수	12대
주요마감재	THK30 화강석 물갈기 THK24 북층유리
설계담당	김성호, 임영철, 조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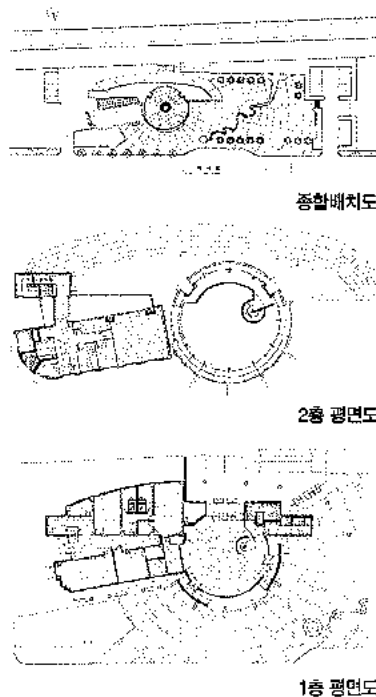
남한지역 경의선의 최북단 역사이다. 대지는 민통선정도가 아니라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있다. 아마도 이 역사가 착공여부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진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이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굽어 있는 지붕의 선은 북녘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의 가교를 의미함과 아울러 상호존중의 몸짓이기도 하다.

▶ 경의선 임진각역사(강철희+이동환, 현상설계 당선작)



임진각역사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65-3외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781.31㎡
연면적	828.15㎡
주차대수	18대
주요마감재	외벽-THK30 화강석 물갈기 + THK4 AL 복합패널 + THK24.3파스텔접합복층유리 지붕-THK5.0 동판접기
설계담당	김광우, 김형중, 조정래





정면도

장단역사의 바로 전정거장이다. 현재 안보관광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임진각 일대의 대중교통 중심이 될 역사이다. 원추형의 유리메스를 통해 24시간 통일을 염원하는 빛의 탑을 이룬다.

▶ 경부선 지제역사(강철희, 현상설계 우수작)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지제동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1,535.10㎡
연면적 1,741.23㎡
주차대수 13대(장애이용 1대)
주요마감재 외벽-THK3 알루미늄쉬트
+ THK18 복층유리
+ 노출콘크리트
지붕-철골트러스 위
THK75 단열패널
설계담당 김성호, 조만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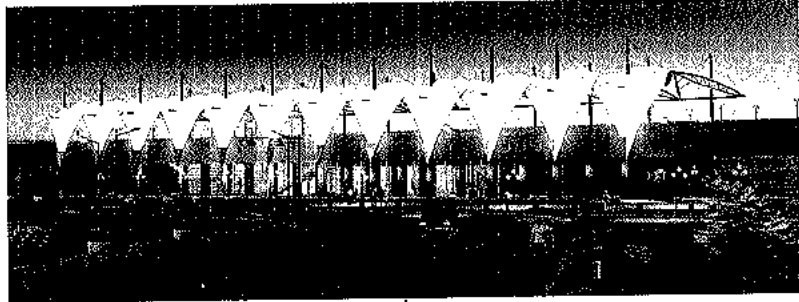
평택평야에서 서 있는 역사, 벌판에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역사는 강한 수평 선상의 시각적 초점을 갖고 그래서 유목적성 있는 강한 힘의 표현으로 유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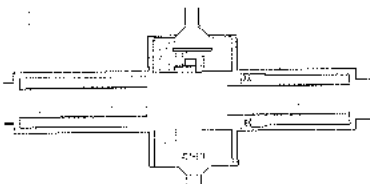
정면도



지제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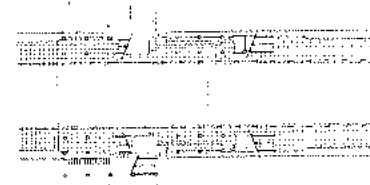
월곶역사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의 지붕을 취하고 있다. 남북의 축을 가진 선로와 동서로 이어진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분절된 대지를 투명성과 방향성을 통해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 수인선 월곶역사(강철희 + 김상진,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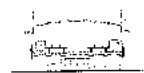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신읍 마정리 1265-3 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경량철골조 / 막구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781.31㎡
연면적 5,377.50㎡
주차대수 115대(장애이용 4대 /
직원용 9대)
주요마감재 외벽-노출콘크리트 위 투빙
아크릴 페인트
+THK18 복층유리
지붕-PTEE 막
역사형식 선하역사
승강장 형식 상대식
승강장 규모 폭:7.5m, 길이:210m
설계담당 김성호, 임영철, 조만규

우리 나라 최초의 페브릭(막)이 사용된 철도역사가 될 월곶역사는 주변의 소래포구와 월곶포구에 의한 장소성을



배치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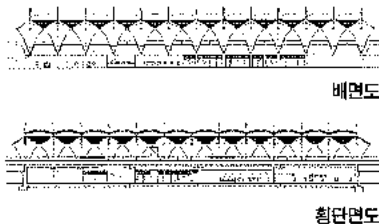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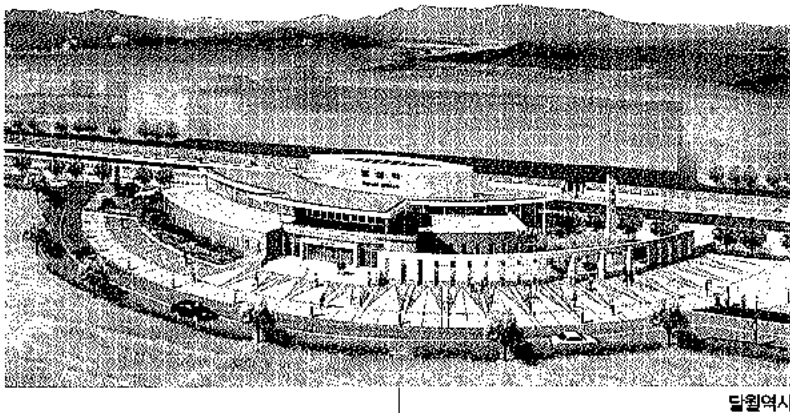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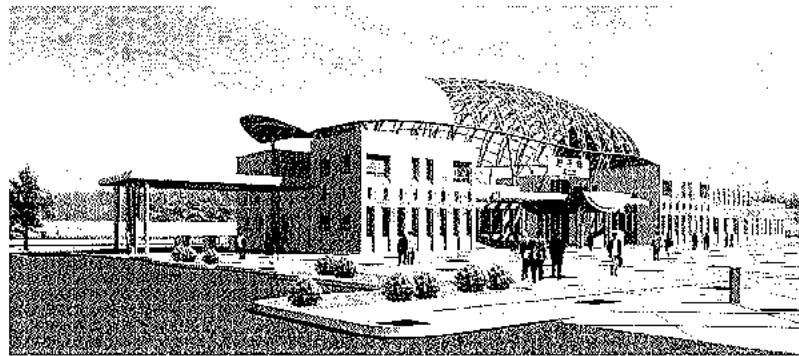
강하게 반영한 조형성을 갖고 있다. 포구에 오가는 배들에게 지금은 돛을 찾아 볼 수 없지만 배의 원형적 기호를 조형 모티브로 한 것은 심사위원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항수를 나르고 원초적 기억을 더듬는 역사이고자 한다.

▶ 수인선 달월역사(강철희,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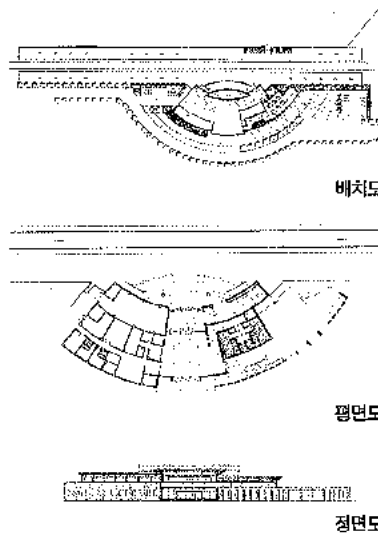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65-3 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
층수	지상 1층
연면적	845.38㎡(지하용로 제외)
주차대수	19대(장애인용 2대/직원용 5대)
주요마감재	외벽 - THK12 석기질 타일 내벽 - THK80 단열패널 (THK0.8 아연도착색 강판)
역사형식	지상역사
승강장 형식	상대식
승강장 규모	폭:7m, 길이:210m
설계담당	김성호, 서승규, 조민구



달월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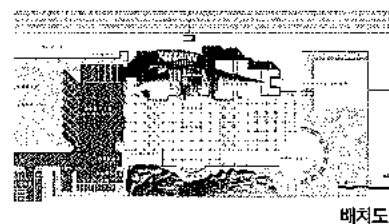
진주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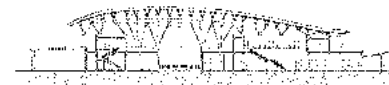
월곶역사와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역사로 자연환경의 수용과 조화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스 및 재료, 색상을 선정, 친근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머물고 싶어지는 역사이고자 한다.

▶ 경전선 진주역사(강철희+이동환, 현상설계 우수작)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기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층수	지상 2층
건축면적	1,673.54㎡
연면적	1,915.57㎡
주차대수	13대(장애인용 1대)
주요마감재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칼라복층유리 지붕 - 평슬라브, 강판트러스 + 아연도강판
역사형식	지상역사
설계담당	유연희, 강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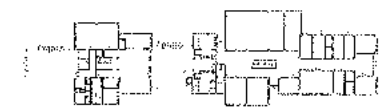
배면도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3월)

(2000. 3. 31 현재)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496	2,904	694	540	228	251	274	151	891	184	202	181	210	112	261	324	78																	
금 별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회 원 수	7,496	16	2,900	4	693	1	540	0	228	0	251	0	273	1	151	0	888	3	184	0	201	1	177	4	209	1	111	1	261	0	324	0	78	0
회 원 변 동 사 양	입 회	96	0	31	8	8	2	1	2	2	20		3	1	5	4	3	3	5															
	재 입 회	8	0	5							1																			2				
	전 입	5	0		1		2				1			1																				
	전 출	-11	0	-1			-1			-1	-6		-1																	-1				
	폐 임	-14	0	-7	-2						-2																			-2		-1		
	사 망	0	0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7,553	16	2,932	4	700	1	546	0	231	0	252	0	274	1	153	0	902	3	184	0	204	1	178	4	214	1	115	1	264	0	326	0	82	0
계	7,569	2,932	701	546	231	252	275	153	905	184	205	182	215	116	264	326	8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사	7,553	2,928	700	546	231	252	274	153	902	184	204	178	214	115	264	326	82
2급	16	4	1	0	0	0	1	0	3	0	1	4	1	1	0	0	0
계	7,569	2,932	701	546	231	252	275	153	905	184	205	182	215	116	264	326	82
비율(%)	100.0	38.7	9.3	7.2	3.1	3.3	3.6	2.0	12.0	2.4	2.7	2.4	2.8	1.5	3.5	4.3	1.1
준회원	25	15	7	0	0	0	0	0	0	0	1	0	0	0	2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154	2,399	16	7,569	
비율	68.1%	31.7%	0.2%	100.0%	
사무소수	4,644	1,542	15	6,201	
비율	74.9%	24.9%	0.2%	100.0%	